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41

마가복음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마 가 복 음

Mark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0:45)

*καὶ γὰρ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οὐκ ἦλθεν
διακονηθῆναι ἀλλὰ διακονῆσαι καὶ δοῦναι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λύτρον ἀντὶ πολλῶν.*

마가복음 차례

마가복음 서론.....	〈17제〉	... 371
제 1 장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다.....	〈31제〉	... 380
제 2 장 예수께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비난이 시작되다.....	〈25제〉	... 391
제 3 장 열 두 제자를 동역자로 세우시다.....	〈24제〉	... 400
제 4 장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치시다.....	〈36제〉	... 408
제 5 장 병자들에게 공훈을 베푸신 예수.....	〈29제〉	... 420
제 6 장 예수께서 두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다.....	〈31제〉	... 430
제 7 장 예수께서 정결 의식 논쟁 후 갈릴리로 떠나시다.....	〈24제〉	... 444
제 8 장 공생애 후기 갈릴리를 중심한 예수의 사역.....	〈28제〉	... 456
제 9 장 공생애 말기에 제자들의 양육에 중점을 두시다.....	〈22제〉	... 469
제 10 장 베레아에서 전도 사역을 행하시다.....	〈21제〉	... 482

제 11 장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29제〉	… 493
제 12 장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	〈38제〉	… 505
제 13 장	종말론(終末論) 전반에 관한 예수의 교훈.....	〈31제〉	… 520
제 14 장	그리스도의 수난이 시작되다.....	〈26제〉	… 532
제 15 장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24제〉	… 545
제 16 장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다.....	〈17제〉	… 558

마가복음 특별 자료 차례

마가복음 서론 〈연구 자료〉	마가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377
마가복음 서론 〈화보 자료〉	마가복음 사본.....	379
제 1 장 〈본장의 요절〉	390
제 2 장 〈연구 자료〉	굶식(禁食)에 대한 예수의 교훈.....	399

제 3 장	〈본장의 요절〉	407
제 4 장	〈화보 자료〉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419
제 5 장	〈본장의 요절〉	429
제 6 장	〈연구 자료〉 아그라파(Agrapha).....		442
제 7 장	〈본장의 요절〉	455
제 8 장	〈본장의 요절〉	468
제 9 장	〈연구 자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480
제 11 장	〈화보 자료〉 예루살렘에 입성(入城)하시는 그리스도		504
제 12 장	〈연구 자료〉 참된 헌금		519
제 13 장	〈본장의 요절〉	531
제 14 장	〈본장의 요절〉	544
제 15 장	〈화보 자료〉 가시 면류관		557
제 16 장	〈연구 자료〉 부활하신 예수의 발자취		566

마가복음 서론

1.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에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마가가 본서의 저자라는 견해에는 별다른 이견(異見)이 없다.
- (2)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 감독이었던 파피아스(Papias, A. D. 60 / 75-130 / 163)를 비롯한 대부분의 초대 교회 교부(敎父)들은 한결같이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본서의 저자임을 증거하였다.
- (3) 그리고 본서를 살펴보면 저자는 예루살렘의 지리에 대단히 밝았으며(참조, 11:1),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음이 분명한데(5:41;7:34) 이 같은 특징들은 모두 요한 마가(John Mark)와 일치하고 있다.
- (4) 또한 본서의 전체 내용 구조와 베드로의 설교(행 10:34-43)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은 마가가 베드로의 전하여 준 말들에 근거하여 기록하였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 (5)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본서의 저자가 마가임이 확실하다.

2. ㉠ 마가는 어떤 인물인가?

- ㉠ (1)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부(富)를 지녔던 과부 마리아의 아들이며(행 12:2),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골 4:10)였다.
- (2) 그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구제물을 가지고 방문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갔으며(행 12:25) 바울과 바나바의 제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였다가(행 13:5) 도중에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행 13:13).
- (3)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마가에게 깊은 실망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그의 제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심한 의견 충돌까지 빚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참조, 행 15:36-39).
- (4) 그 결과 마가는 바울과 전도 사역을 계속하는 대신 바나바와 더불어 구브로 일대 전도에 참여했다(참조, 행 15:37-39). 마가와 바울과의 소원(疏遠)한 관계가 약 10여 년 지속되었으나 끝내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감정을 청산하기에 이른다.
- (5) 즉 마가는 바울의 말년에 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으며 그의 신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에 이른다(참조, 골 4:10; 딤후 4:11; 몬 1:24).
- (6) 이처럼 비록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라 하더라도 의견 충돌과 감정의 대립으로 상호간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끝없는 사랑과 진정한 화해를 이 땅에 선사하신 예수를 바라보아 마침내는 화해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는 분명히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다.

3.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의 기록 연대를 확증할 만한 성경상의 증거는 없으나 최근 대부분의 학자들은 A. D. 67-70년 사이로 보고 있다.
- (2) 초대 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Irenaeus, 140?-200?)는 베드로의 제자요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베드로가 죽은(A. D. 67-68) 후에 그의 설교를 기록하였다고 말한다.
- (3)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본서 13장의 내용이 아직 성취되기 전이므로 본서는 A. 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4)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A. D. 65년과 70년 사이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4. ㉠ 본서의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 ㉠ (1) 본서의 기록 장소가 로마라는 것은 초대 교회의 전통적인 견해이다.
- (2)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와 클레멘트(Clement, 150?-215?) 등은 본서의 기록 장소가 로마라는 견해에는 조금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 (3) 또한 이 교부들은 본서가 기록된 것과 사도 베드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내세웠다. 첫째,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 있었으며 거기서 순교당했을 것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둘째, 성경도 그 당시에 마가가 로마에 있었으며 베드로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증거해 준다(딤후 4:11; 벰전 5:13).
- (4) 또 다른 증거로서 사도 교부 문서인 클레멘트 15:2과 헤르마스의 목자(Shepherd of Hermas)서에 본서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그 두 저서들은 로마와 관련되어 있다.
- (5) 거기에다가 본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이 마가를 로마로 붙였으며(딤후 4:11)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다는 사실(참조, 벰전 5:13)도 이를 증명할 좋은 자료가 된다.
- (6) 한편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크리소스톰(Chrysostom, 354?-407)은 본서가 이집트에서 기록되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러나 이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지받을 수 없다고 있다.

5. ㉠ 본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의 수신자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나 이방인들이라는 데에 견해가 일치한다. 그것은 본서 자체가 이를 잘 증거하고 있다.
- (2) 7:3, 4에는 유대인의 세정(洗淨) 풍습이 설명되어 있고, 7:11에는 고르반에 관한 것이 그리고 1:5에는 '요단 강'이 설명되어 있다.
- (3) 더욱 면밀히 본서를 연구해 보면 마가는 로마 교회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복음을 기록했다. 복음서 기자들 중에 오직 마가만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15:21)임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이 그러한 사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 같다.
- (4) 루포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언급되어진 경우는 롬 16:13에서 뿐인데, 그는 바울이 특별한 안부를 전할 만큼 로마 교회에서 유력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의 두 아들과 함께 로마에 정착하여 로마 교회로부터 중요한 직책을 얻게 되었던 것 같다.
- (5) 그리고 본서에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참조, 6:27; 7:4; 15:39, 44, 45; 12:42).
- (6) 또한 박해와 순교는 마가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인데(8:34-38; 13:9-13), 이것은 특별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이었다.
- (7) 이와 같은 사실들은 본서의 수신자가 이방인들 특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혀 준다고 할 수 있다.

6. ㉠ 본서의 사회적·정치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당시 유대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긴장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 (2) B. C. 40년경 헤롯 왕은 로마와 동맹을 맺고 그 허락을 얻어 갈릴리와 베리아를 다스렸고 유대와 사마리아 및 이두매는 로마 제국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통치받고 있었다.
- (3)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가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었던 것 같으나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에 로마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었다.

- (4) 그리고 B. C. 63년경 폼페이우스(Pompeius)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유대인들은 세금율 로마에 바치게 되었는데 이 납세 제도는 수탈(收奪)의 형태를 띤 것으로 그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곤경을 당하고 있었다.
- (5) 본서를 살펴보면 세리들이 유대인의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같은 사회·정치적 배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참조, 2:16; 마 9:11; 눅 3:12, 13).
- (6) 이와 같이 로마의 침략이 빚어 낸 혼란으로 말미암아 유대 국민들이 통일된 이념으로 단결할 수 없었던 때를 배경으로 본서의 내용이 전개된다.

7. ㉠ 본서의 종교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는 유대교였다. 이 유대교에는 3대 주요 종파가 있었다. 그중에 가장 유력했던 종파는 바리새파이고 그 다음은 사두개파요 옛센파(the Essenes)였다.
- (2) 당시 바리새파의 수는 약 6천 명 정도였다. 이들은 경건주의자들로서 율법의 규칙을 강조하였고 배타적이었으며 회당 교육을 전담하였다.
- (3) 사두개파는 자연주의자들로서 수적으로는 바리새파보다 적지만 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들이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성전 예배를 전담하였다.
- (4) 옛센파는 금욕주의자들로서 흰 옷을 입었고 독신을 강조하였다. 이 파의 회원이 되려면 3년이란 견습 기간을 거친 후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하였다.
- (5) B. 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 예배와 율법 연구를 위하여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기 시작하였는데 예수 당시에 와서는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1:39).
- (6) 그리고 이 율법 연구와 바른 가르침을 위해 서기관과 랍비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들은 예루살렘은 물론 유대와 갈릴리 각 지방에도 흩어져 있었고 이들 중 대부분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
- (7) 그런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개가 외식주의적(外飾主義的)이고 위선적이었으므로(12:40; 마 23:1-36) 예수와 가장 많은 논쟁을 하였으며 예수의 책망을 심하게 받았다(7:6-13).

8. ㉠ 본서의 저작 동기는 무엇인가?

- ㉠ (1) 본서가 기록되어야만 했던 동기는 여러 가지로 추측이 가능하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도 수십 년이 지났으므로 예수께서 생전에 행하신 사적을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기록이 있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 (2) 또한 예수의 여러 가지 가르침과 기사와 이적을 직접 체험했던 목격자들 역시 점차 사라져 갔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 (3)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네로 황제(A. D. 37-68)의 박해(A. D. 64-68)가 극심하여 많은 성도들이 죽어 갔고, 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어야만 했던 것이다.
- (4)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에 의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가에게 로마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서 글로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 (5) 마가가 독자들이 이미 이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이나 그 의미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례 요한에 대한 사전 소개가 전혀 없으며, 또한 그의 무욕 사건은 독자들에게 이미 기정 사실인 것처럼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세례'나 '성령'이라는 단어가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된 사실들은 그 좋은 증거라 할 수 있다.
- (6) 이로 보건대 마가는 단순히 한 가지의 동기에 의하여 본서를 집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집필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 본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또한 종으로 오신 수난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 순교자적인 입장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 주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 (3) 즉 우리와 똑같은 인성(人性)을 지니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좌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증거하여 주려는 것이었다.
- (4) 따라서 본서는 험난한 인생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무시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한다(참조, 사 35:3, 4; 41:8-16; 43:1-7).

10. ㉠ 본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교훈 중심의 책이라기 보다 사건 중심의 책이다. 그 한 예로 마태복음에는 교훈적인 비유가 14 개인 반면, 본서에는 고작 4개의 비유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 (2) 그리고 많은 라틴어 단어가 헬라어로 음역(transliterating) 되었으며 라틴어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구문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도 그 특징 중의 하나이다(참조, 3:6; 14:65; 15:15).
- (3) 본서의 문체를 보면 대단히 힘있고 선명하고 직접적이며, 박진감이 넘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서에는 무려 150번 이상이나 역사적 현재 용법(과거의 사실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한 현재 시제의 사용)이 사용되었다.
- (4) 또한 '즉시' 라는 부사가 41번이나 사용되었는데(참조, 1:10, 12, 18, 20, 21, 23), 이것은 마치 사건이 독자들이 보는 앞에서 발생한 듯한 효과를 준다.
- (5) 본서의 문체가 지니고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마가가 복음서의 기록을 통하여 독자들의 신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3:37의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는 말씀을 보면 마가가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또한 그는 가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그의 독자들에게 말한다(참조, 4:41). 이와 같이 마가는 그의 독자들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본서에 서술된 사건에 직접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였는데, 이 역시 본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1. ㉠ 본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부분을 찾아 보라.

㉠

내 용	예 언	성 취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소됨	시 35:11	14:57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함	사 53:7	15:4, 5
매맞고 모욕당함	사 50:6	14:65; 15:17
죄인들과 함께 못박히심	사 53:12	15:27
조롱과 모욕당함	시 22:6-8	15:29-32
군병들이 옷을 제비뽑음	시 22:18	15:24
부활하심	시 16:10; 49:15	16:6, 7
승천하심	시 68:18	16:19

12. ㉠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론을 설명하라.

- ㉠ (1) 그리스도는 인성(人性)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는 인성적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시며(참조, 3:5;6:6,34;7:34;8:12;10:21 등) 심지어 인성의 약점까지도 지닌 분이시다(3:21;5:38;6:31 등).
- (2) 그리고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참조, 사40-53장). 이 '종'의 사상은 곧 '수난'의 사상인데 이것은 본서가 예수의 수난을 그 주제로 삼았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10:45).
- (3) 본서에는 그리스도의 인성 뿐만 아니라 신성에 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1:1)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며(1:21-3:12)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2:5, 8;8:17;12:15 등)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다(8:38;10:39).

13. ㉠ 공관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론을 간략하게 비교 설명하라.

- ㉠ (1)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복음서를 기술하였지만 서로의 보는 관점이 다르므로 각 복음서의 그리스도론도 마땅히 다를 수밖에 없다.
- (2) 마태는 그리스도를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과 비슷한 영광과 능력의 메시아로 묘사했다. 즉 예수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모든 사람들의 왕이신 메시아로 기록했던 것이다(참조, 2:2;21:5;25:34).
- (3) 그리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초점을 맞추어 죄인과 병자들 그리고 버림 받은 자들의 친구로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분으로 기록하였다(10:30-37;15:4-7, 11-32;18:10-14;19:2-10;23:39-43).
- (4) 그런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언급하면서도 그것보다는 '종의 형제'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과 특별히 대조된다(참조, 8:31;10:45;요 13:4, 13-15; 빌 2:7).

14. ㉠ 본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고 있다(1:1).
- (2) 본서의 서두에서부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15:39)라고 십자가 앞에서 외쳤던 백부장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있다.
- (3) 변화산상에서 들려 온 하나님의 음성(9:7)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 왔던 하나님의 음성(1:11)도 이 사실을 확증해 준다.
- (4)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도(12:1-12;13:32) 이 사실을 가르치셨고 심지어는 귀신들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였다(1:24;3:11).
- (5) 이처럼 본서에서 마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다.

15. ㉠ 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서는 예수의 초기 사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주께서 세례받으시고 시험받으신 사건들에 대한 간략한 언급으로 시작되고 있다.
- (2) 북부 팔레스틴에서 시작한 그의 첫 사역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군중들로 인하여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그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시작되었다.
- (3) 이 적대감이 예수의 두번째 사역 기간 중에 더욱 고조되자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갈릴리를 떠나 여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가끔씩 가버나움에 들르시곤 하셨다.
- (4)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전념하셨으며 주의 죽으심과 부활

을 통한 지상 사역의 완성에 대해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설명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16. ㉠ 본서의 대지를 간략하게 말하라.

- ㉠ (1) 예수께서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다 / 1:1-13
- ① 세례 요한의 활동 / 1:1-8
 - ②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 1:9-11
 - ③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다 / 1:12,13
- (2) 예수의 갈릴리 전도 사역 / 1:14-6:30
- ① 네 제자를 부르시다 / 1:14-20
 - ② 첫번째 전도 여행을 하시다 / 1:21-45
 - ③ 유대 지도자들의 비난이 시작되다 / 2:1-3:12
 - ④ 열 두 제자를 부르시다 / 3:13-19
 - ⑤ 예수의 참가족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 3:20-35
 - ⑥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다 / 4:1-34
 - ⑦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다 / 4:35-5:20
 - ⑧ 아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심 / 5:21-43
 - ⑨ 갈릴리에서 두번째 전도 여행을 하시다 / 6:1-30
- (3)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물러나시다 / 6:31-9:50
- ①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가시다 / 6:31-56
 - ② 결례에 관하여 논쟁하시다 / 7:1-23
 - ③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가시다 / 7:24-30
 - ④ 데가볼리에 거하시다 / 7:31-8:10
 - ⑤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다 / 8:11-9:50
- (4) 예수의 베레아 전도 사역 / 10:1-52
- ①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 10:1-12
 - ②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다 / 10:13-16
 - ③ 부(富)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 10:17-31
 - ④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대화를 나누시다 / 10:32-45
 - ⑤ 소경을 고치시다 / 10:46-52
- (5) 예수의 예루살렘 전도 사역 / 11:1-13:37
- ①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 11:1-26
 - ② 마지막 교훈을 하시다 / 11:27-12:44
 - ③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 13:1-37
- (6) 예수의 수난과 부활 / 14:1-16:20
- ① 수난을 준비하시다 / 14:1-42
 - ② 수난을 당하시다 / 14:43-15:32
 - ③ 예수의 죽으심 / 15:33-47
 - ④ 부활하시다 / 16:1-18
 - ⑤ 승천하시다 / 16:19,20

17. ㉠ 본서의 중심 요절은 무엇인가?

- ㉠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0:45).

연구자료

마가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본서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구약 성경의 인용이 적다는 점이다. 다른 복음서는 모두 100여 회 또는 그 이상의 인용 귀절이 나오는데 반해 본서에는 불과 60여 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본서의 내용 자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적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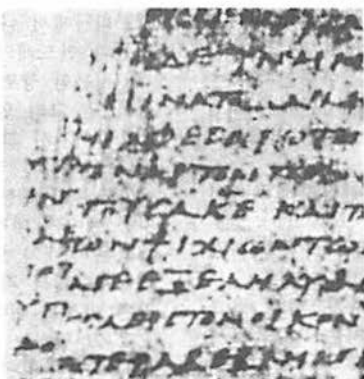
장절	내용	출처
1: 2, 3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사 40:3; 말 3:1
1: 11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시 2:7; 사 42:1
1: 44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들을 드러 저희에게 증거하라	레 13:49; 14:2-32
2: 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 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출 20:10; 신 5:14; 23:25
2: 25, 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밋 함께 한 자들이 껌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삼상 21:1-6
3: 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능탈치 못하리니...	사 49:24
4: 12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사 6:9, 10
4: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율 3:13
4: 32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뭇보다 커지며 큰 가지의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단 4:9-28
6: 18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레 18:16; 20:21
7: 6, 7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 29:13
7: 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출 20:12; 21:17; 레 20:9; 신 5:16
8: 18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사 6:9, 10; 렘 5:21; 겔 12:2

8 : 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음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시 62:12; 잠 24:12
9 : 7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신 18:15; 시 2:7; 사 42:1
9 : 12, 13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왕상 19:2, 10; 말 4:5, 6
9 : 49	사람마다 밭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레 2:13
10 : 4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신 24:1
10 : 6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창 1:27; 5:2
10 : 7, 8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 2:24
10 : 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출 20:12-17; 신 5:16-21
10 : 27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창 18:14; 욥 42:2
11:9, 10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 118:26
11:17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 56:7; 렘 7:11
12:1-9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시 80:9; 사 5:1-7
12:10, 11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 118:22
12:19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름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창 38:8; 신 25:5, 6
12:26, 27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출 3:6, 15
12:29, 30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 6:4, 5
12:31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 19:18
12: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삼상 15:22
12:36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시 110:1
13:12	형제가 형제들, 아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미 7:6
13:14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단 9:27; 11:31; 12:11
13:19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단 12:1; 욥 2:2

13:24, 25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단 8:10; 욥 4:16; 암 5:20; 8:9
13:26, 27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 13:9, 10; 겔 32:7, 8; 단 7:13; 습 1:15
14:12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출 12:18-20
14:18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시 41:9
14:24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출 24:8; 레 4:18-20; 렘 31:31; 습 9:11
14: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습 13:7
14:34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내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시 42:6
14:62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시 110:1; 단 7:13
14:64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레 24:16
15:24	십자가에 못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시 22:18
15:34	제 구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 22:1

화보자료

마가복음 사본.
3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이 사본은 7:25-8:1 내용을 담고 있다.



본복음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관해선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 하는데 이러한 사본들은 그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다.

제 1 장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다

단락구분 1-8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 / 9-11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 12-13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다 / 14-15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 / 16-20 네 제자됨 부르시다 / 21-28 귀신들린 자를 고치시다 / 29-31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다 / 32-34 각색 병자를 치유하시다 / 35-39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다 / 40-45 문둥병자를 고치시다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 요한은 악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9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7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좃으니라
 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낚는데
 20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21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 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르치시는 것이 권세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3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이노 권세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9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이 들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31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32 저쯤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34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40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41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42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3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44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45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예수의 공생애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과 복음 사역을 시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마가는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 사역이 예언의 성취임을 밝힌 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 및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 (3)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애 초기부터 큰 권능으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했다.
- (4) 여기서 우리는 공생애 사역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9, 13 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일생을 바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감주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무장시켜야 함을 깨우쳐 준다(참조, 엠 6:10-19).

2. ㉠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란 서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이 말은 본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2) 다시 말해서 본서는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즉 기쁨 부음 받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이다.
- (3)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저자이시고 복음의 근원이시며 복음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다.
- (4) 이 서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세상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다(참조, 롬 11:36; 고전 8:6; 11:12; 골 1:16, 17).
- (5) 또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만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참조, 요 17:1-26; 롬 1:7; 엠 1:17).

3. ㉠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의 임무는 무엇인가? (2, 3절)

- ㉠ (1) 여기서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그의 임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 (2) '예비하다'는 히브리어로 <파나>인데 그것은 '자신을 돌리다', '돌이키다'는 뜻이다.
- (3) 따라서 세례 요한의 임무는 완악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 (4) 그런데 참된 회개는 우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추악한 죄인임을 깨달아(시 32:5) 그 죄악에 대하여 자복하며(시 38:18) 이전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롬 6:6; 8:12, 13; 히 12:4).

- (5) 본질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려면 필히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참조, 마5:8).
- (6)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의 저지르는 죄악을 회개하여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여야 한다(참조, 히 12:4; 약 4:8; 벰전 1:22).

4. **㉠** 마가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귀절은 모두 '이사야'의 글인가? (2, 3절)

- ㉠** (1) 마가가 인용한 이것은 본서에 유일하게 있는 구약 성구로서 말라기와 이사야의 글이 결합된 것이다.
- (2) 즉 2절은 말 3:1의 인용이고 3절은 사 40:3의 인용이므로 이 인용귀 모두를 이사야의 글이라고 볼 수는 없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가가 이 모두를 이사야의 글이라 했느냐는 의문을 푸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 (4) 학자들간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만족할 만한 주장이 없다. 다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일점 일획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아마도 마가가 이사야를 대표적인 선지자로 생각하여 기록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Brace).
- (5) 실제로 이사야 선지의 외침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욱 강렬했으며 모든 선지자의 말씀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

5. **㉠**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4절)

- ㉠** (1)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그 뜻은 '표적을 빗나가다'는 말이다.
- (2) 여기서 '표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표준으로 곧 '율법'과 '복음' (gospel) 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제반의 모든 언행 심사(言行心事)를 일컫는 말이다.
- (4) 이 '죄'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결과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참조, 요 8:34; 롬 3:10, 23).
- (5) 이처럼 모든 인간들을 엮어 매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뿐이다(참조, 요 3:16; 갈 2:20).

6. **㉠**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4, 5절)

- ㉠** (1)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自服)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 (2) 여기서 '나아갔다'는 헬라어 <엑세포류에토>는 그 시제가 과거 미완료로서 이는 그들이 요한에게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그리고 '예루살렘'은 요단 강에서 적어도 30km나 떨어진 곳이며 요단 강에 비하여 지대도 약 1.2km나 높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요단 강 사이의 그 거친 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 (4)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볼 때 요한의 사역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대단히 호의적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5) 그런데 만일 요한이 전적으로 어떤 윤리만을 전파하였다면 이 정도의 큰 관심은 불러일으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요한은 메시아의 도래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6) 이처럼 우리는 자기 죄를 자복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스9:5, 6).

7. **㉠ 세례 요한의 생활 습성은 어떠한가? (6절)**

- ㉠** (1)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石淸)을 먹었다.
 (2) '약대 털'은 약대의털로 짠 털수룩한 옷을 말하며 '가죽띠'는 긴 옷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리에 두르는 띠인데 요한의 이러한 복장은 엘리야의 옷차림 같았다(왕하 1:8).
 (3) 그리고 '메뚜기'는 모세의 율법에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음식으로서(레 11:22)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고 오늘날도 아랍인들은 그것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석청'은 나무나 바위 틈바구니에서 야생 벌들이 만들어 내는 단순한 꿀을 말한다.
 (5) 이러한 요한의 습성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금욕적(禁慾的)이고 검소한 생활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세속적인 생활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생활에 대한 그의 반발로서 세상의 불의에 대한 경멸과 세상과의 정식적인 분리를 의미한다.
 (6)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요한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인간적인 욕망들을 극기(克己)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갈 5:16-25; 엡 4:1-3; 살전 4:3-6).

8. **㉠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통하여 볼 때 그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는가? (7절)**

- ㉠** (1)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인 겸손의 인물이다.
 (2) 그는 예수께서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강조하였고 자신은 그의 신들메를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하였다.
 (3) 이러한 그의 겸손을 아신 예수께서는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마 11:11)라고 말씀하셨다.
 (4) 이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천국 윤리이다.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만이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마 23:12)를 전(全)일생을 통하여 실천한 사람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참조, 요 13:4-8; 롬 12:16; 빌 2:3-11).

9. **㉠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는 무엇이 다른가? (8절)**

- ㉠** (1)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이고 예수의 세례는 '성령 세례'이다.
 (2) 요한의 이 '물세례'는 도덕적으로 정결케 하는 회개의 세례로서 사람들의 생활을 바로잡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마 3:8)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3) 성령 세례는 예수의 구속 사역을 이룬 증거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거듭나는 것, 즉 중생(重生)을 뜻하는 말이다(참조, 요 3:5).
 (4) 따라서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외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므로 단순한 물세례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내적인 성령 세례와 관계를 맺을 때 물세례는 비로소 그것 자체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5)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물세례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세례 받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즉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어떠한 물세례도 무가치하다는 말이다.

10. **㉠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9-11절)**

- ㉠** (1)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마 3:15).

- (2) 여기서 '모든 의'란 예수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첫째, 예수께서 죄인된 인간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참조, 요 1:14; 롬 8:3; 딤후전 3:16; 요일 4:2 등).
- (3)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속죄의 양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기 위하여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참조, 사 53:7; 요 1:36 등).
- (4) 둘째,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참조, 사 19:23-25; 53:4-6; 롬 16:20; 엠 2:11-22; 뱀전 1:18-20; 요일 3:8).
- (5) 따라서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기쁨 부음을 받는 의미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참조, 시 2:2).
- (6) 이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진력(盡力)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다(참조, 행 21:14; 롬 1:10; 엠 6:6; 골 4:12; 약 4:13-15; 뱀전 4:2; 요일 5:14).

11. **㉠**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 11절)

- ㉠** (1) 첫째, 예수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이것은 스테반이 순교하기 직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처럼 그의 영안(靈眼)이 밝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행 7:55, 56).
- (2) 둘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사역하고 계심을 뜻한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의 사역의 성격이 온유와 평화 그리고 순결을 의미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마 11:29).
- (3) 셋째, 성부 하나님께서 그가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인증(認證)하는 말씀을 직접 하셨다(참조, 9:7; 요 12:28).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예수에게 영적인 축복과 아울러 당신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러한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될 것이다(참조, 수 1:8; 마 12:50; 요 14:23).

12. **㉠** 예수께서는 무슨 힘에 의해 광야로 나아갔는가? (12절)

- ㉠** (1) 성경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표현되어 있다.
- (2) 즉 예수께서 세례를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예를 모두 지켰을 때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이제는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광야로 예수를 내모셨던 것이다.
- (3) 이는 예수께서 독특하게 지니신 신적인 권위나 능력이 없어서 성령께 내몰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능력과 권위에 도전하는 사단의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였다.
- (4) 이처럼 예수의 생애는 항상 사단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공격으로 일관하였다. 이런 일들의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친히 부활하신 사건을 들 수 있다(참조, 롬 8:2).
- (5) 한편 예수께서는 그가 태어나시기 전부터 시작하여 그의 전생애 동안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지금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참조, 마 1:18; 3:16; 4:1; 28:19; 요 14:16, 17, 26; 행 1:8).
- (6) 이와 같이 예수의 사람들 역시 어떤 환경과 인격을 만난다 하더라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주의 영만이 우리를 온전하고 참된 길로 이끄실 수 있다

(참조, 요 14:17; 행 16:6-10).

13. **㉠** 광야에서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적 의미를 주는가? (12, 13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들짐승들로부터 해(害)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 (2) 한편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들짐승과 더불어 지내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겪으신 그 모든 시험이 얼마나 격심했던가를 강조해 주는 표현이다.
- (3) 여기서 ‘광야’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며, ‘들짐승’은 사단의 권세를 상징한다.
- (4) 따라서 위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참조, 시 33:20; 딤후 1:12; 4:17, 18).
- (5) 그러므로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반석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시 18:1, 2; 121:1-8).
- (6) 광야에서 받으신 예수의 시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마 4장 **㉠**5-17 번을 참조하라.

14. **㉠** 언제부터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는가? (14 절)

- ㉠** (1)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이다.
- (2) 즉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마친 후에 예수께서 증거를 시작하신 것이다.
- (3)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을 하든 예수처럼 가장 알맞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갈 4:4).
- (4)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바로 알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출 33:12, 13; 욥 42:4; 엡 6:18; 골 4:2).

15. **㉠**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14, 15 절)

- ㉠** (1)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
- (2)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이 땅에 전하셨던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개개인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참조, 출 15:15; 시 29:10; 사 43:15).
- (3) 그렇기에 예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옛부터 지니고 있었던 물리적이고 육체적이며 피부로 만질 수 있는 현재성만을 강조한 하나님 나라와는 차이가 있었다(참조, 시 24:1; 47:7).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모든 이방과 불의의 세력들이 멸절되고 자신들만이 살아 남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 (4) 이러한 사상은 분명 인간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참조, 행 20:24; 엡 1:6-10).
- (5)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강조하신 후 ‘회개하는 일’과 ‘복음을 믿는 것’ 두 가지를 요청하셨다. 사실 예수의 말씀 선포와 권능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청신호였다(참조, 마 12:28; 눅 11:20). 즉 예수의 활동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이다.
- (6) 이 사실에 직면한 인간들에게 예수께서는 먼저 자신들의 전(前)삶을 돌이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의 구원만을 확신하는 ‘회개’를 요청하셨다. 회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첫 관문이다(참조, 행 2:37, 38).
- (7) 그리고 두번째로 요청하신 것은 ‘복음을 믿는 일’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진리(골 1:5)와 희망(골 1:23)과 평화(엡 6:15)와 하나님의 약속(엡 3:6)과 영생(딤후 1:10)과

구원(엡 1:13)의 확신을 소유할 수 있다.

- (8) 이것은 예수께서 전도하신 메시지가 단순하고 순수한 것으로 인위적인 방법이나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할 때 순수하게 복음 그 자체만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참조, 갈 1:7-9).
- (9)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참조, 롬 1:14, 15). 따라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써야 하며(참조, 딤후 4:2)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참조, 마 5:10-12; 딤후 1:8).

16. **㉠** 예수께서는 어떤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16-20절)

- ㉡** (1) 먼저 예수께서는 자기 생활에 충실한 자들을 부르셨다.
- (2) 다시 말해서 시몬과 안드레는 고기를 잡고 있을 때(16절)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잡고 있을 때(19절) 부르셨던 것이다.
- (3) 이처럼 주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 이는 주께서 우리의 능력보다 당신을 향한 열심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4:2; 계 2:10).
- (4)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 혹은 직장에서 예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마 25:14-30; 눅 19:12-26).
- (5) 또한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은 모두가 사회적인 지위나 학문적인 체계가 다져지지 않은 소시민 계층의 어부들이었다.
- (6) 이런 자들을 주께서 부르신 것은 제자들의 그러한 부족한 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더욱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참조, 고전 1:27, 28; 고후 11:30).
- (7)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단점들과 부족한 점들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참조, 삼상 16:7; 고전 1:26; 고후 12:5).

17. **㉠** 예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16-20절)

- ㉡** (1) 첫째, 그들은 예수의 부르심에 대하여 신속한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
- (2) 둘째, 그들은 그들이 누리던 세상적인 모든 부귀 영화(富貴榮華)를 버렸다.
- (3) 셋째, 그들은 주를 따라 나섰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要件)이다.
- (4) 우리는 어떤가? 생활 속에서 요구하시는 주의 요청에 대하여 즉각적인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재리(財利)를 주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러한 결단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 (5)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해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즉시 순종하는 삶의 자세이다(참조, 마 10:37-39; 빌 3:7, 8).

18. **㉠**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21, 22절)

- ㉡** (1)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1:39; 마 4:23).
- (2) 그 당시 회당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교육 중심지로서 이곳에서는 주로 랍비들의 활동 두드러졌었다.
- (3) 예수께서는 유대의 전통과 유대인의 아집에 찬 가르침과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이곳에서 '권세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 (4) 다시 말하면 그의 완전하신 인격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와 계시가 여태껏 종교의 외적인 교훈만을 들어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충격이었다.
- (5) 특히 예수의 말씀 자체가 인간의 영혼을 헤집어 놓기에 충분한 정도로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 어두운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태양보다 더 짙은 빛깔로 접근해 왔던 것이다.
- (6) 예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워지고 비뚤어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참조, 요 14:26).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솟아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말씀을 스스로 실천해 가는 수밖에 없다.

19. ㉠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가? (23 절)

- ㉠ (1)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회당에 귀신들린 사람이 있었다.
- (2) 그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주의 사역을 방해하였다.
- (3)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단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역을 훼방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라지 같은 자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이다(참조, 4:15; 마 13:24-30, 36-40; 뱀전 5:8).
- (4) 만약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단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참조, 롬 8:7).
- (5) 또한 우리는 교회가 완벽하리라는 기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교회에는 언제나 알곡과 썩정이가 있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공존할 것이기 때문이다(마 3:12; 13:24-30).

20. ㉠ 귀신들린 자는 예수께 무슨 말을 하였는가? (24 절)

- ㉠ (1) 귀신들린 자는 예수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말하였다.
- (2) 이미 귀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으며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하였던 것이다(참조, 마 8:29; 약 2:19).
- (3)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수를 진정한 나의 주로 믿고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매사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참조, 약 2:17-19; 계 3:20).

21. ㉠ '나오라'는 예수의 책망의 명령에 대한 귀신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25-28 절)

- ㉠ (1)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 (2)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말씀이 권세(權勢)가 있었으므로 귀신은 그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 준다(참조, 마 8:24-27; 롬 16:20; 요일 3:8).
- (3)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의 신적인 임무를 증거하여 주며(롬 16:20; 히 2:14),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 또한 증거하여 준다(참조, 요 15:13; 고후 8:9; 히 2:16-18).
- (4) 그러므로 이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 4:13)는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이다.

22. ㉠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9-31 절)

- ㉠ (1)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신 장소가 회당 밖이었음을 주시(注視)하라. 예수는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실천하신 모범을 보이셨다.
- (2)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교훈과 능력 등을 일상 생활에 적용하거나 환용하는 일

이 적음을 회개하여야 하며 말씀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참조, 약2:14-26).

- (3)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녀의 병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이다.
- (4)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근심과 질병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참조, 요 14:6).

23. **㉠** 예수께서 밤이 늦도록 몰려든 병자들을 고치신 기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2-34절)

- ㉠** (1) 첫째,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들으려 하기 보다 단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모였다.
- (2) 즉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보다 그들이 당면(當面)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받는 데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 (3) 우리도 예수를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잘못을 범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주께서는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참조, 행 8:9, 10, 18-20; 19:13-16).
- (4) 둘째, 여기서 우리는 인간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양의 질병과 아픔이 예수의 치유하시는 손길 앞에서 모두 사라져 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 (5)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도덕적, 윤리적 타락 등 갖가지 병폐(病弊)들이 널리 퍼져 있으며 그러한 것들은 주님이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 (6) 셋째, 밤이 늦도록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신 예수에게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참조, 14:38; 마 26:41).
- (7)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아픔을 당하여 신음하는 자들이 많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기에 앞서 먼저 인류의 구세주이며 모든 사건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는 우리의 자랑이요 간중이시다(참조, 행 3:6; 갈 2:20).

24. **㉠**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35절)

- ㉠** (1) 예수께서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 (2) 그 전날 밤 늦도록 병자들을 치료하시느라 무척이나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未明)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신다.
- (3) 이처럼 바쁜 공생애 기간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습관에서 우리는 기도가 그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6:46; 마 14:23; 눅 3:21; 5:16; 6:12; 9:28; 11:1).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처럼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다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여 준다(참조, 시 5:3; 88:13; 119:55, 62; 단 6:10, 13; 엡 6:18; 살전 5:17).

25. **㉠** 기도 중인 예수께 찾아온 제자들에게서 우리들은 어떠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36, 37절)

- ㉠** (1) 그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를 찾아왔던 것이다.

- (3) 그들은 예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였다(참조, 마 20:20-24; 26:36-46).
- (4)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앞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준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참조, 호 3:6; 빌 1:9; 벧후 1:5; 3:18).

26. Q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38, 39절)

- A (1)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 (2) 즉 그분은 단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는 인기인(人氣人)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 (3) 여기서 예수께서 그가 행하신 일들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참조, 마 9:30).
- (4) 그래서 예수는 다른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었다.
- (5) 물론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들도 중요하지만(39절) 그것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에 방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 (6) 오늘날 한국 교회에 속하여 있는 일부 종파에서는 말씀을 도외시한 채 온사들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이러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바람직하지 못하다.

27. Q 문둥병자를 고친 기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40-45절)

- A (1) 첫째,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문둥병처럼 고칠 수 없는 더러운 영적인 질병들이 널리 퍼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딤후 3:1-5).
- (2) 둘째, 우리 주님만이 이러한 질병들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으며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요 14:6).
- (3) 셋째, 주께서는 믿는 자들의 간구에 즉시 응답하시며, 구한 것 이상의 응답을 하신다(참조, 출 9:33; 왕상 3:7-14; 왕하 13:4; 대하 1:7-12; 7:14; 빌 4:6; 요일 3:22).
- (4) 넷째, 주께 간구하는 것, 즉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의무이다(참조, 대상 16:11; 시 105:3, 4; 요 16:24; 엡 6:18; 빌 4:6).

28. Q 예수 앞에 나아온 문둥병자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40절).

- A (1) 먼저 그는 예수께 와서 ‘뿔이 없으셨다.’ 이것은 최선을 다한 겸손의 표시로서 예수께서 자기를 깨끗케 하여 주실 구주시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한없이 낮춘 태도이다.
- (2) 그러므로 예수의 사랑과 긍휼을 입기 원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이 문둥병자처럼 겸손하게 주께 나아가야 한다(참조, 롬 12:6; 갈 3:12; 벧전 5:5).
- (3) 또한 그는 예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하였다.
- (4) 그런데 ‘원하시면’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자신의 소원대로 문둥병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문둥병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5) 이 같은 문둥병자의 태도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요일 5:14).

29. Q 문둥병자의 간구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41, 42절)

- A (1) 예수께서는 손을 직접 환자의 몸에 대신 채 말씀으로 그를 낫게 하셨다.
- (2) 당시에 일반인들이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레 13:45, 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몸에 손을 대신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준다.

- (3) 즉 우리는 외식주의(外飾主義)를 철저히 배격(排擊)하여야 된다는 것(딤후 3:5)과 믿는 자에게는 늘 사랑의 실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약 2:12-26)이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가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신앙 생활 속에 외식주의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여야 한다.
- (5)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약 2:17)이라고 하였다.

30. **㉠**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43, 44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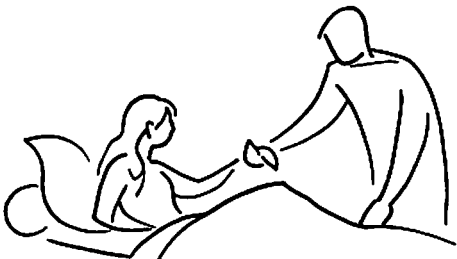
- ㉠** (1) 예수께서 그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들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엄하게 말씀 하셨다.
- (2)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그의 사역의 본질적 목적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마 5:17).
- (3)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낮추는 예수의 태도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이다(참조, 고전 10:31).

31. **㉠** 고침 받은 문둥병자는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45 절)

- ㉠** (1) 예수께서 그렇게 엄한 경계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 (2) 그 결과 예수는 전도하러 동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변두리에 머물러 계셨지만 전국에서 그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몰려들었다.
- (3) 우리는 문둥병자의 이러한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 (4) 바울이 회심(悔心)하기 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행하였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결과를 낳았던 사실을 상기하여 보자(참조, 행 9:1-4; 롬 10:1-3; 빌 3:6).
- (5) 그렇다면 이 같은 사실들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행하는 어리석은 정열은 지양(止揚)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참조, 롬 10:2).

본장의 요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증드니라' (31절).



제 2 장 예수께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비난이 시작되다

단락구분 1-12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 13-14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다 / 15-17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다 / 18-22 금식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 23-28 안식일에 관하여 가르치시다

1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돌린지라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읊새

4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 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일어나 좃으니라

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좃음이라

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라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9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20 그러나 신랑을 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1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해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운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밧 함께 한 자들이 꺾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계속되는 예수의 전도 사역과 함께 예수의 능력과 명성을 질투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유대 지도자들의 비난이 기록되어 있다(6, 7, 16, 24절).
- (2) 예수께 대한 이 비난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하여지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의논'하던 그들이(6절) 좀더 발전하여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에 대한 비난을 하고(16절), 나아가 '예수'께 직접 비난을 하게까지 된다.
- (3) 이러한 비난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는 채 율법 그 자체만을 지킬 것을 고집하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4)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의 복음 전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공작(工作)으로 해석할 수 있다(참조, 4:15; 고후 2:11; 벧전 5:8; 계 12:9).
- (5)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유사한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여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야 한다(참조, 행 3:12-26).

2. **㉠ 중풍병자가 고침 받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12절)**

- ㉠** (1) 영과 육의 질병을, 고침 받고자 하는 자는 예수께 나아와야만 한다.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지식이나 호감이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는 없다.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만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
- (2)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 가는 신앙을 예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肢體)이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참조, 행 2:42-47).
- (3) 믿는 자들의 이기심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4절).
- (4)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요 14:6).
- (5) 우리는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여야 한다(5절).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마 6:33).
- (6) 타락된 인간성의 회복은 내부로부터 또한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온 인격이 새로워질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참조, 빌 3:21).

3. **㉠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셨는가? (1절)**

- ㉠** (1)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던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와서 '집'에 계셨다.
- (2) 여기서 '집'은 아마도 1:29에 언급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생각된다.
- (3) 혹자(Meyer)는 이 '집'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집(참조, 마 4:13; 9:1; 요 2:12)으로 본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는 말씀에 위배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4) 따라서 이 '집'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 집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2절)**

- ㉠** (1) 예수께서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참조, 4:14, 33; 16:20).
- (2)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1:38). 기사(奇事)와 이적은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케 하는 부수적(附隨的)인 것에 불과하다.
- (3) 물론 은사(恩賜)란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말씀이 우리 신앙 성장의 주체가 되어야만 가장 바람직하다(딤후 3:16).

(4)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행 17:11) 순종하며 증거하는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약 1:22).

5. **㉠ 중풍병자 친구들의 행동을 살펴보라 (3, 4절).**

- ㉠** (1)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으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 앞으로 달아 내렸다.
 (2) 그들은 친구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얻게 되었다.
 (3)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4) 또 한 가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어려운 난관(難關)을 극복하였다는 사실이다.
 (5) 우리도 삶 가운데 이들과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참조, 행 14:22; 롬 4:20-24; 16:13; 딤후 1:19). 이 믿음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며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다(참조, 마 17:20; 눅 17:6).

6. **㉠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5절)**

- ㉠** (1)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小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2) 그런데 병 고침이 환자의 가장 큰 소원임을 아시는 주께서 죄를 사하여 주는 그야말로 동문 서답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환자의 병이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3) 물론 모든 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도 이 점을 명백히 하셨다(참조, 욥 4:7; 22:5-11; 눅 13:4; 요 9:2).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주께서는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채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참조, 삼상 16:7; 시 139:1-4; 빌 4:7; 딤후 6:17; 약 1:5).
 (5)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창을 열어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의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 예수께 날날이 고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7. **㉠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주의 말씀에 대한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6, 7절)**

- ㉠** (1)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출 34:1-7; 43:25) 예수를 참람(僭濫)하다고 생각하였다.
 (2)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다(시 103:12; 사 1:18; 43:25; 44:22; 렘 31:34; 미 7:19).
 (3) 그리고 당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조차도 죄를 사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한 인간으로 보았으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4)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참조, 요 1:1-4, 18; 롬 9:5; 빌 2:6).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5)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 무지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할 수 있을 만큼 위험스런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적 무지를 해소시켜 주실 분이시다(참조, 요 14:26).

8. **㉠ '곧 중심에 아시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이는 예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들까지도 깊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는 말이다(요 1:48; 2:24, 25; 히 4:13).
- (2)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속속들이 알고 계셨다는 뜻이다.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신성(神性)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 (3) 그야말로 전지(全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창조한 피조물 인간의 마음을 모르실 수가 없다.
- (4) 일찌기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洞燭)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 139:1-4).
-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一舉手一投足)을 감찰하시며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9. ⓐ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는가? (9, 10절)

- Ⓐ (1) 예수께서 그들에게 죄 사함과 병 고침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질문과 함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2)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고 보았으므로 병 고침은 곧 죄 사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병 고침도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 (3)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를 사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주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보이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참조, 사 33:24).
- (4) 이처럼 예수께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며(히 11:3)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엡 1:22). 이 사실을 우리는 확고(確固)히 믿어야 한다.

10. ⓐ '인자'에 대하여 설명하라(10절).

- Ⓐ (1) '인자'라는 명칭은 본서에 모두 14회 사용(10, 28절; 8:31, 38; 9:9, 12, 31; 10:33, 45; 13:26; 14:21, 41, 61) 되었다.
- (2) 이 명칭은 예수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10:45) 자로 특징지워 준다(참조, 9:12; 14:21, 41).
- (3)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섬김'인데 이것의 좋은 예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요 13:1-8).
- (4) 이 '섬김'은 신자들의 삶에서도 표현되어야 한다. 즉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빌 2:3).
- (5) '인자'의 명칭에서 또 한 가지 강조되는 것은 '대속'이다. 이 대속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하는 희생을 의미한다(참조, 히 9:11-14).
- (6) 오늘날 주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은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8:34; 마 16:24; 눅 14:27).

11. ⓐ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11절)

- Ⓐ (1)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
- (2) 예수의 이 말씀은 3종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즉 '일어나라'는 것과 침상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는 명령이다.
- (3) 우리는 예수의 세 가지 명령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적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세상의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執着)하거나 방탕함으로써

게으름에 빠져 잠자던 침상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인 것이다.

- (4) 이 '침상'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애착을 지니는 것들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에서 떠나거나, 이것을 붙태워 버리거나 파괴하라고 명하시지 않고 '들어라' (take)라고 하셨다.
- (5)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품성에서 벗어나 마치 천사인 척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 생활로부터 떠나거나 자연적인 애착물들을 소멸시킴으로써 예수께서 명하시지도 않는 금욕·은거·세상으로부터의 도피 등을 자랑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
- (6) '들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 성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는 말씀이다(참조, 엡 4:1; 빌 3:12-14; 벧후 1:10, 11).
- (7) 이처럼 예수의 권위에 찬 명령은 전혀 몸을 추스릴 수 없었던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의 한 인격을 새롭고 건강하게 치유하시기에 충분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명령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 귀기울이고 있는가?

12. ㉠ 예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는가? (14절)

- ㉠ (1) 예수께서는 알패오의 아들이자 세리(稅吏)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
- (2)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에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마 10:2-4). 그렇다면 이 레위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는 말인데 제자 마태와 동일 인물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 (3) 왜냐하면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세리인 자는 마태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누가복음에는 레위가 '세리'로 언급되어 있고(눅 5:27) 마 9:9에는 예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
- (4) 그런데 예수 당시의 세리들은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였으므로 착취자요 반역자로 낙인이 찍힌 자들로서 동족인 유대인의 멸시를 받았다(15, 16절; 마 9:10, 11; 11:19; 21:31, 32; 눅 5:30; 7:34; 15:1; 19:7).
- (5) 예수께서 이처럼 멸시와 천대받는 자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참조, 1:16-20; 고전 1:26)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였다(고전 1:27-29).
- (6)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다.

13. ㉠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는가? (15-18절)

- ㉠ (1) 예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 (2) 여기서 '죄인'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복종치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참조, 요 7:49).
- (3)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여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참조, 사 61:1; 눅 5:31, 32; 딤편 1:15).
- (4)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 베푸는 것을 등한시(等閑視) 여긴 잘못들을 회개하여야 한다.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면 교회는 자체의 존재 의의(存在意義)를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 ㉠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께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 (16절)

- ㉠ (1)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노골적으로 비난하였다.
- (2)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고 자기들만 의롭다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한 태도이다(눅 18:9).
- (3)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 (4)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제사보다 공흠을 더 원하시는 분이시며(마 9:13)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시 34:18; 사 61:1).
- (5)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자신을 과시하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참조, 롬 3:27, 28).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후 11:30).

15. ㉠ 유대 지도자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무엇인가? (17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고 대답하셨다.
- (2) 즉 주께서는 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영혼의 의사로 오셨으므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셨던 것이다.
- (3) 여기서 우리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스스로 의롭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4)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거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체하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칠저히 가난하고 병든 영혼,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참조, 마 5:6; 22:9, 10; 눅 19:10; 요 7:37).
- (5) 그러므로 병든 죄인이었던 우리를 치료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한다(참조, 시 136:1-26; 살전 5:18; 살후 2:13).

16. ㉠ 예수 당시의 금식에 관하여 설명하라 (18절).

- ㉠ (1) 하나님의 율법에는 해마다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도록 지정되어 있었다(참조, 레 16:29-34; 23:26-32; 민 29:7-11; 행 27:9).
- (2)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식하는 일들이 찾아지게 되었다. 즉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삿 20:26; 삼상 14:24; 삼하 1:12; 3:35)의 금식과 7일간(삼상 31:13)의 금식, 세 주 동안(단 10:3)의 금식, 40일간(출 34:2, 28; 신 9:9, 18; 왕상 19:8)의 금식,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슌 7:3-5)의 금식 그리고 심지어 네째 달과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슌 8:19)의 금식 등이다.
- (3) 본래는 국가적인 재난(災難)을 당하였거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선한 의미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금식이 실시되었으나(삼상 7:5, 6; 31:11-13; 삼하 12:16; 느 1:4; 9:1, 2; 단 6:18-20)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외식적(外飾的)인 금식이었다(참조, 눅 18:12).
- (4) 즉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 금식을 시행하지 않고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또한 자신의 경건성을 타인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불건전한 명예욕에 의해서 실시하였다.
- (5)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금식을 지적하셨다(마 6:16).
- (6)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할 때 외식적 금식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욘 2:13)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보이는 바른 금식 생활을 해야 한다(마 6:17, 18).

17. ㉠ 예수의 혼인 잔치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9, 20절)

- ㉠ (1) 예수께서 자신을 혼인 집 신랑에 비유한 것은 성경의 중요한 맥락이다(사 54:4; 62:4; 렘 31:32; 겔 16:8; 호 2:9; 마 25:1-10; 고후 11:2; 엡 5:22; 계 19:7; 21:2; 22:17).
- (2) 그런데 이러한 신랑되신 예수와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혼식은 경사스러운 행사이며 대단히 즐거운 잔치이기 때문이다.
- (3) 이 비유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신랑으로 모신 자들은 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

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따라서 신랑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기쁨의 동성함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요 15:11; 17:13; 롬 5:11; 15:13; 갈 5:22; 뱀전 1:8; 4:13; 요일 1:4; 요이 1:12).

18. ㉠ '신랑을 뺏길 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0절)

- ㉠ (1) '신랑을 뺏길 날'이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이다(참조, 마 9:15; 눅 5:35).
- (2) 이에 관계되는 예언은 본서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4:12; 7:6, 7; 11:17; 12:1; 13:8, 24, 25) 이러한 귀절들은 본서가 예수의 수난을 주제로 삼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 (3) 그런데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는 말에는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신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
- (4) 따라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깨달아 굳은 마음으로 당면(當面)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참조, 고후 1:6).

19. ㉠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1, 22절)

- ㉠ (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꿰매지 않는 이유는 만약 낡은 옷에 생베 조각을 기우면 그것이 물이나 땀에 젖었다가 다시 마를 때 줄어들어 낡은 옷의 가장 자리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 (2) 한편 당시에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았는데 새 가죽 부대는 탄력이 있으나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이 없어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로 인하여 터져 버린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꼭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만 하였다.
- (3) 여기서 '생베'와 '새 포도주'는 모두 '복음'을 상징하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을 상징한다.
- (4) 따라서 이 두 비유는 예수의 오심으로 시작된 복음이 유대교의 낡은 율법적 전통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 (5)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는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요소는 복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 (6) 더우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신 예수의 마음과 삶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해야 한다(참조, 골 3:9, 10).

20. ㉠ 예수의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3-28절)

- ㉠ (1) 첫째, 종교는 법칙과 규율로 되어 있지 않다. 종교의 진수인 사랑, 용서, 친절, 봉사를 잊고 그 대신에 의식과 규율만을 주장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 (2) 둘째, 우리는 늘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제도나 의식보다도 귀하기 때문이다. 어떤 종교적 제도나 규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다면 그런 행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 (3) 셋째,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수단이고 그 궁극적 목적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범한 다윗과 그 일행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이다(참조, 마 12:3-7).

21. ㉠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예수의 제자들이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23, 24절)

- ㉠ (1)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먹기 위하여 잘랐는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비난을 하였다.
- (2)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들의 행위는 분명

히 율법에 허용된 것이었다(신 23:25).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이유는 이것을 안식일에 행하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유대 랍비들은 안식일에 관하여 39개 조항을 제정하였는데 이 속에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금지된 조항이 있었던 것이다.
- (4)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모습에서 형식이 본질보다 우선되어 있는 잘못을 발견할 수 있다.
- (5)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딤후 3:5)가 흔히 형식을 중시 여기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 (6) 이처럼 내용과 생명을 상실해 버린 형식은 자신과 이웃에게 동시에 큰 피해를 입힌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항상 형식과 내용이 함께 요구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독선(獨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 **㉠**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25, 26 절)

- ㉠** (1) 예수께서는 다윗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말에 대하여 반박하셨다.
- (2) 사울로부터 도망친 다윗과 그 일행은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던 것이다(삼상 21:1-6).
- (3)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었지만 그는 이 일로 정죄되지 않았다.
- (4)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행위가 안식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위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출 25:23-30; 레 24:9).
- (5)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표준보다 인간의 필요와 기준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다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우선권을 두어야지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도를 이것보다 앞세워서 안 된다(3:4).

23. **㉠**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와 삼상 21:1-6을 비교해 설명하라(26 절).

- ㉠** (1) 삼상 21:1-6에 의하면 다윗에게 그 거룩한 떡을 준 제사장이 아비아달이 아닌 아히멜렉인데 본문은 예수께서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관련된 사건이 '아비아달' 때라고 밝히고 있다.
- (2) 이 두 모순에 대해 여러 설명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은 네 가지 정도로 다음과 같다.
- (3) 첫째 견해는 두 이름, 즉 아히멜렉과 아비아달 공히 부자(父子)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삼상 22:20; 삼하 8:17; 대상 18:16).
- (4) 둘째는, 히브리 본문의 혼동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이다(삼상 22:20; 대상 24:6). 세째는, 마가의 진술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이다.
- (5) 그리고 네째는, 아버지 아히멜렉과 아들 아비아달이 늙 땅에 온 다윗과 함께 거하였으며, 이들 부자가 함께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는데, 그 후 곧 아버지 아히멜렉은 살해당했고 아들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직에 올라 그 사실들을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 (6) 비록 우리가 쉽게 단언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후에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다윗에게 동조하였다는 이유로(삼상 22:15) 늙에 있던 아히멜렉 외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게 살해당하고(삼상 22:16-19) 아비아달만 용케 도주하여 다윗에게로 간 사실(삼상 22:20)이 그 좋은 증거이다.

24. **㉠** 예수께서 사람과 안식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7 절)

- ㉠** (1) 예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

나라'고 말씀하셨다.

- (2)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안식일이 그 자체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 (3) 즉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사람을 제도 속에 가두어 두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함이다.
- (4)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의를 상실해 버리게 되면 사람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위선주의자, 형식주의자로 전락하게 되며 안식일의 존속 이유가 상실되어 버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 (5)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대하며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는 일이다. 우리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를 소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갈망해야 한다.

25. ㉠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28절)

- ㉠ (1) 예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인자이신 예수께서 안식일을 통제하거나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되시는 예수께서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율법적 의식들까지 통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마 5:17).
- (4) 참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자유를 누릴 수 있다(참조, 롬 7:1-4; 갈 5:1).
- (5)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갈 5:13)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벧전 2:16).

연구자료

금식(禁食)에 대한 예수의 교훈. 예수께서는 공생애(公生涯)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다(마 4:1, 2).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금식치 않는다고 비방하였다(18절). 이에 예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금식할 것이라고 대답하셨다(19절). 그러면서 그분께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흉한 얼굴, 슬픈 얼굴을 지은 채 행하는 금식은 외식된 것이라고 책망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선 금식할 때에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고 가르치셨다(마 6:16-18).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율 2:12, 13)고 외친 요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제 3 장 열 두 제자를 동역자로 세우시다

단락구분 1-6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다 / 7-12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 13-19 12제자를 부르시다 / 20-21 예수의 친속(親屬)들의 물이해(沒理解) / 22-30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하여 답변하시다 / 31-35 예수의 집가족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 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4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5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좃으며

8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9 예수께서 무리의 예외짜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뵈곤히 함이더라

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の子이니이다 하니

12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13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16 이 열 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밋 다대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19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러라

20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 예수의 친속들이 들고 함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22 예루살렘에서 내러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3 예수께서 저희를 끌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능탈치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29 누구든지 생명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시니라 하시니

30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31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나 하시고

34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예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적개심이 날로 커지고 그 와중(渦中)에서 예수는 열 두 제자를 택하시며,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유대인들의 유전을 어기면서까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헤롯당과 바리새인들이 결탁(結託)하게 되고,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게 된다.
- (3)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의 이 같은 잘못된 비난을 지적하셨고,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열 두 제자를 택하셨으며, 예수의 가족들이 그에게 왔을 때 예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 (4) 우리는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을 이용한 사단의 방해가 격렬(激烈)하여짐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빌 1:6; 히 1:12; 13:8).
- (5)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사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다(참조, 4:15; 욥 1:12; 눅 13:16). 그러나 우리는 본장에서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한다(참조, 딤후 2:14).

2. ㉠ 안식일에 예수께서 쓴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6절)

- ㉠ (1) 첫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4절).
- (2)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이다. 마 25:14-30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돈을 나쁜 데 사용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땅에 묻어 두고 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 (3)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내에서 우리의 달란트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 (4) 둘째, 사랑으로 인한 행위는 어떤 종교적 의식보다도 우선된다(4절).
- (5) 예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의 안식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 같은 형식보다 순종과 긍휼의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다(참조, 삼상 15:22; 마 9:13).
- (6)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그런 의식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우리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참조, 7:11-13).
- (7) 셋째,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다(5, 6절).
- (8) 예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완악(頑惡)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서슴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17:34-37, 45-49).
- (9)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나 우리의 믿음이 위협을 받을 때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참조, 단 3:16-18; 행 3:12-26; 9:27-29).

3. ㉠ '마른 손'이 주는 교훈적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손이 마르는 병'은 팔이 서서히 말라 감으로써 발육이 중지되고 오그라드는 병으로 중풍병의 일종이다.
- (2) 누가가 이 손을 오른손이라고 하였고(눅 6:6), '마른'이라는 단어가 분사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선취적으로 불구가 된 것이 아니라 사고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임을 지적하여 주고 있다.

- (3) 그런데 '손'이라는 것은 인간 활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물며 오른손은 더 더욱 그러하다. 그 '손'이 활동력을 잃었다는 것은 곧 생활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 (4) 오늘날 교회 내에 이런 자들이 많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손이 마른 자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손 마른 자들이 너무도 많다. 우리는 이런 손 마른 자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약 1:22; 2:14-26).

4. **㉠** 사람들이 예수의 행동을 감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訟事)할 근거를 얻기 위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지 않는지 감시하였다.
- (2) 여기서 '사람들'이란 6절과 마 12:14 그리고 눅 6:7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 (3) 유대 랍비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 외에는 치료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께서 고칠 것인지 않을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 (4)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리기 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문제 삼거나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은 모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5. **㉠**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질문과 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4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고 질문하셨다.
- (2) 이 말씀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형식주의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로서 선을 행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에 대하여 그들은 할 말이 없게 되자 답변을 피하고 '잠잠하였다'.
- (4)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우쳐 주어도 이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지적 받는 잘못들을 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올바른 방향 제시를 지도받아야 한다.

6. **㉠** 예수께서 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근심하시고 분노하셨다.
- (2) 여기서 예수께서 근심하셨다는 말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하므로 인해 그들의 차원에서 함께 슬퍼하셨다는 말이다. 즉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끝내 멸망받게 될 일을 슬퍼하셨던 것이다. 이는 그분의 사랑에 넘치는 인간미를 보여 준다.
- (3) 한편 예수의 분노는 우리 인간의 분노와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악에 대한 분노이지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기 때문이다.
- (4)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악에 대한 공의의 분노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참조, 11:15; 시 69:21-24; 사 66:14; 요 2:15).
- (5) 우리는 어떤 경우에 노하는가?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대부분은 우리의 인격이 부족한 데서 오는 인간적인 분노이다. 따라서 이런 것은 마땅히 지양되어야만 한다. 대신에 불의에 대하여는 예수처럼 정당한 의분(義憤)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출 32:19; 삼상 11:6; 15:16-31).

7. **㉠** 예수께서는 손 마른 자를 향하여 무엇을 요청하셨는가? (5절)

- ㉠ (1) 예수께서 그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다.
 (2) 즉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로 바리새인들과 대립 상태에 있었다. 그 와중에 예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무엇이 참인가에 대한 선택적 결정을 요청하셨던 것이다.
 (3) 이처럼 예수께서는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손 마른 자에게 요청하셨던 선택적 결정을 요구하신다.
 (4) 그 손 마른 자는 예수의 요청에 대해 '순종'이라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 그의 죽어 버린 손이 생기를 얻고 정상인과 조금도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참조, 왕상 13:6).
 (5)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체면과 압력 등을 떨쳐 버리고 오직 당신의 권위와 능력만을 바라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또한 모든 생명체의 근원자로서 그에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다.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자신의 아집과 사회적인 관례 그리고 잘못된 종교관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요 21:5, 6).

8. ㉡ '헤롯당'에 대하여 설명하라(6점).

- ㉠ (1) '헤롯당' (Herodians)이란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 B. C. 3-A. D. 39)와 헤롯 왕조를 지지하던 유대인들을 말한다.
 (2) 바리새파와는 달리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 왕조의 이해와 관계된 정치적 집단이었다.
 (3) 그런데 이 당은 마태복음과 본서에만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백성들의 메시아 운동에 반대하였으며, 바리새인들과 협력하여 예수를 가이사에게 불충성한다고 모함(謀陷)한 자들이었다(참조, 12:13; 마 22:16).

9. ㉢ 바리새인들이 헤롯당과 함께 의논한 내용이 무엇인가? (6점)

- ㉠ (1)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陰謀)를 꾸몄다.
 (2)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발이 점점 심각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맨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적개심을 느끼던 그들이 제자들을 통한 간접적인 비난을 하고 예수께 직접 도전하였고, 나중에는 예수를 죽일 음모를 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3)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敵對感)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참조, 롬 1:28-31).
 (4)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말씀을 등한시하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그들처럼 반발심과 불평만 넘쳐 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참조, 시 119:105; 딤후 3:16).

10. ㉣ 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아온 동기는 무엇인가? (7, 8점)

- ㉠ (1)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
 (2) 그런데 예수께 나아온 사람들의 동기는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하다. 예수로부터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온 사람, 단순한 호기심에서 온 사람, 아니면 예수의 가르침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온 사람 등등이었을 것이다.
 (3) 그들의 동기가 이처럼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한 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셨다.
 (4)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동기도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때로는 바르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을 조롱하거나 그 잘못된 것을 헐담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자연히 그러한 잘못들을 깨닫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웃을 향한 비난과 조소의 말보다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이웃에게 필요한 진리와 권면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는 겸손과 사랑이어야 한다(참조, 빌 2:1-3).

11. **㉠** '병에 고생하는 자'의 '병'에 대하여 말하여 보라(10절).

- ㉠** (1) 이 '병'의 헬라어는 <마스티가스>인데 이것은 '징계' 혹은 '징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 그러므로 그런 '병'은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받게 되는데 이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은 죄를 뉘우치게 하고 다시는 그런 범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3) 물론 모든 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참조, 욥 4:7; 22:5-11) 여기서의 '병'은 죄와 관계된 병만을 의미한다.
- (4) 우리에게도 범죄의 결과로 인한 징계의 질병이 임할 수 있다(왕하 5:27; 대하 21:12-19). 이런 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치유가 가능하다(참조, 대하 16:12; 시 103:3; 마 4:23, 24).

12. **㉠**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였는가? (11절)

- ㉠** (1) 귀신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 (2)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천사의 의미로(욥 1:6), 혹은 왕(삼하 7:14), 이스라엘(호 11:1),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로(롬 8:17) 사용되었다.
- (3) 그러나 여기서 이 명칭은 가장 존엄한 뜻에서 유일 무이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참조, 삼하 7:14; 시 2:12; 단 3:25).
- (4)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는 데에 그치지 말고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참조, 갈 2:20).
- (5) 이처럼 신앙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삶 그 자체이다. 삶에 표현되지 못하는 신앙 지식은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참조, 약 1:22; 2:26).

13. **㉠**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경계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12절)

- ㉠** (1) 예수께서는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 것을 엄히 경계하셨다.
- (2) 예수께서 이같이 경계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힐 만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3)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를 격퇴(擊退)시키고 그 압제(壓制)로부터 해방시킬 능력을 가진 정치적 왕이었다.
- (4) 그러나 예수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었다. 예수는 사단을 멸하고(롬 16:20; 요일 3:8) 죄의 권세를 깨뜨려(계 1:5)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요 8:32) 오셨던 것이다.
- (5) 예수께서는 이들의 오해에 대하여 조금해 하시지 않으셨다. 인내하심으로 그때를 기다리셨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하였다(전 3:1-8).
- (6) 이와 같이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가장 적합한 때를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14. **㉠**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하신 일은 무엇인가? (13절)

- ㉠** (1)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셨다.'
- (2) 산에 오르신 목적은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눅 6:12). 왜냐하면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3) 이처럼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요한 영적 교훈을 준다. 즉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⁶

(4)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 보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이다(참조, 출 14:13-16; 33:12, 13; 욥 42:4). 이 같은 행위는 곧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잠 3:5, 6).

15. ㉠ 예수께서 어떤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13절)

㉠ (1)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원하는 자' 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2) 여기에 그의 주권적 의지가 강렬하게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제자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자격과 재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의 의지로 결정되었다(참조, 롬 9:16).

(3) 그래서 주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 15:16)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4) 이러한 사실에 견주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어떤 특별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참조, 엡 1:4-6).

16. ㉡ '열 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4절)

㉡ (1) '열 둘'이라는 수자가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열 둘이라는 수자는 준비 중인 새 이스라엘(the new Israel)을 가리키는 것으로 완전함과 보편 타당성을 지닌 수자이다.

(2) 야곱의 아들도 열 둘이었고, 엘림(Eilim)의 샘물도 열 둘이었으며, 아론의 흉배에 있는 보석과 젓상에 놓는 떡도 열 둘이었다. 개시록에 나오는 여자의 면류관에 붙은 별도 열 둘이고, 새 예루살렘의 주초도 열 둘이며, 하늘나라의 문도 열 둘이다.

(3)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가 구약 교회의 시작이었다면 열 두 사도는 신약 교회의 시작이며, 이 수자를 합한 24 장로들은 영광 가운데 있는 전체 교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4)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볼 때 '열 둘'이라는 수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 되는 새 이스라엘의 상징임이 분명하다(참조, 마 19:28; 눅 22:30).

17. ㉢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14, 15절)

㉢ (1)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교제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7, 13; 4:10, 11, 34).

(2) 둘째, '보내어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정한 연단이 끝난 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참조, 요일 1:1, 2).

(3) 실제로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고(마 10:5, 6), 다음에는 모든 족속에게로(마 28:19), 온 천하 만민에게로(16:15) 보내심을 받았다(참조, 행 1:8).

(4) 셋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마태는 여기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마 10:8) 라는 귀절을 추가하여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죄인들을 구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6) 우리도 모두 이 일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철저히 훈련시켜야 한다(엡 6:10-18; 딤후 3:14-17).

18. ㉣ 예수께서 시몬(Simon)에게 지어 준 이름은 무엇인가? (16절)

㉣ (1)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예수께서는 '베드로' 라는 이름을 주셨다.

- (2) 이 ‘베드로’는 다른 말로 ‘게바’라고 하는데(요1:42) 그 뜻은 ‘반석’이다.
- (3) 이 새 이름은 그 이름을 받을 당시의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장차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모습을 말하여 주는 것이었다.
- (4) 이처럼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더하여 주신 것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 나아가 더 먼 장래까지도 내다보시는 사랑의 행위였다.
- (5)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는 우리를 ‘성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실(信實)한 자’라고 부른 것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장래에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말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참조, 롬 1:7; 엡 1:1)

19. ㉠ 12명의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나? (16-19절)

- ㉠ (1) 택함을 받은 12제자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4명은 어부였고, 한 명은 사람의 미움을 받던 세리이며 또 한 사람은 과격한 독립 운동을 벌이던 열심 당원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다.
- (2) 분명한 것은 이들이 모두 평범한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이다. 학식도 별로 없었고 가난하며 성격적인 결함이 많은 자들이었다.
- (3)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門閥)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말했던 것이다(고전 1:26).
- (4)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셨던 것이다.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전 1:27-29).
- (5) 따라서 우리는 교회 내의 지식 없고 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일은 인간의 지식과 인격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20. ㉠ 예수를 그의 친속(親屬)들이 붙들러 온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 ㉠ (1) 예수의 친속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붙들러 왔다.
- (2)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고 또 믿지 않았다(요 7:5).
- (3)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배신을 당할 때이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위로를 받아야 할 가족들로부터 조소(嘲笑)와 비난을 받고 자신의 사역이 방해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 (4) 이런 경우는 비단 예수에게서만 아니라 불신 가정이나 사회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서도 흔하게 발견된다(참조, 마 10:24, 35-37).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원수로부터 아무 이유 없는 잔인한 방해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담대히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나가야 한다(참조, 마 5:10-12; 롬 8:36, 37; 고전 4:12; 딤후 3:12).

21. ㉠ 예수의 권능에 대한 서기관들의 비난은 무엇인가? (22절)

- ㉠ (1)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을 지켰으며 또 귀신의 왕을 한 입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맹렬(猛烈)하게 비난하였다.
- (2) ‘바알세불’은 고대 수리아인들이 숭배하던 신의 이름으로 그 뜻은 ‘집주인’ 또는 ‘포리들의 왕’(왕하 1:2)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단의 칭호로 사용되었다.
- (3) 그리고 ‘바알세불을 지켰다’는 말은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또는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다는 의미이다.
- (4)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시기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마 27:18) 이

무리 하나님의 기사(奇事)와 이적(異蹟)을 보아도 믿지 못하게 되어 있다(참조, 눅 16:27-31).

22. ㉠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의 논박은 무엇인가? (23-27절)

- ㉠ (1)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하여 비유를 사용하여 논박하셨다.
 (2) 즉 집이나 나라가 만일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 나누었다면 망하게 되는 것처럼 사단도 스스로 자기를 거스려 싸우면 망하게 된다는 것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약탈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3) 이 비유로부터 두 가지 분명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예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둘째, 예수의 권능은 사단보다 더 강하여 사단의 능력을 파괴하고 이긴다는 사실이다.
 (4)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산다면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권세도 깨뜨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참조, 갈 5:16, 17, 22, 25; 빌 4:13; 약 4:7).

23. ㉠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어떠한 죄를 말하는가? (28-30절)

- ㉠ (1) 예수께서 '성령을 훼방(毀謗)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2)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말하는데 이는 죄가 점차적으로 자란 결과이다.
 (3) 즉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아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엡 4:30)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 되며(행 7:51), 이것이 지속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살전 5:19).
 (4) 더우기 성령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 많이 활동하시는데 만약 인간을 구원하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여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가 있다면 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 오늘 복음의 빛을 가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교주들은 분명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예수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사단의 일로 돌리는 것도 '성령을 훼방하는 죄'라고 가르치셨다(마 12:31, 32).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무시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
 (6) 따라서 '성령을 훼방하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마 12:31, 32; 행 5:1-11; 7:51; 갈 6:7; 엡 4:30-32; 살전 5:19; 요일 1:9).

24. ㉠ 예수의 참형제요 자매요 모친은 누구인가? (31-35절)

- ㉠ (1) 예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다.
 (2) '누구든지'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노소나 빈부나 옥에 갇힌 자나 자유로운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것에도 관계 없이 모두를 포함한다.
 (3)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한다(마 7:21; 눅 11:28; 유 1:3).
 (4) 여기서 예수께서 강조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과도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벧전 3:1).

본장의 요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35절).

제 4 장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치시다

단락구분 1-9 씨 뿌리는 자의 비유 / 10-12 비유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 13-20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설명하시다 / 21-25 등불의 비유 / 26-29 하나님 나라를 곡식의 성장 과정에 비유하시다 / 30-32 겨자씨의 비유 / 33-34 비유로만 가르치시다 / 35-41 풍랑을 잔잔케 하시다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2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3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 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12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들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13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때أت는 것이요

16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19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20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21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 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나

22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25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떼앗기리라

26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30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 심길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와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3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제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 하시더라

35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제신 그 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 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개를 베시고 주무 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

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 예수께서 깨어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더 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A) 본장에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먼저 셋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계속하여 등불의 비유, 씨가 자라서 열매 를 맺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 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3) 그런데 본서가 '미래적'이며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과는 달리, 본장의 비유들은 예외적으로 '현세적'이며 '정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 여 강조하고 있다.

(4) 한편 예수께서 이처럼 비유로만 가르치신 이유는 천국의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이다.

(5) 이와 같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 를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지만(눅 15:3), 불신자들에게는 진리를 모호(模糊) 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4:11, 12).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총이다(11 절).

2. ㉡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는가? (1절)

㉡ (A) (1) 예수께서는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즉 주께서는 당신이 강의장으로 자주 사용하셨던 갈릴리 해변에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다.

(2) 물론 예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종 회당과 성전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 셧지만(참조, 1:21; 6:2; 12:35; 요 7:14) 당신의 주(主) 강의장은 무리들이 있는 곳, 다 시 말하면 어느 장소에도 국한되지 않으시고 가르치셨다(참조, 마 5:1, 2).

(3) 이것은 오늘 교회 교육을 맡은 자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교육받는 자의 필요나 갈망과는 상관없이 1주일에 단 1, 2회 정도 교회 건물 안에서의 교육으로 한 영 혼의 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지나친 자만이 아닐까!

(4) 교회 교육을 맡은 자들은 장소나 프로그램에만 얽매인 교육보다는 사람이 있는 곳, 성 장을 필요로 하는 인격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 르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마 28:18-20).

3. ㉢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 10-12절)

㉢ (A) (1) 본장에서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 라의 비밀이 택한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2)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로서 하나 님의 자녀가 아닌 외인들은 깨달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셨다.

(3) 여기서 '비밀'이란 헬라어로 <토 무스테리온>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진리를 일컫는다. 그리고 '외인'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거

부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추종자들을 말한다(참조, 마 13:13, 15).

- (4)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 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요 14:17)이 함께 하시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 (5) 오늘날에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결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가? (참조, 잠 22:21; 사 6:9, 10; 단 9:13)

4. **㉠**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20절)

- ㉠** (1) 복음의 씨앗이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 그리고 옥토 같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지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배의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가르쳐 준다.
- (2) 이것은 복음 전도가 그만큼 어렵지만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는 위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즉 이 비유는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 중 회당에서 쫓겨 나시고, 들에 맞을 뻔하시며,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는 일들을 친히 목격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다.
- (4)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와 같이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힘을 얻자(참조, 마 9:37; 눅 10:2; 요 4:35).

5. **㉠**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3절)

- ㉠** (1) ‘씨’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눅 8:11), ‘천국 말씀’(마 13:19)을 상징한다.
- (2)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암시한다.
- (3)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두 ‘씨 뿌리는 자’들이다(참조, 16:15; 마 28:19, 20; 롬 10:14; 렘 4:11; 벧전 3:15).
- (4) 따라서 우리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는 주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주께서는 말씀하신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6. **㉠**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는가? (4, 15절)

- ㉠** (1)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 (2) ‘길가’란 오랫동안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만을 고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가리킨다.
- (3) 그들은 유대의 전통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길가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 (4) 왜냐하면 길은 사람들의 오가는 발길에 다져져서 단단하게 된 곳이므로 씨가 여기에 떨어지면 땅 표면에 그대로 남아 새들의 먹이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단하게 굳은 불신자의 마음을 ‘길가’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 (5) 이처럼 마음이 굳어 버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언제나 부패하고 악한 일만을 하게 된다(참조, 시 14:1; 사 29:15; 골 1:21; 히 4:2).

7. **㉠** ‘돌밭’에 뿌리워진 씨는 어떻게 되었는가? (5, 6, 16, 17절)

- ㉠** (1) 돌밭은 흙이 얇으므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으므로 곧 말라 죽는다.

- (2) 이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만났을 때에는 곧 넘어지는 것을 말한다.
- (3) 여기서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과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의 위험성을 발견하게 된다. 고난이라는 것은 참된 신자들을 더욱더 성숙케 하지만(참조, 대하 33:12; 롬 5:3, 4; 살전 1:6; 3:3; 약 5:13) 돌발 같은 신자들에게는 걸립돌만 될 뿐이다.
- (4)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 살 때 어떠한 고난도 이겨 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행 17:11; 딤후 3:14-17; 벰전 1:10).

8. **㉠ '가시밭'에 뿌리워진 씨는 어떻게 되었는가? (7, 18, 19절)**

- ㉠** (1) 가시밭에 뿌리워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지만 가시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 (2) 가시밭은 일상적인 세상사에 집착된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財利)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고 하셨다.
- (3) 이런 부류의 신자들은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므로 늘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이원적인 삶을 산다.
- (4) 혹 우리는 이런 신자들이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 그리고 욕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참조, 롬 6:12-14; 딤후 4:10).

9. **㉡ '좋은 땅'에 뿌리워진 씨는 어떻게 되었는가? (8, 20절)**

- ㉡** (1) 좋은 땅에 뿌리워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 (2) 이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여 좋은 결실을 얻는 자의 마음을 가리킨다.
- (3) 진정한 신자의 증거는 그의 영적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분명히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참조, 시 1:3; 92:14; 마 7:16-20; 12:33-35; 갈 5:22; 엡 5:9; 약 3:17, 18).
- (4)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요 15:5).

10. **㉢ 좋은 땅에서 맺은 '결실'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8, 20절)**

- ㉢** (1) 똑같은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는 데는 정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 (2) 그래서 예수께서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는 것보다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점에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계신다.
- (3) 그 좋은 예로 마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눅 19장의 '므나 비유'를 들 수 있다. 즉 주께서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를 똑같이 칭찬하셨고, 열 므나 남긴 자와 다섯 므나 남긴 자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마 25:14-30; 눅 19:12-26).
- (4) 이처럼 주께서는 결과에 양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과를 동일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보다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1. **㉣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9절)**

- ㉣** (1) 본귀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결론짓는 말로서 엄한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경고의 귀절은 공판 복음서만 6회 사용되었다(9, 23절; 마 11:15; 13:9, 43; 눅 14:35).
- (2) 예수의 이같이 엄한 경고의 말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

- (3) 첫째, 복음은 그만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며(엡 1:13; 살후 2:13, 14),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골 1:23).
- (4) 둘째,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말하였다(롬 10:17).
- (5) 셋째,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자들이 주의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준다.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물을 집중시키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 (6) 오늘날의 사람들도 대부분 세상의 바쁜 일들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하여 있다. 마음속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하여 주의 복음이 들어갈 조그마한 틈조차 없다. 이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귀를 크게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수용할 수 있다.

12. **㉠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쉽게 말하시지 않고 외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1, 12절)**

- ㉠** (1) 예수께서는 이것에 대해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셨다.
- (2) 즉 예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회개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아서지 않고 헛된 교만에 빠져 있던 외인(예수의 12제자 및 그를 따라다니는 자 이외의 완악한 유대인들)들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복음을 거부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극열하고 단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롬 1:18-23).
- (4)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회개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회개 지나가기 전에 자신의 부패한 삶에서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비밀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3. **㉠ '등불의 비유'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21-25절)**

- ㉠** (1) 복음의 빛을 소유한 자들은 그 빛을 주위에 비추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 (2) 즉 복음의 진리는 자신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자들에게 비추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 (3)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4)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을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출 24:7; 골 3:16; 약 1:22).

14. **㉠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1절)**

- ㉠** (1) '등불'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 (2) 왜 예수님을 '등불'에 비유했느냐 하면 '빛'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묘사하기 때문이다(참조, 눅 2:32; 요 1:4-9; 고후 4:6; 계 21:23, 24).
- (3) 이 진리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눅 24:31), 우리가 바른길을 걷게 된다.
- (4) 그러므로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거하시게 하려면 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딤후 2:22).

15. **㉠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2절)**

- ㉠** (1) 본문은 다소 난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 (2) 그러나 눅 8:17에 근거하여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여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비밀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 (3)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실도 숨길 수가 없으며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비밀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전 12:14; 마 12:36; 13:43; 16:27; 눅 8:17; 12:2; 롬 2:6; 골 3:3, 4; 계 2:23; 20:12, 13).
- (4)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거나 망각할 때가 종종 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낚을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사실을 생각해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은 1:1-3).
- (5) 인간은 자신의 악한 생각, 계획, 말 그리고 행동을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백일하에 드러내신다(은 1:4-15).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순간순간 저지르는 잘못들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실한 삶의 주인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 139편).

16. ㉠ 우리의 '헤아림'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무엇인가? (24절)

- ㉠ (1) 예수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 (2)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보상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판단하고 측량하고 가치를 부여한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참조, TEB; 롬 2:1, 2).
- (3) 이 법칙은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다. 예를 들어 사울은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삼상 15:23, 26).
- (4) 또 사도 바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였고(고후 9:6),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였다(갈 6:7).
- (5) 오늘날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선을 행하고 의로운 것들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갈 6:8-10).

17. ㉠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5절)

- ㉠ (1)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와 므나 비유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과 같다(마 25:29; 눅 19:26).
- (2) 그것은 우리가 부여받은 달란트 곧 재능의 활용에 관계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유익하게 활용하지 않고 썩혀 두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 (3) 달란트를 묻어 두는 행위는 그것을 맡겨 주신 분의 신임(信任)에 대한 배반이요, 그분을 노엽게 하는 원인이 된다(마 25:26, 27; 눅 19:22, 23).
- (4)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묻어 두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은 '선물'이요 '은사'이므로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가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야겠다(참조, 엡 4:7-12).

18. ㉠ '씨가 자라는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6-29절)

- ㉠ (1)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둘은 구원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어느 것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후자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전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즉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거둬나지 않는 한 회개할 수 없다(요3:3,5).
- (3) 이 관점에서 볼 때 씨 뿌리는 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알맞은 장소에 씨를 뿌리는 일 뿐이다. 그는 결코 씨를 자라게 할 수 없다.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고전3:6).
- (4) 따라서 본 비유는 우리의 영적 성숙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준다(참조, 살전5:23).

19. ㉠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비유되었는가? (26, 27 절)

- ㉠ (1)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 (2)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 (3) 즉 농부가 씨를 땅에 흩어 뿌리고 그것을 돌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은 놀랍다는 것이다.
- (4)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다. 그는 씨앗을 싹트게 하고 성장시킬 수 없으므로 그것을 창조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 (5)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요 보다 잘 자라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이다. 전도나 양육에 있어서 결코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참조, 고전3:6).

20. ㉠ 씨앗의 성장 과정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8 절)

- ㉠ (1) 씨앗은 생명이 있으므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 (2) 본절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땅 속에 있는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다.
- (3)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자라듯 성장하고 있으며, 그 성장의 근원이 말씀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 (4)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씨앗이 되어 천국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점차 확장시켜 나간다(참조, 갈5:22, 23; 딤후3:14-17).
- (5)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자라 가도록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마13:25-30; 24:14).

21. ㉠ '추수 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9 절)

- ㉠ (1) '추수 때'는 욕3:13과 계14:14-1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
- (2)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낫을 들어 알곡은 단으로 묶어 고간(庫間)에 넣고 썩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신다(참조, 말4:1; 마3:12; 13:30).
- (3) 본절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주의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찬연(燦然)함 가운데 드러나리라는 것이다(참조, 마13:30, 38-43; 계11:15; 17:14).
- (4)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곧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약5:7,8).

22. ㉠ '겨자씨의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31, 32 절)

- ㉠ (1) 이 비유는 땅에 심어진 씨를 소재로 한 비유 가운데 세번째 비유이자 마지막 비유인데, 이것은 씨 뿌릴 때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성장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2) 겨자씨 비유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게 시작 된다고 할지라도 계속 확장되어 후에는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다.
- (3) 창 12:2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사실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이 축복을 받기 마련이다(갈 3:6-9).
- (4) 이 말씀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8:7).
- (5) 여기서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크기를 보고 결과를 과소 평가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 (참조, 계 22:12).

23. ㉠ 예수께서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의도는 무엇인가? (31, 32 절)

- ㉠ (1)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극히 미미한 데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그 나라의 풍성한 종국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 (2) 즉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놀라운 성장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앗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 (3) 실제로 오늘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기독교의 시작이 극소수의 무명인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하여 준다.
- (4) 예수의 이 비유는 현대 교회의 수자 지향주의에 대한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 성도들의 수가 곧 그 교회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겨자씨만큼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더우기 외모가 초라한 성도라 해서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24. ㉠ 예수께서 무리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셨는가? (33, 34 절)

- ㉠ (1)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들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다(33 절).
- (2) 예수께서는 무리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생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나 그들의 수준에 알맞는 것들을 비유로 택하여 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셨다. 즉 비유란 그것을 듣는 자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영적인 지각력을 일깨워 주는 은혜로운 진리 전달 수단이었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좀더 잘 먹이시려고 애쓰신 것은 예수께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 (4) 우리는 이 예수의 사랑을 풍성히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5. ㉠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5-41 절)

- ㉠ (1) 첫째, 우리의 인생 항로는 언제나 험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 길(창 47:9)에 비유하였고, 안개(약 4:14)와 같다고 하였으며, 환난이 반드시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후 4:17).
- (2) 둘째, 이 험난한 인생의 풍랑 속을 무사히 항해하려면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 속에

모셔 들여야 한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들도 인생의 풍량을 이겨 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뿐이다(참조, 요 14:6).

- (3) 세째,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즉 인간의 모든 노력이 실패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신다는 말이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참조, 사 38:1-8).
- (4) 네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쉽지 않다. 그리스도가 타신 배를 따라던 배들은 같은 폭풍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하여 준다(참조, 마 16:24).
- (5) 우리들에게는 싸워야 할 육체가 있고, 부딪쳐야 할 악한 세상이 있다. 성경이 우리를 예수의 군사로 표현한 것은 이 때문이다(딤후 2:3).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엡 6:11, 12).

26. ㉠ 예수와 그 제자들이 풍량을 만난 때는 언제인가? (35절)

- ㉠ (1)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바로 ‘그날 저물 때’였다.
- (2) 왜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로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 수 없지만 추측컨대 예수께서 단지 한동안 무리와 떨어져 휴식을 취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
- (3) 그러나 온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기에 애쓰심으로 육신이 대단히 피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시고 또다시 풍량을 잠잠케 하는 예수의 계속적인 활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준다.
- (4) 즉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만한 참된 휴식이 없다는 교훈을 준다(참조, 빌 3:12-14).

27. ㉠ 예수께서 타신 ‘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36절)

- ㉠ (1) 예수님이 타신 ‘배’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참조, 창 7:1-23).
- (2) 그 배의 구성원이 예수와 열 두 제자들이었다는 것과, 교회의 구성원 역시 머리되시는 예수와(엡 4:12)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하여 준다.
- (3) 또한 교회 내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과 그 배 안에 예수님은 30년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공통점도 좋은 증거가 된다.
- (4) 이 배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피할 처소가 되며 종국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준다(참조, 요 10:28; 17:12; 뱀전 1:5).

28. ㉠ ‘갈릴리 바다’의 자연 환경에 대하여 설명하라(37절).

- ㉠ (1) 갈릴리 바다는 요단 계곡의 북쪽에 위치하여 있다. 길이는 약 21km이고 폭은 12km이다. 수면이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낮다.
- (2) 이 바다는 언덕에 둘러싸인 저지(低地)로서 특히 동쪽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다.
- (3) 이런 지형으로 인하여 차거운 기류가 헤르몬 산(2,760m)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불어 내려 가파른 언덕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날 때 바다 위를 땀도는 가열된 공기와 충돌하여 갑작스런 광풍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다.
- (4) 여기서 일어나는 폭풍(헬, 라일랄스)은 언제나 갑자기 발생하므로 아무리 노련한 어부들도 거의 이것을 예견할 수 없다고 한다.

29. ㉠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가? (37절)

- ㉠ (1) 큰 광풍이 바다에서 일어나 그들이 탄 배가 거의 가라앉을 위험에 직면하였다.
- (2) 즉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풍량이 그들에게 밀어닥쳤던 것이다.
- (3) 예수께서 배에 타고 계셨는데도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던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 타신 배를 따르는 몇 척의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는데’ 그 배들도 틀림없이 이와 같은 조난의 위험을 당했을 것이다.

(4) 오늘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참조, 롬 5:3, 4; 고후 1:6; 살전 1:6; 3:3).

30. Q 폭풍 중에서도 주무시는 예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는가? (38절)

- A** (1) 예수께서 그렇게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주무신 것은 그만큼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즉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마 4:2; 요 4:6, 7; 11:35).
- (2) 그런데 예수께서 주무시는 동안 하나님이신 당신께서는 이미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무신 이유는 당신의 제자들을 시험하여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 (3)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운 풍랑을 당할 때, 주께서는 주무시듯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같이 보일 때가 있다(참조, 사 45:15).
- (4) 그러나 주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 121:3, 4).
- (5) 그러므로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탄 기울이지 않는 것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참조, 아 5:2; 함 2:3).

31. Q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면서 한 말은 무엇인가? (38절)

- A** (1) 그들은 예수를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였다.
- (2) 이는 주께 대한 간청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는 주께 대한 비난과 책망의 말이다.
- (3) 그 동안 주께서는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아끼셨으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다급해지자 주를 원망하고 비난한 것은 큰 잘못이다.
- (4) 우리의 일상사에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때로는 애매하게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도 있게 마련이다(벧전 2:19, 20).
- (5)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살전 5:18). 감사는 분명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32. Q 제자들의 질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8절)

- A** (1) 첫째, 위험에 처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 약한 증거이다.
- (2) 신앙이 약한 자들은 위험에 처하면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불안한 염려를 하며, 곤경에 처하였을 때 인내심을 갖지 못한다(사 28:16). 따라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 (3) 둘째,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께 부르짖어야 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주에게만 있기 때문이다(참조, 시 99:6).
- (4) 세째, 온전하지는 않아도 '겨짜씨' 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짜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

33. Q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39절)

- A** (1) 예수께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꾸짖으셨다.

- (2) 이 꾸밈은 예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주는 말씀이다.
- (3)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고난의 폭풍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는 말씀 한 마디로 이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 57:19)는 말씀으로 두려움의 풍랑을 잠재우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 (4)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여야 될 사실은 자연 만물도 주의 말씀 한 마디에 즉각 순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더 더욱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참조, 삼상 15:22; 롬 6:17; 갈 5:7).

34.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책망을 하셨는가? (40절)

- ㉠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을 하셨다.
- (2)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예수의 지적은 그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었다'는 것을 말한다(마 8:26).
- (3) 예수의 이 같은 책망 가운데는 그들의 신앙 부족이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 (4)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인간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경험은 성화를 이루어 가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요셉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고(창 50:19-21), 다윗도 그러하였으며(삼하 23:5; 시 116편),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전 15:9, 10; 빌 2:7-14).
- (5)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참조, 롬 1:17; 고전 16:13).

35. ㉠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41절)

- ㉠ (1) 예수의 말씀 한 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였다.
- (2) 여기서의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 대한 신뢰와 경외의 두려움이었다(참조, 마 8:27; 눅 8:25).
- (3) 예수께서 자연 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복종시키시는 것을 본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이 이전에 상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 (4) 현대는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아간다. 그만큼 타락하였다는 증거이다. 이런 가운데서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진실로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12:24; 시 33:8; 잠 1:7).

36. ㉠ '저가 낚이에' 라는 제자들의 말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가? (41절)

- ㉠ (1) '저가 낚이에' 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들이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즉 그들은 예수께서 자연 만물까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심을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 (3) 실제로 그들은 예수의 공생애 말기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알게 되었다(마 16:16).
- (4) 뿐만 아니라 그 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야 그와 같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참조, 행 2:22-36).
- (5) 이와 같이 신앙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사실과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회 내에 있는 초신자들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바로 성장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며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야 하겠다(참조, 고전 3:1, 2 ;엡 6:4;살전 2:7-12).

화보자료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14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헬라이어 복음서에 나오는 삽화이다. 성난 물결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39절)라고 명하고 계시는 예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꺾이나 대조적이다.



본장에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광풍(狂風)을 만나 배가 전복될 위험에 직면하였던 이야기가 나온다(35-41절). 이때 예수께서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께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예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셨으니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다. 이러한 예수의 능력은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 준 것이다(참조, 롬 11:36).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한층 더 강건케 해준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상과 같은 기사(記事)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다.

제 5 장 병자들에게 공활을 베푸신 예수

단락구분 1-20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들린 자를 고치시다 / 21-24 회당장 아이로가 죽을 직전에 있는 딸을 위하여 예수께 간구하다 / 25-34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시다 / 35-43 아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다

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다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땄 수 없게 되었으니

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6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7 큰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9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 자기 몸을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게 될

14 처된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들렸던 자 곧 군대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 이에 귀신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며

17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숙에게 고하라 하시대

20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21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 회당장 중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3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26 많은 의원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들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33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

할지이다

35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하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움을 허치 아니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흰화합과 사람들이 운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 들어가서 저회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흰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

니라 잔다 하시니

40 저회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회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딸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 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회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1. ㉠ 본장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라.

- ㉠ (1) 본장에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세 가지 기록되어 있다.
- (2) 첫째,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오신 예수께서 군대 귀신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귀신들을 돼지 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심으로 돼지 떼가 몰사한 사건과 이것을 본 거라사 주민들이 예수를 배척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3) 둘째, 딸을 살려 달라는 아이로의 간청을 듣고 아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4) 셋째, 혈루병자로 인하여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아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리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다.
- (5) 이러한 사건들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권능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이심을 발견할 수 있다.
- (6) 따라서 본장은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엡 5:1, 2).

2. ㉠ '거라사인의 지방'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라(1절).

- ㉠ (1) 예수께서 군대 귀신들린 자를 고치신 '거라사 지방'을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 (2) 왜냐하면 실제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으로 32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장의 '거라사 지방'을 '가다라 지방'으로 보고 있다.
- (3) 그 이유로는 첫째, 헬라어 원어 성경에 이곳이 <가다렌>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 8:28, 눅 8:26에도 이 지명이 <가다렌>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거라사(Gerasa), 거르사(Gersa) 또는 케르사(Kersa)로 읽혀진다.
- (4) 둘째, 가다라 지방에는 실제로 바다로 향한 가파른 언덕이 있고 옛 무덤들이 있다.
- (5) 따라서 이 지방을 '가다라 지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 군대 귀신들린 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2-5절)

- ㉠ (1) 첫째,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였다(2, 3절). 이 무덤들은 대체로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친 터'에 자리잡고 있었다(욥 3:14). 더구나 무덤 가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라는 보편적인 믿음으로 보건대 귀신들린 자가 거주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장소였다.
- (2) 둘째, 아무도 그를 제어(制御)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다(3, 4절).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귀신들린 자를 제어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

할 뿐이다.

- (3) 세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해(自害)하였다. 이런 잔학한 행위는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었다.
- (4) 이 같은 것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며 절망적인지를 잘 보여 준다.
- (5)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케 하며(고후 11:3) 멸망으로 인도한다(마 25:41). 마귀는 자기에게 포로가 된 자들에게 언제나 잔인한 주인의 행세를 하며 폭군으로 군림한다.
- (6)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바로 알고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가 우리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고후 2:11; 약 4:7; 뱀전 5:9; 계 12:10, 11).
- (7) 마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마 4장 ④3을 참조하라.

4. ㉠ 예수를 발견한 귀신들린 자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6, 7절)

- ㉠ (1) 귀신들린 자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
- (2) 여기서 그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그는 멀리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귀신은 이미 예수의 권위를 알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 (3) 또한 그는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예수께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요일 3:8)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참조, 요일 2:19).
- (4) 그리고 그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부르짖었다. 이것은 히브리 표현법으로(삿 11:12; 왕상 17:18; 대하 35:21) ‘나를 가만히 두어라’는 의미이다.
- (5) 그리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는 나를 명하여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이다. 최후의 심판 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귀신은 ‘때가 이르기 전인데도’ 예수께서 그를 해치고 ‘무저갱’으로 보낼까 봐 두려워하여 이 말을 하였다.
- (6) 이처럼 마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였다(참조, 슄 3:1).
- (7)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참조, 창 3:1-13; 삼상 15:16-23).

5. ㉠ 이름을 묻는 예수의 질문에 대하여 귀신은 어떠한 대답을 하였는가? (9절)

- ㉠ (1) 귀신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 (2) 여기서 ‘군대’(헬, 레기온)란 로마 제국의 군대 용어로 ‘군단’을 뜻하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1개 군단은 5천내지 6천 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3) 이 사실에 근거하여 군대 귀신의 수가 6천 정도였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로서 ‘대단히 많은 수자’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참조, 마 12:45; 눅 8:2).
- (4) 따라서 이 대답은 귀신들린 자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 준다. 그는 하나의 귀신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6. ㉠ 군대 귀신이 예수께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10절)

- ㉠ (1) 군대 귀신은 예수께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요구하였다.
- (2) 눅 8:31을 보면 본문의 요구와는 달리 자신들을 무저갱(無底坑)으로 보내지 말기를 간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계 20:1-3).
- (3) 이 ‘무저갱’은 세상 끝 날에 마귀가 갇힐 곳으로 그때까지는 마귀가 자유롭게 자신의

활동을 하기 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간구를 하였던 것이다.

(4)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마귀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3:27; 창 3:15; 마 4:1-11; 눅 10:18).

(5) 그러므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벧전 5:8)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마귀의 계획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참조, 고후 2:11; 약 4:7; 벧전 5:9; 요일 2:13; 계 12:10, 11).

7. **Q** 이 지역에 '돼지의 큰 떼'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게 하는가? (11절)

A (1) B. C. 60여 년에 시리아를 정복한 로마 군대는 즉시 이곳을 부분적으로 식민지화하였다. 로마에 의하여 10여 개의 도시가 재건되어 '데가볼리'라는 이름을 얻은 곳도 이 지역이었다.

(2) 그래서 이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아마도 이들이 돼지들을 길렀을 것이다.

(3)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 가까이하지 않으며 먹지도 않았는데 이는 율법에 돼지고기 먹는 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레 11:7; 신 14:8).

8. **Q**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여 달라는 간청에 대하여 예수는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 (12, 13절)

A (1)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여 달라는 간청을 들어주셨다.

(2) 즉 귀신들은 자신들이 귀신들린 자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8절)을 거역할 수 없음을 알고 근처에 있던 돼지들에게 들어가겠다는 요구를 하였고 이것을 주께서는 허락하셨던 것이다.

(3) 그 결과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갔고 그 때문에 2천 마리의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였다.

(4) 그러면 왜 이것을 예수께서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없다. 성경이 이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다만 추측컨대 예수께서는 사람들보다 그 귀신들린 자에게 귀신들의 목적이 돼지 떼를 몰살시킨 것과 같이 사람들 멸망케 하는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6)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다(8:35, 36).

(7)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이다. 혹 우리의 한 마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어 실족케 하지나 않는지 돌아보아 말과 행동에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참조, 고전 8:12, 13).

9. **Q** 돼지 떼 몰사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14-17절)

A (1) 돼지 떼가 몰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은 군대 귀신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곁에 앉은 것을 보았다.

(2) 그는 더 이상 미친 사람같이 행동하거나 소리지르거나 들로 자기 몸을 해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3)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권능의 크심을 깨닫고는 놀랐으며 두려워하게 되었다(참조, 눅 5:8; 8:25).

(4)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찬양하지 않고 그들의 물질적인 손실을 슬퍼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관심은 귀신들렸던 불쌍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손실에 있었다.

(5)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종용(懲飭)하였던 것이다.

(6) 만약 우리가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라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어떤 물질적인 손실도 감수(甘受)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참조, 시 52:7; 마 6:24; 고후 8:2; 요일 3:17).

10. ㉠ '귀신들렸던 자'가 떠나려 하시는 예수께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18절)

㉠ (1) 귀신들렸던 자는 예수와 함께 있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였다.

(2) 이는 예수께서 자신을 고쳐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으로 자기의 은인이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봉사의 태도인 것이다.

(3) 그의 이 같은 태도는 주의 은혜를 크게 입은 성도들이 지녀야 할 바른 태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모르는 오늘날의 사람들과는 극히 대조적이다(참조, 말 1:2, 3).

(4)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생활 속에서 넘쳐 나고 있는가? (참조, 요 1:16; 고후 9:8; 엡 2:4, 5; 계 2:4)

11. ㉠ 귀신들렸던 자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으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9절)

㉠ (1) 예수께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친숙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셨다.

(2) 예수의 이 말씀에는 복음 전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첫째, 진정한 복음 증거자는 생활 속에서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만이 될 수 있다. 체험은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확신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참조, 요 일 1:1-3).

(4) 다메섹 도상(道上)에서 회심(回心)한 바울이나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 좋은 증거이다(참조, 행 2:1-41; 3:12-26; 5:29-32; 9:1-22).

(5) 둘째, 복음 전파의 시발점은 가정이다. 가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 가족 복음화이다(참조, 마 10:5, 6; 행 1:8).

(6) 셋째, 증거의 내용은 자신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어야 하며(참조, 1:45; 요 4:28, 29; 행 3:8, 9)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요일 1:1-3).

(7) 넷째, 전도의 대상은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본문에서는 '친숙'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의 친숙은 자신의 혈통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전지역을 의미한다.

(8)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세상의 모든 지역, 모든 족속이 전도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참조, 16:15; 마 28:19, 20; 행 1:8).

(9) 다섯째, 복음의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께서는 귀신들렸던 자에게 사랑을 베풀셨고(15절), 예수를 배척하여 떠나기를 요구하였던 데가볼리에도 사랑을 베풀 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적합한 복음 증거자를 저들에게 보내셨던 것이다(참조, 요 9:25; 고전 15:9, 10; 빌 3:7-14).

(10)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예수의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다. 회심한 자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첫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참조, 요 12:24; 15:2-8; 롬 6:12-23; 7:4; 갈 5:22, 23; 벧후 1:5-11).

12. ㉠ 귀신들렸던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20절)

- Ⓐ (1) 그는 예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 (2) '친숙에게 고하라'고 주께서 명하신 일을 그는 정확하게 이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온 성내에 전파하였으며(눅 8:39), 그것도 부족하여 그는 본서에 기록된 대로 데가볼리 전역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였다.
- (3)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 (4)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이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하여야 한다(참조, 롬 6:17).

13. Ⓞ 회당장 아이로에 대하여 살펴보라 (21-23절).

- Ⓐ (1) '회당장'은 여러 명인데 이들은 평신도로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일을 포함하여 회당을 다스리는 일을 맡았던 자들이다.
- (2) 이들은 당시에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았는데 아이로도 이들 중의 한 명이었다.
- (3) 그는 예수가 누구신 줄 알았으며 깊이 신뢰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 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 나와서 간구하였다.
- (4) 또한 그는 매우 겸손한 인물이었다. 그는 회당장이란 사회적 신분에 있었으나, 겸손하게 인간적으로 무명한 사람인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던 것이다.
- (5) 이처럼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께 간청한 아이로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였다. 여기에 대한 예수의 언급은 한 마디도 없지만 그의 딸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으로 보아 아이로의 신앙을 예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6) 오늘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당할 때가 자주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 28:1-3; 시 46편).

14. Ⓞ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치유받은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5-34절)

- Ⓐ (1) 첫째, 인생사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참조, 빌 4:13).
- (2) 둘째,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지만 힘든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인 것이다(참조, 요 3:16; 롬 10:9).
- (3) 셋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에워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였고, 그 결과 절망과 고통의 삶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15. Ⓞ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25, 26절)

- Ⓐ (1) '혈루증'은 만성 출혈증으로 보통 여인의 자궁 벽에 종기가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이다.
- (2) 이 병은 의식적인 불결을 가져온다고 여겨져 그 병자로 하여금 개인의 종교적, 사회적 생활에 심한 제한을 받게 했다(레 15:15-30).
- (3) 여기에 나오는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였으며,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고 도리어 병이 더 심해졌다. 거기에서 치료비로 재산을 완전히 탕진(蕩盡)해 버렸다.

- (4) 이것은 여인이 인간으로서는 감내(堪耐)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음을 암시하여 주는데, 이는 온갖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대인의 상태와 너무나 흡사하다.
- (5) 오늘날 사람들은 갖가지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보지만 모두 실패하고 오히려 병만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한다.
- (6) 그 유일한 해결책을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서 찾아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이러한 질병의 율무를 깨뜨릴 수 있다(참조, 요 10:26-29; 요일 2:13-17).

16. **㉠** 여인이 예수께 나아가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27절)

- ㉠** (1) 여인이 예수께 나아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 (2)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예수의 소문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3) 여기서 우리가 간과(看過)할 수 없는 것은 예수의 병 고치신 이적들 배후에는 그 소문을 퍼뜨린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여인에게도 이 소문을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 가기로 결심했음이 틀림없다.
- (4) 우리의 생활과 행동은 어떠한가? 예수의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찾게 하는가? 우리가 퍼뜨리는 소문은 쓸데없는 말이 아니어야 한다(딤후 5:13). 우리의 말과 행실은 오직 예수의 소문만을 전해야 한다(참조, 행 8:4; 롬 10:14; 엡 4:11).

17. **㉠**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무엇인가? (28절)

- ㉠** (1)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신에 찬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 (2) 물론 그녀의 신앙에는 다소 미신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병이 완전히 나으리라는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다.
- (3) 이처럼 비록 완전한 신앙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예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고 그의 은총을 받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참조, 마 17:20; 눅 17:6, 히 11:6).
- (4)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활하여야 한다(참조, 마 21:22; 롬 1:17; 4:12; 히 11:6).

18. **㉠**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29절)

- ㉠** (1)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올 것이라는 여인의 믿음대로 그녀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 (2) '곧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말이며 즉각적으로 나았다는 말이다.
- (3) 여기서 놀라운 것은, 보여진 바와 같이 이 여인의 신앙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주께서는 사랑으로 보답하여 주셨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그녀의 신앙이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다(참조, 시 25:3; 27:14; 롬 4:18).

19. **㉠**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30절)

- ㉠** (1)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예수께서 무리를 둘러보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 (2) 예수께서는 누가 무슨 의도로 손을 대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이런 질

문을 하신 것은 그녀를 꾸짖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그녀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했기 때문이다.

- (3) '인격적인 만남'은 모든 신앙인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의 특권이기도 하다(참조, 갈 2:20).
- (4)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루 중 가장 적당한 시간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주와 함께 조용하고 경건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참조, 1:35; 마 14:23; 눅 5:16).

20. ㉠ 예수의 질문에 대하여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1절)

- ㉠ (1) 그들은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대답하였다.
- (2) 이 말에서 풍기는 제자들의 태도는 대단히 불손(不遜)하게 느껴진다. 그들은 예수의 질문을 비웃는 듯한 태도로 대답하였다.
- (3)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은 문자적 해석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문자적 해석과 영적 해석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말씀의 보다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다(참조, 8:15, 16; 요 2:19-22; 3:3-5; 4:10-15; 6:52; 8:56-58).

21. ㉠ 주위를 둘러보시는 예수 앞에서 여인은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32, 33절)

- ㉠ (1) 자신의 병이 나은 줄 안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의 자초 지종(自初至終)을 이야기하였다.
- (2) 왜 두려워 떨었는지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아마도 부정한 병을 앓는 몸으로 예수의 몸에 손을 대어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것을 아신 주께서 꾸짖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 (3)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녀가 도망쳐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주 앞에 나아와서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고백하였다는 점에 우리들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 (4)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정직'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품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므로(사 26:7) 성도들의 정직을 기뻐하신다(대상 29:17). 또한 그것은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하다(고후 13:7).
- (5)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선의에서나 농담 삼아 하는 어떠한 거짓말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잠 30:8; 습 3:13; 엡 4:25).

22. ㉠ 예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34절)

- ㉠ (1) 예수께서 그 앞에 엎드린 여인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구원하였다'는 동사는 완료형으로 이미 구원이 확보된 것을 말하며, '평안히 가라'의 헬라어 <휘파게 에이스 에이레넨>은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뜻이다. 즉 이제부터 당신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은 평화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 (3) 예수의 이 놀라운 선언은 비단 이 여인 뿐 아니라 자기에게 병 고침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다(눅 7:50; 17:9; 18:42).
- (4)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주셨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주 앞에 무릎 꿇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이미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 가운데서 지내라' (참조, 사 43:1-7; 53:5; 롬 5:1).

23. **㉠ 회당장의 집에 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 (35절)**

- Ⓐ** (1)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 혈루병자로 인하여 시간을 지체하였는데 그 사이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 (2)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모시고 오시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기별(奇別)을 한 것이다.
- (3) 그들은 예수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그런데 우리도 이들과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자주 있다. 하나님의 전능을 생활 속에서 인정하지 못한 잘못과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던 불신앙을 회개하여야 한다(참조, 담후 1:12).

24. **㉠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36절)**

- Ⓐ** (1)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고 말씀하셨다.
- (2)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은 아이로에게 큰 실망과 슬픔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로는 예수를 모시고 가야 할런지 그렇지 말아야 할런지 주저하였을 것이다. 이런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약속, 자비 그리고 능력을 굳게 믿는 것뿐이다(참조, 행 14:22; 롬 4:20-24; 고전 16:13).

25. **㉠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갈 때 동행한 제자들은 누구인가? (37절)**

- Ⓐ** (1) 예수께서 3명의 제자, 즉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고 회당장 아이로의 집으로 갔다.
- (2) 이런 경우는 예수께서 변화산으로 가셨을 때(9:2; 마 17:1; 눅 9:28)와 겔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14:33; 마 26:37)에도 나타난다.
- (3) 왜 예수께서 이들만을 특별히 택하여 같이 가셨는지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예수께서 12명 중에서 3명만을 뽑아 특별히 훈련시켜 당신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참조, 신 19:15; 마 18:16; 고후 13:1; 담전 5:19).
- (4) 우리가 특별히 제자 양육을 시킬 때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여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26. **㉠ 회당장의 집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38, 39절)**

- Ⓐ** (1) 당시 유대인의 관습 중에는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고용하는 관례가 있었다(참조, 대하 35:25; 렘 9:17, 18).
- (2) 더우기 아이로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통곡자들의 수자가 매우 많았을 것이다. 게다가 아이로의 친척들까지 합쳤으니 거기에는 매우 큰 소동이 있었을 것이다.
- (3) 이들에게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흰화(喧嘩)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고 말씀하셨다.
- (4) 여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단순히 기절 상태나 혼수 상태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참조, 창 47:30; 신 31:16; 단 12:2; 요 11:1; 행 7:60; 고전 15:18).
- (5)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신 의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었다(참조, 사 26:19; 단 12:2, 3; 요 5:28, 29; 6:39, 40, 44; 행 24:14, 15).
- (6) 이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성도들은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미 죽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참조, 롬 8:23; 고전 6:13-20).

27. **㉠** 회당장의 집에 모여 있던 무리들은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0절)

- ㉠** (1)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2) 그들은 분명히 죽은 아이를 죽지 않았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비웃었던 것이다.
 (3) 그런데 예수가 누구신 줄 그들이 알았다면 감히 이렇게 비웃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영적으로 부지하여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면서 오히려 예수를 비웃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오묘(奧妙)하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비웃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참조, 행 21:14; 롬 1:10; 2:18).

28. **㉠**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4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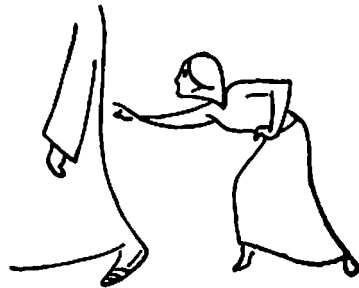
- ㉠** (1)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이라고 말씀하셨다.
 (2) '달리다꿈'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아람어로서 그 뜻은 마가의 해석처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이다.
 (3) 이는 영적으로 나태해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 같은 성도를 향한 음성이다(참조, 은 1:5, 6).
 (4)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일어나라'는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그 명령에 따라 영적 무지와 나태 그리고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한다(참조, 롬 12:11; 고전 15:58).
 (5) 한편 마가가 아람 말을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것은 본서의 수신자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29. **㉠** 예수께서 소녀를 살리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43절)

- ㉠** (1) 예수께서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2) 이 경계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취하신 태도이셨다(1:44; 3:12).
 (3) 그 이유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기까지는 유대 지도자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 즉 복음 전파를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1:38).
 (4) 한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의 자상하고도 동정어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5) 바쁘고 복잡한 속에서 이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러한 모습이 요구된다. 소외되어 가는 이웃에게 사랑과 동정의 관심을 쏟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다(참조, 눅 10:33-35).

본장의 요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28절).



제 6 장 예수께서 두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다

단락구분 1-6 고향 나사렛에서 냉대쯤 받으시다 / 7-13 열 두 제자를 파송(派送)하시다 / 14-29 예수께서 헤롯에게 살해된 세례 요한으로 오해받으시다 / 30-44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 이어(五餅二魚)의 이적을 베푸시다 / 45-52 풍랑 이는 김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다 / 53-56 게네사렛에서 병을 고치시다

1 예수께서 거기로부터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좃으니라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뇨

3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나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4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5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들씩 들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8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10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11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쁨을 발라 고치더라

14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15 어떤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이는 이가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16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 베인 요한 그 가 살아났다 하더라

17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18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19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20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21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한새

22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24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25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대

26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27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28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다가 여자에게 주니 여아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29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날날이 고하니

31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32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3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3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곱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5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37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38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라 하거늘
 39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 때로 후 백씩, 후 오십씩 앉은지라
 4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42 다 배불리 먹고
 43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 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더라
 45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벧새다로 가게 하시고
 46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47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48 바람이 거스리므로 제자들의 피로이 노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9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50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51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53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54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55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 채로 메고 나아오니
 56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음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1. ㉠ 예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의 전환기(轉換期)를 맞이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자.

- ㉠ (1) 본장에는 예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갈릴리 전도의 절정을 장식하는 사건들로서 이후부터는 군중에 대한 교육보다 제자들에 대한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
- (2) 본장에 기록된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가르치시지만 고향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냉대한 내용이 나온다.
- (3) 그런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간파할 수 없는 사건이 아울러 언급되어 있다.
- (4)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애쓰신 것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이었다. 이를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이다.
- (5) 그리고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간계(奸計)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고, 이에 대한 죄책감 속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 (6)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휴식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모여든 군중들로 말미암아 저물도록 그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오병 이어의 기적도 행하셨다.
- (7)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은 4 복음서가 다같이 전하는 유일한 기사로서 예수의 공생애 기간 중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었다(참조, 마 14:13-21; 눅 9:10-17; 요 6:1-14).

- (8) 요 6:4에 보면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때가 예수의 수난 1년 전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누가복음에는 그곳이 벳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눅 9:10).
- (9) 이 기적 이후에 예수께서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서 가신 사건과 게네사렛에서 각색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본장 말미에 언급되어 있다.

2. ㉠ 예수께서 가신 곳은 어디인가? (1절)

- ㉠ (1) 예수께서는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
- (2) 여기서 '고향'이란 헬라어로 <파트리스>인데 이것은 흔히 '조국'을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 (3) 그런데 이 '고향'은 눅 4:16에서 입증하고 있듯이 '그가 자라나신 장소'를 의미한다(참조, 6:4; 마 13:54, 57; 눅 4:23, 24; 요 4:44; 히 11:14).
- (4) 비록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 사실이지만(마 2:5, 6; 눅 2:4, 15; 요 1:45; 7:42) 그의 가족이 나사렛에 살았으며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그곳을 고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참조, 1:9, 24; 마 2:23; 요 1:46).

3. ㉠ 예수의 가르침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2, 3절)

- ㉠ (1)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미친한 목수(木手)로서 성장한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가르침에서 보인 지혜와 행하신 권능에 모두 놀랐다.
- (2)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뇨'라고 말하였다.
- (3) 이미 그들은 예수께서 고향에 오시기 전에 그가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참조, 1:21-34, 40-45; 2:1-12; 3:1-6; 5:21-43).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그들과 함께 자라온 평범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의 행하신 것들을 의심하였다.
- (5) 그리하여 그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木手)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배척하였다.
- (6) 여기서 '배척한지라'라는 말의 헬라어 <스칸달리조마이>는 말씀에 대한 신앙(눅 8:13)이나 예수와의 관계(14:27, 29)를 포기할 정도로 강한 배척을 의미한다.
- (7)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선입견, 즉 그가 단지 그들과 별반 다름 바 없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를 불신하였고 멸시하였다.
- (8)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의 전철을 되밧지 않을 수가 없다(참조, 삼상 16:7; 약 2:1).

4. ㉠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4절)

- ㉠ (1)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기사와 이적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을 보신 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을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께서는 마땅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이다(참조, 신 18:15, 18; 마 21:11; 눅 24:19; 요 9:17; 행 3:22; 7:37).
- (3) 즉 이 말은 선지자가 그의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든지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어느 곳에서든지 존경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자기 고향에서는 결코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 (4)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이 말씀은 맞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는 속담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기 힘들고 존경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웃의 권위와 위신을 세워 주기에는 여유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시기와 질투와 불건전한 경쟁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는 한낱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기에 그분이 지나신 신성(神性)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옛날 갈릴리 사람들이 지녔던 불건전한 경쟁심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지 말고 겸손한 마음과 사랑에 찬 시각으로 그들을 대하여야 한다(참조, 빌 2:1-4). 그럴 때에야 비로소 이웃 뿐만 아니라 자신도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된다(참조, 마 20:26, 27).

5. **㉠ 예수께서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에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5절)**

- ㉠** (1) 예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와 달리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按手)하여 고치셨을 뿐이었다.
- (2) 본문에 '행하실 수 없이'라는 귀절이 나오는데 이는 예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베풀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는 의미이다(참조, 마 13:58).
- (3) 즉 예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 행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말이다.
- (4) 물론 그들의 반역적인 자세를 예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굴복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지양(止揚)하시고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책임성을 존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참조, 마 24:37; 눅 22:22; 행 2:23).
- (5)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아시면서도 소수의 병자를 고치심으로 이적을 베푸셨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멸해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긍휼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참조, 시 78:38; 애 3:22; 마 11:21; 30; 눅 15:20; 록 9:15).
- (6)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깨달아서 늘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히 11:1; 약 2:17; 요일 5:4). 사실 우리는 주께서 공급하시는 긍휼 때문에 오늘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6. **㉠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한가? (6절)**

- ㉠** (1)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 (2)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더라'는 동사가 4 복음서의 원본에는 30회 언급되고 있는데, 예수와 관련하여 사용된 곳은 단 세 군데이다(참조, 6:6; 마 8:10; 눅 7:9).
- (3)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한 말이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이방인 태생인 한 백부장의 남다른 신앙에 대해 기이히 여기셨고, 동시에 나사렛 사람들의 철저한 불신앙에 대해서도 기이히 여기셨다.
- (4) 그것은 마땅히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속에서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자들이나 복음을 듣기 힘든 가운데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책임을 묻는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책임성 있는 신앙이다.
- (5) 예수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떠한지 대신에 얼마나 책임 있는 신앙을 견지하느냐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말 2:1-9).

7. **㉠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부여한 임무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7절)**

- ㉠** (1)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임무를 부여하셨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을 들썩 짝지어 보내셨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 (2)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17)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다.
- (3)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속 그들을 말씀과 권능으로 양육해 오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을 파송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참조, 3:14, 15).
- (4)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것은 들썩 들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그의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 (5) 그가 제자들을 들썩 짝지워 파송한 이유는 서로 도와 용기를 북돋아 주고(참조, 전 4:9), 그들을 정당한 증인들로 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참조, 민 35:30; 신 19:15; 마 18:16; 요 8:17; 고후 13:1; 딤후 5:19; 히 10:28).
- (6) 뿐만 아니라 그는 강한 권세를 가진 사단이 악랄한 방해 공작을 펴리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 (7) 사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은 사단의 왕국의 붕괴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 사역은 영적인 전쟁, 즉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우리 인간과 사단의 싸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참조, 엡 6:10-13).
- (8) 여기서 '보내시며'로 번역된 동사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레인>인데, 이 단어에는 '보내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대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수는 제자들이 말과 권능에 있어서 그의 대리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메시지와 행동은 곧 예수 자신의 메시지와 행동의 연장이었다' (Lane).
- (9)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으며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참조, 16:5; 시 2:8; 사 42:4; 마 28:19; 행 26:17, 18; 계 14:6).

8. ㉠ 전도 사역을 위해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명령은 무엇인가? (8, 9절)

- ㉠ (1) 제자들이 떠나기에 앞서 예수께서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纏帶)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하셨다.
- (2) '지팡이'는 여행자의 피로를 감해 주고 그를 부축해 주는 물건이었다. 그리고 '주머니'는 배낭의 일종으로 '보행용' 혹은 '여행용' 가방이었다. '전대'는 여러 겹으로 휘감아 만든 허리띠의 일종이다.
- (3) 여기서 예수께서 가져가도록 허락한 것은 지팡이와 신발뿐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공관 복음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항 목	마 10:9, 10	막 6:8, 9	눅 9:3
지 팡 이	×	○	×
양 식		×	×
여행용가방	×	×	×
돈	×	×	×
신 발 들	×	○	
두 벌 옷	×	×	×

- (4) 이에 대하여 칼빈(Calvin)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마태와 누가는 '지팡이'라는 헬라어 <람도스>를 무거운 짐이 되는 막대기로 이해하여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으

로 본 반면 마가는 이를 여행시에 도움이 되는 가벼운 지팡이로 이해하여 가지고 가도 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신발에 대하여서 마태가 말하려는 의도도 여분의 신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므로 마가의 기록과는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다.

- (5)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들이 전도하려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휴대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기타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셨다는 의미이다(참조, 8:19-21; 마 6:19-34; 눅 22:35).
- (6)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 일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참전도 사역자가 될 수 없다(참조, 시 91:1-16; 히 11:1-40).

9. ㉠ 사역지에서서의 거취에 관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0, 11절)

- ㉠ (1) 제자들이 전도지(傳道地)에 가게 되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는 반드시 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10절).
- (2) 마 10:11에 보면 '함당한 자'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함당한 자'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한 자를 가리킨다. 일단 거취할 곳이 정해지면 다른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
- (3)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더 나은 거처를 위해 최초의 거처를 떠나는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한 처사이다.
- (4) 그러나 만약 어느 곳에서도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없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을 때는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그는 말씀하셨다(11절).
- (5)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었다. 만약 그들이 이방 지역을 다녀올 때 옷이나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지 않을 경우 부정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6) 따라서 예수의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여기를 거절하는 곳이 집이나 마을이나 도시나 부락 등 어떠한 장소이든지 간에 이방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장소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7) 이와 같이 전도자들에게는 건덕(健德)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도는 단순히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마 5:16; 뱀전 2:12).

10. ㉠ 제자들은 어떻게 전도 사역을 행하였는가? (12, 13절)

- ㉠ (1)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 (2) 그들의 이 전도 사역은 예수의 사역과 매우 유사하다. 즉 회개를 촉구하는 것(12절)이라든지 귀신들을 쫓아내고(13절) 병자들을 고친 행적이 바로 그러하다. 이는 그들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의 연장임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 (3) 여기서 제자들이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른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행하여지던 치료법의 일종이었다(참조, 사 1:6; 눅 10:34; 약 5:14).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름이 성령의 임재와 권세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이다(참조, 속 4:1-6).
- (4) 이는 병자들이 제자들의 기름 바른 행위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되어졌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전도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 (5) 오늘날 우리들의 전도 사역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참조, 요 12:24, 25).

11. ㉠ 제자들이 행한 복음 전도 사역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14-16절)

- ㉠ (1) 제자들의 놀라운 전도 사역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 (2)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에 관한 소문이 온 유대에 널리 퍼졌다는 말이다.
- (3)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그가 엘리야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는 선자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15절).
- (4) 그 소문은 헤롯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는데 소문을 들은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라 생각하여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심히 두려워 떨었다(14, 16절).
- (5) 여기에 언급된 헤롯은 헤롯 대제(Herod the Great)와 그의 부인 말타스(Malthace) 사이에서 태어난 헤롯 안디바(Herod Antipas, B. C. 4- A. D. 37)로서 갈릴리와 베르사야의 분봉왕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다(참조, 14:1-11; 눅 13:31-33).
- (6) 이처럼 제자들의 전도 사역은 온 유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로 인해 놀라운 결실들을 거두었던 것이다.
- (7)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전(全)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참으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며, 그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참조, 고전 10:31; 골 3:17; 뱀전 3:15).

12. ㉠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인가? (17, 18절)

- ㉠ (1)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도덕적인 비행을 지적하고 책망한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 (2) 헤롯의 본명은 헤롯 안디바(참조, ㉠ 11의 (5))인데 그는 이복 동생 빌립(마리아네 2세의 아들)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 (3) 그는 이미 나바테아의 왕 아레다의 딸(그녀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을 아내로 두고 있었으나 헤로디아를 보고 반해 그 본처와 이혼한 뒤에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다.
- (4) 이 추악한 사실을 안 세례 요한은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가서 그러한 잘못된 죄악을 책망하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적하는 하나님 중심의 인물이었다.
- (5)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 (6)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의 죄를 통렬히 꾸짖었고(참조, 삼하 12:1-15), 엘리야는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했다(참조, 왕상 17:1; 18:1-16; 21:15-29; 왕하 1:1-16; 대하 21:12-15).
- (7)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삶의 방법을 제시하여 준다. 즉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결코 불의를 용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 (8) 이 땅에선 교회가 진리의 최후의 보루이며 시대의 양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그 구성원들이 불의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것은 곧 불의에 대한 공범죄내지는 동조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세례 요한처럼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행 4:19; 5:29).

13. ㉠ 세례 요한의 책망에 대해 헤로디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9절)

- ㉠ (1)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 커녕 도리어 세례 요

을 원수로 여겼을 뿐 아니라 그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세웠다.

- (2)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라면 자신의 전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된 더러운 도덕적 죄악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치부름 드러낸 그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 (3) 헤로디아의 이러한 태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의 불행한 상태를 발견하게 된다. 악한 자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들의 양심은 더러울 대로 더러워져 있고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
- (4)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타인의 충고나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자들에 대해 헤로디아와 같은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5)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 5:22, 23).

14. ㉠ 세례 요한의 책망에 대한 헤롯 왕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20절)

- (A) (1) 헤롯 왕은 헤로디아처럼 극도로 타락한 인간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煩悶)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
- (2) 이처럼 그는 용기가 없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 것을 보면 그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
- (3) 그래서 그는 헤로디아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요한을 감옥에 잡아 가두었던 것이다.
- (4) 그런데 이 헤롯과 유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 (5) 예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4:19).

15. ㉠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몄는가? (21-28절)

- (A) (1) 자신의 비리를 드러내어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하였으나 헤롯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19, 20절) 단념하지 않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 (2) 마침 헤롯 왕이 생일을 맞게 되자 이때가 가정 절호의 기회임을 안 헤로디아는 헤롯이 베푸는 잔치가 무르익기를 기다려 그녀의 딸을 연회장에 내보내 춤을 추게 하였다(22절).
- (3)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매혹된 헤롯은 충동에 이끌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의 맹세를 하였다(22, 23절).
- (4) 이 소식을 들은 헤로디아는 딸에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간청하게 하였다(24, 25절). 이미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결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은 지당한 사실이었다.
- (5) 그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자며 또 선지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어쩌면 아내가 만든 계약에 자신이 빠져 있음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양심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요한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26-28절).
- (6)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양심이 마비된 인간의 잔인성과 세상의 패락을 좇는 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필연성이다.
- (7)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

며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본성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참조, 딤후3:1-5).

16. ㉠ 제자들의 전도 여행 결과를 보고받은 예수께서 취하신 태도는 무엇인가? (30-32절)

- ㉠ (1)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하였다.
- (2) 이 보고를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들에게 있어서 휴식 없이 활동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 (3) 물론 분주하게 땀흘리며 일하는 것이 고귀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적당한 휴식과 휴양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께서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다(참조, 1:35).
- (4) 이와 같이 우리가 보다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나타나 게으름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육신이 너무 피곤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참조, 출20:10; 23:12; 레 23:3).

17. ㉠ 한적한 곳으로 가는 예수의 일행을 본 군중들은 태도와 그들에 대한 예수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33, 34절)

- ㉠ (1) 한적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본 군중들은 호수의 기슭을 따라 도보(徒步)로 예수의 일행보다 먼저 도착했다(33절).
- (2) 극성스러운 군중들로 말미암아 휴식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군중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 (3)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영적 지도자가 없어 그들의 영이 굶주리고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풍성한 영적 양식을 베푸셨던 것이다.
- (4) 이처럼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베푸신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어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16:15; 마 28:19, 20; 행 1:8).

18. ㉠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5-37절)

- ㉠ (1) 날이 저물도록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군중들이 배고파하고 있음을 안 제자들은 무리를 해산시켜 그들 스스로가 인근 촌이나 마을로 가서 음식물을 얻도록 하자고 예수께 말했다(35, 36절).
- (2) 이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라고 반문하였던 것이다.
- (3) 그 동안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가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 (4) 이처럼 믿음이 부족한 그들이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 (5) 오늘날 우리도 약하고 부족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됨을 명심하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 매사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참조, 욕 32:8; 벰후 1:20, 21).

19. ㉠ 오병 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8-44절)

- ㉠ (1) 예수께서는 혼자 먹이에도 부족한 떡 다섯 개와 닭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

쳐 준다.

- (2) 분명히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회노 애락을 똑같이 느끼셨다(참조, 마 4:2; 8:24; 요 4:6; 19:28).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 하나님이셨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무수히 행하셨고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참조, 요 14:9).
- (4)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의롭게 살다 간 인간으로 보고 있다. 그가 신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부지 기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참조, 마 28:18; 요 1:3, 48; 히 1:8; 계 19:16).

20. **㉠ 예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39, 40절)**

- ㉠** (1)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할 가져온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39절).
- (2)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누어 주게 하시려는데 그 이유가 있으나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 (3)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삼위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의 아담다운 질서와 조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하루하루의 삶을 무질서하게 보내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보다 크고 능력 있게 임하게 된다(참조, 고전 14:33).

21. **㉠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41절)**

- ㉠** (1) 예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 (2) 경건한 유대인이면 누구나 그러했듯이 예수도 식사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다.
- (3)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은 ‘찬미하셨다’는 의미와 통하는데 이와 동일한 동사는 공관 복음서의 병행 귀절들(마 14:19; 눅 9:6)에서도 발견된다.
- (4) 예수의 이 같은 행동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곧 당신의 자녀들은 매사에 감사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요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참조, 살전 5:18; 살후 2:13).

22. **㉠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실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42-44절)**

- ㉠** (1) 남자만 해도 5천 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열 두 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다.
- (2) 이것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혀 준다(참조, 왕상 17:6, 16; 19:6; 빌 4:9).
-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할 때 만나를 내려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 주신 것은 그 좋은 예이다(참조, 출 16:4, 13-15; 민 11:7-9).
- (4)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마 6:31, 32).

23. **㉠ 제자들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내버렸는가? (43절)**

- ㉠** (1) 예수께서 나누어 준 음식을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제자들은 내버리지 않고 모두 수거하였다.
- (2) 그 이유는 그 음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양식이었기 때문이며 조금도 낭비함이

없게 하려는 때문이었다.

- (3) 여기서 우리는 예수와 제자들의 근면하고 검소한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채워 주신 것이므로 당연히 근검 절약해야 한다.
- (4)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관리권은 주셨지만 소유권은 결코 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조금도 낭비함이 없이 유용해야 할 것이다(참조, 시 24:1, 2; 마 20:8; 눅 12:42; 16:2, 3; 롬 16:23).

24. **㉠ 오병 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재촉하셨는가? (45 절)**

- ㉠** (1) 예수께서 오병 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을 보고 무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 것이다.
- (2)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뱃새다로 가게 하신 것은 예수의 이적을 본 무리들이 그릇된 메시야관(觀)에 이끌려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요한은 실제로 이런 위험성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요 6:15).
- (3) 따라서 예수의 이 같은 행동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들의 동요에 휩쓸리지 않게 하려는 예수의 세심하신 배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한편 뱃새다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성읍으로(눅 9:10)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다(요 1:44; 12:21).

25. **㉠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46 절)**

- ㉠** (1) 예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 (2)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 기간 동안 틈만 나면 행하시던 습관이었다(참조, 1:35; 마 14:23; 눅 6:12; 9:28; 11:1).
- (3) 그런데 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3군데 있는데, 이 세 경우는 모두 일종의 위기와 연관되어 있다(참조, 1:35; 14:32-36).
- (4) 본절의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는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은 위기를 말한다(참조, ㉠ 24).
- (5) 하여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습관화하여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 예수 그리스도도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 (6)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 그리고 고통 등을 당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의 힘 때문이었다(참조, 14:32-42; 마 26:36; 눅 22:39-43).
- (7)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신앙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기도가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통로이다(참조, 9:28, 29; 약 5:16-18).

26. **㉠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가갈 때 그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48 절)**

- ㉠** (1) 저녁에 예수보다 먼저 떠난 제자들이 밤 사경이 되도록 폭풍우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찌 할 바를 모른 채 절망 가운데 있었다.
- (2)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지중해보다 훨씬 낮고 험난한 산으로 둘러싸여 때때로 돌풍이 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 돌풍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시달렸던 것이다.
- (3) 이러한 곤란에 직면한 제자들을 보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기꺼이 그들에게 가셨다.
- (4) 여기서 '보시고' 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이돈>인데 이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위가 아니라 객체의 상황에 대한 사실적인 지각을 말한다. 여기서는 제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

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흔히 우리는 이러한 폭풍을 인생사의 수많은 고통으로 풀이한다. 전혀 예기치 않은 때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폭풍이 몰아친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 (6)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힘을 얻는 것은 주께서 제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듯이 우리들의 삶의 고통도 반드시 살피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115:12; 눅 12:7; 벰전 5:7).

27. ㉠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를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49절)

- ㉠ (1) 풍랑으로 인하여 밤새도록 시달려 기진한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를 바다의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였다.
- (2)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께서 폭풍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때까지도 그들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 (3) 그러나 물 위로 걸어오신 그분은 결코 유령이 아니었다. 분명 예수였다. 제자들의 당면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이다.
- (4) 이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시다(참조, 출 14:14-25; 16:4, 13-15; 민 11:7-9).

28. ㉠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은 무엇인가? (50, 51절)

- ㉠ (1)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50절).
- (2) 그들이 신앙이 약하여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으로 지치고 두려움에 가득 찬 그들을 위로했다.
- (3)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그렇게 사납던 폭풍우가 그치는 기적이 일어났다(51절).
- (4)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실 때 사단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참조, 3:27, 28; 창 3:15; 마 4:1-11; 눅 10:18).
- (5)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사단의 꾀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참조, 갈 2:20; 히 12:1, 2).

29. ㉠ 폭풍우가 그친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51, 52절)

- ㉠ (1)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 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 (2)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계속하여 이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던 것이다.
- (3) 여기서 '둔하여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로오>인데 석화(石化)하다, 굳어지다, 우둔해지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참조, 8:17; 요 12:40; 롬 11:7; 고후 3:14).
- (4) 그리고 성경에서 마음이란 말과 행동의 근원일 뿐 아니라 감정과 믿음의 기초가 된다(마 12:34; 15:19; 22:37; 요 14:1; 롬 10:10; 엡 1:18). 또한 인간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 삶의 근원이다.
- (5) 마가가 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이적과 그것을 행하신 분의 본성에 관하여 신중히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죄의 결과였음을 뜻한다.
- (6)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가? 제자들처럼 영적인 나태하

로 인하여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참조, 잠 6:6-11; 마 25:1-13). 그리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참조, 딤후 3:14-17).

30. ㉠ 계네사렛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 (53절).

- ㉠ (1) '계네사렛'은 가버나움 남쪽에 있는 인구가 조밀하고 비옥한 평원의 지명이다.
- (2) 그곳의 길이는 갈릴리 바다를 따라 약 5km, 폭은 그 해변에서 약 2.5km에 달한다.
- (3) 요세푸스(Josephus, A.D. 38-?)의 견해에 따르면 계네사렛 평원의 자연미와 토양의 비옥함은 극치에 달했다고 한다. 그는 '그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되지 않는 식물은 없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그 토양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물은 없었다는 뜻이다.
- (4)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 평원에서 호두, 종려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 감람나무 열매, 포도 등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이 열매들은 유대의 랍비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다.

31. ㉠ 예수께서 계네사렛에 도착한 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53-56절)

- ㉠ (1) 예수께서 계네사렛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가 예수이심을 알고 근처의 온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그 소식을 전하였다(54, 55절).
- (2) 그러자 사방 여러 곳에서 병자들이 예수께로 운반되어 왔다(55절).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인산 인해를 이루었고 그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56절).
- (3) 당시의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예수께서는 이미 치유자로서 널리 알려졌음이 분명하며(참조, 1:23-31; 2:1-12; 3:1-5, 7-12),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은 모두 치유함을 받았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 육체적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치유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그리고 종교적인 질병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내놓아야만 한다(참조, 창 20:17, 18; 출 15:26; 민 21:8, 9; 왕상 13:1-6; 시 107:20).
- (5) 한편 계네사렛 사람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병든 자가 치료를 받도록 그리스도께 데려다 줌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었다는 사실이다(55절).
- (6) 이는 우리가 불행과 환난 중에 처한 자들에게 최선의 도움과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랑과 자비의 의무임을 깨우쳐 주기 때문이다(참조, 행 11:14, 30; 갈 6:2; 벧전 4:7-11).

연구자료

아그라파 (Agrapha)

'아그라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 4복음서와 같은 정경(正經)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기타 다른 문헌(文獻)에는 나와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그라파'에 대한 관심은 1897년경부터 이집트의 옥시린쿠스(Oxyrhynchus)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여러 문서에 예수의 말씀으로 추정되어지는 글들이 나타나므로 고조(高調)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그라파'에 대한

연구는 그 이전 시기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히에라폴리스(Hierapolis)의 감독으로 있었던 파피아스(Papias, A. D. 75-163)는 정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예수의 말씀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 내었다. 그 뿐 아니라 로마 감독인 클레멘트(Clement, A. D. 88-97)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220) 같은 초대 교부들의 글에도 각종 '아그라파'가 인용되어 있다. 아문든 이상과 같은 경향에 편승(便乘)한 '아그라파'에 대한 연구는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Nag Hammadi) 부근에서 '도마 복음서'(the Gospel of Thomas)가 발견되므로 보다 진척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옥시린쿠스 문서'의 것과 병행되는 많은 '아그라파'가 수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아그라파는 전승(傳承)에서 취한 것으로 분명한 예수의 말씀으로 믿기 어렵다. 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아그라파가 정경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을 보충내지 재해석해 놓은 듯한 내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아그라파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예수의 말씀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한편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아그라파'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출 처		내 용
옥시린쿠스서	파피루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두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홀로 있는 그곳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노라'
	파피루스 654	'찾기까지 쉬지 말고 계속 찾으라 찾은즉 놀라리라 놀란 후에 다스리고 다스린 후에 안식할 것이라'
도복음마서	로 기 아 8	'사람은 마치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가 견져 올리는 현명한 어부와 같다 그물 안에는 많은 고기가 잡혀 있지만 그는 가장 크고 좋은 고기 한 마리만을 남겨 둔 채 다른 고기들은 모두 바다에 내버린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미련이 남아 있지 않다'
	로마의 클레멘트	'육체를 깨끗하게 간수하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데오도루스	'큰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것들도 덧붙여 너에게 주시리라' '네 자신과 네 영혼을 구하라'
베사자본	눅 6 : 24 b	'오 그대여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참으로 알고 있다면 그대는 복있는 자로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대는 저주받을 자요 율법을 어긴 자가 될 것이다'

제 7장 예수께서 정결 의식 논쟁 후 갈릴리를 떠나시다

단락구분 1-13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유전에 관하여 논쟁하시다 / 14-23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 24-30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시다 / 31-37 귀먹고 어눌(語訥)한 자를 고치시다

1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2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4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냇그릇을 씻음 이니라)
5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 가라사대 이사가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복하였도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9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느도다
10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11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 제 아버지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13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4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7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20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흥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팽패니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26 그 여자는 헨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분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 사람들이 귀막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36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잠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병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1. ㉠ 본장에서의 주요 의제(議題)는 무엇인가?

㉠ (1) 본장에서는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에 의하여 가르침과 삶이 규제(規制) 되어야 하는가?’ 라는 의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2) 그 동안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의 문제로 논쟁을 하셨다(2:6-9, 16, 17, 24-28; 3:22-30). 본장에서 그는 또 한번 그들과 논쟁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례에 관계되는 것이었다.

(3)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그들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박하였다(5절).

(4) 그들은 위생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문제시했던 것은 어떤 행위가 의식적(儀式的)으로 정결한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 그들의 생활의 규범인 미쉬나(Mishnah)의 한 부분 전체가 이 ‘정결’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매우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5) 이에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그들이 모든 유전들과 규정들을 지키지만 실상은 진실이 없는 위선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후(6, 7절)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유전’을 대조시켜 설명하셨다(8, 9절).

(6) 예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 그들이 제 5 계명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꾀방하고 있는지 보여 주시므로써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셨고,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다(10-23절).

(7) 이 말씀 후에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의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것은 예수가 유대의 구전 율법, 특히 의식적 정결에 관한 법을 폐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앞에서의 논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8)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의식적(儀式的)인 불결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갖지 않았다.

(9) 그러나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시므로써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선민과 이방 민족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셨다.

(10) 결국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뿐 아니라 그 본질을 상실하지 않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과, 우리들은 이러한 형식이나 의식에만 매달려 성경 말씀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참조, 행 10:1-11:18).

2. ㉠ ‘바리새인’에 대하여 설명하라(1절).

㉠ (1) 바리새인은 후기 신·구약 중간 시대와 신약 시대의 유대교 종파 중 가장 중요한 종파의 하나로서 재편성된 유대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바리새파의 일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2) 바리새인이란 히브리어로 <파루심>인데 그 뜻은 ‘분리하는 자’, ‘구별된 자’이다.

- (3) 이들이 속해 있는 '바리새파'란 명칭의 어근(語根)은 B. C. 2세기경의 경건파인 '하시딤'(Hasidim)이라는 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건파들은 헬라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이방 왕정 통치에 불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생명을 내놓고 지켰던 자들이었다.
- (4) 그러나 B. C. 164년과 B. C. 162년에 각각 예루살렘 신전의 재(再)건당과 및 종교적인 자유가 이루어지자 경건파들은 정치보다 종교적인 생활에 관심을 쏟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 수가 급증하여 갔다.
- (5) 그중 바리새파는 그 어떠한 종파보다도 더 경건한 종파였다. 그들은 일반 민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 (6)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대개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언급되고 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관련하여 언급(참조, 3:6; 12:3; 마 16:1; 22:15 이하) 되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의 교리적 입장으로 볼 때는 그들과 전혀 자리를 같이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를 모략하고 증상하기 위해 함께 모여 결탁하였다(마 22:34).
- (7) 이러한 성경상의 바리새인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부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도 상당하여 사두개인조차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했다.
- (8) A. D. 132년에 로마에 대한 유대인의 항쟁이 수포로 돌아가고 성전 재건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리자 바리새파의 랍비들이 저술 작업에 주력하여 유대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 (9) 그들의 가르침은 A. D. 200년경 족장 유다가 편찬한 '미쉬나'(Mishnah, 탈무드의 기초가 된 유대교의 참문율서)를 절정으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3. **㉠** '서기관'에 대하여 설명하라(1절).

- ㉠** (1) 서기관은 서기 또는 글을 베끼는 사람이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서기관 직업이 주로 가족의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수공업을 보존시킨 어떤 족벌에 주로 한정되었으며 이 기술은 대대로 전해졌다.
- (2) 이스라엘의 통일 왕정 시대에는 상당수의 서기관들이 레위 지파에서 배출되었다(참조, 왕하 12:10, 11; 대상 24:6; 대하 14:11).
- (3) 에스라 시대와 신·구약 중간기는 과도기로 왕실 조서에 '서기관'이 행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지만(스 7:12-26), 성경에서는(스 7:6, 11) 이 용어가 평민들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줄 수 있는 서기관으로 되어 있다.
- (4)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서기관은 율법 학자 및 권위자로 묘사되어 있다. 신약의 서기관은 제사장(사두개파)과 바리새파(마 23장)와 관련하여 나와 있다. 즉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 소속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 (5) 그들은 학자와 교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했으나(마 8:19; 13:52; 23:34) 바울은 그들을 기록 율법과 구두 율법 학자인 변증가로 이해했다(고전 1:20-25).
- (6) 신약 시대 이후에 서기관은 어린이들의 교사와 법률 문서의 구성자가 되었으며 '현인'과 '랍비'라는 명칭들은 율법 학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4. **㉠**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1절)

- ㉠** (1) 공생애 초기부터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비난과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공생애 말기에는 그들의 손에 잡히어 죽임을 당하였다(참조, 14:64; 마 9:3; 눅 22:66; 23:2, 5; 요 18:37).
- (2) 그들이 예수를 미워한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며,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렸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그것보다 좀더 실제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 (마 3:7; 12:34; 23:33; 눅 3:7), '회칠한 무덤' (마 23:27) 등의 표현을 써서 힐난했으며 적대시했기 때문이다.
- (4) 그들의 지위와 직업으로 보아 예수의 가장 훌륭한 친구요 지지자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가장 큰 적이 되어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했다.
- (5)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샅군 목자로 비유하여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참조, 요 10:12, 13).
- (6)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샅군 목자들이 존재한다. 어쩌면 예수 당시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13:22; 마 24:11).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탈은 쓰고 있지만 성도들을 멸망의 구렁으로 인도하는 자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겠다(참조, 신 13:5; 18:22; 사 9:15; 스후 13:3; 마 5:19; 15:9; 27:20; 요 19:6).

5. ㉠ 예수의 제자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2절)

- ㉠ (1) 예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
- (2)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은 유대인의 습관화된 의식이었기 때문이다(참조, 출 30:20; 40:12; 레 14:8; 16:26; 22:6; 민 19:7; 히 9:10).
- (3) 그들이 이러한 결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무시해 버린 데는 나름대로의 원인이 있음이 분명하다.
- (4) 예수께서는 스스로 이러한 규례들을 무시하셨는데(참조, 2:23-28; 눅 11:38), 이로 인하여 그들이 영향을 받았거나 그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 (5)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이 만든 형식을 전부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에 얽매어서는 안 되며, 또 근본 정신을 상실한 형식은 조금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참조, 행 15:10; 갈 4:9; 5:1; 골 2:20; 히 9:10).

6. ㉠ '장로들의 유전(遺傳)'은 무엇을 말하는가? (3절)

- ㉠ (1) '장로들의 유전'은 포로 시대의 부산물이었다. 아마 그것은 산헤드린의 모체였던 '대 회당' (Great Synagogue)과 더불어 비롯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2) 에스라에 의해 부흥되고 후대의 서기관들에 의해 조장되었던 성경에 대한 존경과 관심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또한 국가가 멸망한 뒤 그들의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기원을 찾아 주는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다루어졌다.
- (3)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한 '구전 율법'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자 그것의 권위는 성문 율법의 권위와 맞먹는 정도로 백성들의 양심을 구속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그에 대한 존경심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 (4)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것은 랍비들에 의해 해석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연구·강해 및 부가적 설명이 집적(集積)되어 후에는 하나의 커다란 교훈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 (5)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후대에 변질되기 시작하여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그 증거로 그들 사이에 유포되던 속언을 들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은 풀과 같고, 미쉬나는 포도주와 같으며, 게마라(Gemara)는 히포크라스(은갖 향료를 넣은 가장 귀히 여겨지던 음료)와 같다.'
- (6)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은 모두가 예외 없이 유대적 체제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또한 부패와 타락으로 점철되었던 유대 후기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것들을 철저히 무시하셨던 것이다.

7. ㉠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정결 의식'은 무엇인가? (3, 4절)

- Ⓐ (1)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정결 의식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손을 씻어야 할 뿐 아니라 잔과 주발과 냇그릇 등을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한다.
- (2) 이 의식은 위생적인 정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정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참조 ㉑1).
- (3)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신성시하여 철저히 지켰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다룬 소할서(the book of Sohar)에는 '손 씻기를 대만히 하는 것은 현세 및 내세에 벌을 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위의 주장을 잘 대변해 준다.
- (4) 여기서 우리는 형식만 남은 그들의 행위는 무시하더라도 그 근본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정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참조, 마 5:8; 딤후 1:5; 5:22; 벰전 1:22).

8. 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 (5절)

- Ⓐ (1) 유대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
- (2) 이것은 비록 그들이 정중한 태도로 던지는 질문이지만 제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께 책임을 추궁하는 성격이 짙다. 그리고 그들의 추궁 목적은 예수를 멸망시키려는 데 있었다.
- (3) 그들은 마치 그러한 의식 자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더라도 한듯이 의식을 신봉하였다. 그들은 외적인 정결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내적인 정결에는 무관심했다.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자들의 맹점이다.
- (4)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에 형식주의가 남아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다 본질적이고 내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참조, 사 1:13; 29:13; 마 23:23; 갈 4:10, 11; 골 2:20; 딤후 3:5).

9. ㉒ 비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6, 7절)

- Ⓐ (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희 외식(外飾)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했다.
- (2)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한 것뿐이었다.
- (3)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에나 예수의 시대에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많았으므로,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예수 당시에도 여전히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 (4)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 이라고 부르셨다. 본서에는 본귀절에 이 말이 단 한번만 사용되었으나 누가복음에는 3회, 마태복음에는 10회나 사용되었다.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쓰이고 있지 않지만 그와 같은 개념은 역시 발견된다(참조, 시 10:7; 잠 26:24, 26).
- (5) '외식하는 자들' 이란 거짓으로 꾸민 덕의 가면 뒤에 자신의 진정한 의도들을 감추거나 감추려고 애쓰는 위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이들에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 (6) 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가르치는 듯이 가장하나 실제로는 '사람의 계명'.

즉 율법을 기초하여 랍비들이 만들어 전해져 내려온 까다롭고 소심한 규칙들과 규례들을 가르치며 후손들에게 전해 주고 있었다(참조, 마 6:2, 5, 16; 23:23-28).

- (7)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러한 정경 의식들 자체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예수께서 비난하신 것은 수단을 목적화하는 사람들이었다. 사실 외적 형식들과 의식들은 근본 정신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디딤들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의 목표물이 되는 순간, 그것들은 울무가 되어 미신으로 빠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 (8) 이와 같이 우리가 늘 깨어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우리도 저지르게 된다. 그러므로 혹 우리의 삶 중에 형식에만 얽매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철저히 제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 떡에 퍼지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참조 8:15; 마 16:6, 11, 12; 고전 5:6; 갈 5:9).

10. ㉠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후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8, 9절)

- ㉠ (1)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 (2)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의 유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위에 올려 놓았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모든 행위를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려고 시도했다. 예컨대 안식일, 여행, 식사, 금식, 씻는 규제, 상거래, 이방인에 대한 관계 등등이 그러한 것들이었다. 마 23:16-18에서 그들의 사소한 일들에 얽매인 궤변적 논리의 한 예를 볼 수 있다.
- (3)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법령을 늘리며 구체적 삶에 그러한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정신(레 19:18; 신 6:4; 미 6:8)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어 버렸다는 예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이다.
- (4)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유전에 적대적이었으며, 옛 것은 무엇이든지 전복시키기 원하셨으므로 예수는 혁명가였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생각이다.
- (5) 10:5-9; 마 5:17, 18 그리고 23:1-3과 같은 귀절들은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가 반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인간이 만든 가르침이나 규례였다.
- (6) 이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권을 두는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어떠한 관습과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참조, 골 2:8).

11. ㉠ 예수께서는 무엇을 예로 들어 당신의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셨는가? (10-13절)

- ㉠ (1) 예수께서는 제 5 계명의 말씀을 예로 들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신의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셨다.
- (2)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외적인 순종 외에도 내적인 사랑과 존경심과 사려 깊은 마음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유전에 따르면 자식이 그 부모에게 드리고자 하였던 것을 고르반(corban)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4)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이라고 해서 그 모두를 성전에 바치겠다고 반드시 약속할 필요는 없었으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였다. 이리하여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치 않아도 될 합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 (5) 실로 어느 시대에서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명제는 '성경이 곧 믿음과 실천에 대한 유일 무이한 법칙'이다.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여 나온 이유는 그들이 성경과 교회의 전통(유전)을 동등시하였기 때문이었다.
- (6)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전통적 입장은 종종 유전을 성경보다 위에 놓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관적인 결정과 해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 없는 해석을 저해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주의해야 하겠다(참조, 고전 11:2; 살후 2:15; 3:6, 7).

12. **㉠**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4-16절)

- ㉠** (1)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다.
- (2)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밝히고자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경멸적인 질문(5절)에 대한 답변이다. 그가 하신 이 말씀은 진정한 더러움이란 육체적, 또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며 영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 (3) 예를 들어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는데, 심지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거나 또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선언한 음식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 (4) 이런 사상은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으로 느껴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사람을 진짜로 더럽히는 것은 안으로부터, 즉 마음과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그 어떤 형식보다 내면적인 것들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정결하더라도 내면적인 정결을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더러운 악취만을 풍기게 된다(참조, 사 59:3; 겔 22:4; 히 12:15; 약 3:6).

13. **㉠** 비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17,18절)

- ㉠** (1) 예수께서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 (2)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너희들 역시 그렇게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도무지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과 의미가 통한다.
- (3)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영적으로 둔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시간을 예수와 함께 보내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 바로 이 점이다.
- (4)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깨달음이 둔하고, 생활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세인의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있다(참조, 엡 4:13).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단순히 지적인 수준에서만 이해하려 들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날마다 그것을 준행함으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치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자(참조, 요 14:26).

14. **㉠** 식물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떤 주장을 하셨는가? (19절)

- ㉠** (1) 예수께서는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고 주장하셨다.
- (2)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의 고기조차도 이 원리에 의하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 (3) 초대 교회 때에도 이런 논쟁이 자주 있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쉽게 이해되어진다(행 10:9-16; 11:5-10).
- (4) 사도 바울도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동일한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전 8:4).
- (5)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정하고 정결한 것에 관한 의식상의 법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폐지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부터인지(골 2:14), 아니면 오순절부터 그렇든지, 그 어느 때부터이든 원리상으로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고 선언된 이상 지금 여기에서도 유효하다.
- (6)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식물이 형제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고전 8:13).

15. ㉠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은 무엇인가? (20-23절)

- ㉠ (1)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흥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狂悖)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 (2) 이 귀절들의 중심적인 의미는 15절의 의미와 동일하다. 누구에게 있어서나 부정함의 근원은 마음이다(21절). 왜냐하면 생활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이러한 것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다.
- (3) 여기에 ‘악한 생각’이라는 서론적인 명칭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살인’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배열은 다소 십계명의 두번째 돌판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 듯하다. ‘악한 생각’ 다음에 열거된 여섯 개의 항목들은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이것들은 악한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다음의 여섯 개의 항목들은 단수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 행동들에 결부된 악한 충동들과 언사들을 묘사하고 있다.
- (4) ‘음란’이란 여기서는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성 범죄를 가리키고 있다. 즉 결혼한 상태든, 그렇지 않은 간에 여하한 종류의 불법적인 성 행위를 말한다(참조, 레 18:6-23; 마 5:32; 19:9; 요 8:41). 따라서 강간, 도색 잡지, 도색 영화를 보는 행위, 혼전 성적 관계, 음탕한 농담을 주고 받는 행위 등도 그러한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 (5) ‘도적질’이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낭비하는 행위, 세금을 포탈(逋脫)하는 것 그리고 정부나 정부의 기관들이 납세자들의 돈을 유효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이다.
- (6) ‘살인’ 또한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그것 자체도 살인이다(마 5:21, 22). 오늘날 우리가 흔히 범하는 살인 중의 하나는 낙태이다(참조, 출 20:13; 레 18:21; 20:2; 왕하 23:10; 렘 32:35; 겔 16:21; 마 7:12; 엡 4:32; 5:1, 2).
- (7) ‘간음’(adultery)은 결혼 관계의 파괴를 의미한다. 결혼한 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자의적으로 성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예수는 정욕에 가득 찬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가르치셨다(마 5:28).
- (8) ‘탐욕’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참조, 창 3:4-6). ‘악독’은 사악하므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에 대

한 총괄적인 표현이다.

- (9) '속임' 은 여기 언급되고 있는 열 두 항목의 사악한 성품 중 제일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음탕' 은 사악한 충동을 지칭하는 표현들이다. '흠기는 눈' 은 질투와 시기를 가리키는 데, 질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며 시기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다.
- (10) '훼손' 의 원문에 쓰인 단어는 '모독' 인데 이는 어떤 사람에 대한 명예 훼손, 비방, 손상, 경멸적이며 무례한 언사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 (11) '교만' 이란 자신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선하고 능력 있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악한 성향을 말하며, '팡패' 는 앞의 다섯 가지 충동들과 말들을 총괄하여 표현하고 있는 용어이다(참조, 마 25:2).
- (12) 이와 같은 더러운 것들은 우리들이 자신을 죽이지 못할 때마다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1) 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16. ㉠ 예수께서 게네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셨는가? (24 절)

- ㉠ (1) 예수께서 게네사렛을 떠나 '두로 지경' 으로 가셨다.
- (2) 이 두로는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하며 이스라엘 땅에서 멀지 않은(수 19:29) 시돈의 남쪽 32km 지점에 있는 성읍이며, 원양 항해술과 공예술이 뛰어난 곳이었다.
- (3) 예수께서 왜 갈릴리를 떠나 이방 지역에까지 가셨는가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으나 추측건대 헤롯 안디바가 그에게 악의를 품고 있었으며(6:14, 16; 눅 13:31),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4) 또한 임박한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며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그 자신은 안정과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 (5) 그러나 두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와 접촉한 바 있었고 그에 관하여 들은 바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동안 알려지지 않은 채로 계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둔 기간은 곧 끝났고, 그는 여기서도 같은 사역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다.
- (6)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것은 정결하고 부정한 '식품' 의 구분을 없애 버리신 예수께서(7:1-23) 곧 이어 부정하고 정결한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셨다는 사실이다(참조, 행 10:1-11).
- (7) 이처럼 예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제한된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활동하셨다. 그렇기에 당신은 인습과 문화와 생활의 차이로 형성된 담을 무너뜨리시고 친히 인류가 하나이며 모든 인류는 필연적으로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17. ㉠ 누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나아왔는가? (25, 26 절)

- ㉠ (1) 더러운 귀신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 (2)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a Greek), 즉 이교도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이방인이었으며, 북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리비아의 베니게와는 다른 시리아 지방에 속한 베니게 사람, 즉 수로보니게인이었다.
- (3) 당시 예수의 활동 무대가 주로 유대 지역이었으므로 이방인인 그녀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음은 놀라운 일이다.
- (4) 그녀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린 행위는 그녀의 겸손, 존경심, 순종, 열망 등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 (5) 우리는 이 여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다. 겸손한 자세로 주께 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자(참조, 마 7:7-11; 21:22; 눅 18:10-14).

18. **㉠** 이방 여인의 간구에 대해 예수께서는 무엇이라 답변하셨는가? (27절)

- ㉠** (1)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자녀’와 ‘개’는 특권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지위 간의 대조이다.
- (3) 그러나 이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다. ‘먼저’ (헬, 프로톤)라는 말이 삽입된 것이 그 좋은 증거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만이 누리는 특권이 한때뿐임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이 슬픔에 잠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적으로 모른 채 하시는 양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하셨다.
- (4)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녀의 믿음은 예수께서 그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할 만큼 강했다. 그 여인은 예수께서 표면에 나타내 주시는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지지 않는 예수의 사랑과 은유함과 자비로움을 더 강하게 느꼈던 것이다(참조, 롬 8:35, 36; 갈 2:20).

19. **㉠** 예수의 단호한 답변을 들은 여인은 무슨 말을 하였는가? (28절)

- ㉠** (1) 여인은 예수의 모욕하는 듯한 대답을 듣고 말하기를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했다.
- (2) 이 여인의 대답은 참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 여인은 ‘주여 옳소이다마는’이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인정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은혜를 누리는 데서 제외된다는 생각은 단호히 거부하였다. ‘주여 바로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는 있습니다.’
- (3)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지상에서의 사역이 전적으로 그리고 그 어떠한 예외도 없이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 (4) 만일 예수께서 선언하신 원리가 전혀 예외가 없고 그 원리가 융통성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께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어떻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주위에 있던 무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는가? (마 8:10-12)
- (5) 또 어떻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 해 여섯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니라’ (눅 4:25-27)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는가?
- (6) 또한 예수께서 어떻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었겠으며, 마 15:31에서처럼 어떻게 두로를 떠난 이후로 무리 중의 많은 이방인들을 치료하실 수 있었겠는가?
- (7) 율법 시대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참조, 시 147:20; 사 5:4; 암 3:2).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참조, 롬 9:6-13; 갈 6:16).

20. ㉠ 여인의 겸손하고도 끈기 있는 간구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29, 30절)

- ㉠ (1) 여인의 태도와 말에 만족하신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이 돌아가 본 결과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 (2)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녀의 재치 있고 영리한 대답 뿐 아니라 그녀의 믿음 곧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녀의 소망과 순전하고 온화한 그녀의 사랑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게 나타난 그 근본적인 덕을 칭찬하신 것이었다.
- (3)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마 15:28)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고, 본서에는 ‘말 또는 진술’에 대해 칭찬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여인이 ‘말’로써 그녀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기에 그 양자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 (4) 무엇보다도 믿음을 기뻐하시는 예수께서는 그녀의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는 또 한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다. 즉 예수의 말씀한 마디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보지 않고도 완전히 낫게 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예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요 20:29)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매사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주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소원들을 반드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참조, 요 10:26-29; 롬 5:1; 엡 1:3).

21. ㉠ 예수의 이방 지역의 여행 경로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31절).

- ㉠ (1)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이방인의 지역에서 또 한번의 병을 치료한 경우이며 이 앞의 이야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 (2) 예수의 여행로를 지리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예수는 두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시돈을 통과하여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가 헤롯 빌립의 영토를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이르러 데가볼리(Decapolis) 지역으로 들어갔다.
- (3)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하여 마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알 수 없다.

22. ㉠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려와서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 예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33, 34절)

- ㉠ (1) 예수께서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마 그 귀먹고 어눌한 자가 좀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고(참조, 5:37; 눅 8:51),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 (2) 그가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손을 얹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며, 그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단 한 마디로도 그 병자를 치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3) 그러나 외적인 행동이 유익하다고 생각될 경우 그는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셨다. 그러므로 양 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그의 귀가 열릴 것임을 가리키고 혀에 침을 바른 것은 그의 혀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임을 가리키는 듯 싶다(참조, 8:23; 요 9:6).
- (4)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신 것은 그의 도움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참조, 시 25:15; 121:1; 123:1, 2; 사 64:7; 요 11:41; 17:1; 행 8:55).
- (5) 그리고 예수께서 탄식(嘆息)하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의 처지를 마음속 깊이 동정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는 행위이다. 예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마지못해 고치지

는 앉으셨다. 언제나 자신의 자비로운 사역에 그의 가지신 바 모든 것을 쏟아 쏟으셨기 때문이다(참조, 1:41;6:34;마8:17;9:36;눅7:13;히4:14-16).

- (6) 또한 예수께서는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아람어로서 '열려라' (Be opened) 라는 뜻인데 아마도 그 사람 전체, 즉 그의 귀와 혀와 지각과 반응 모두를 향한 의침이었을 것이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시는 주를 늘 찾아야 하고 그 품에 의지해야 한다.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행통하게 하실 것이다(참조, 시5:11;22:4,5;25:2,3;31:19;32:10;40:4;73:28;잠3:5,6;사57:13).

23. ㉠ 예수의 치유 행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35절)

- ㉠ (1) 예수의 일련의 치유 행위 결과 그 병자의 귀가 열리고 혀의 멧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 (2) 이것은 점진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되어졌다. 혀가 풀렸다는 말은 보다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던 그 무엇이 갑자기 풀렸고, 그리하여 이전에는 귀먹고 어눌했던 자가 이제는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 (3)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치유자이시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전무 후무한 의사이시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내어 놓을 때 치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참조, 출15:26;왕하8:29;대하22:6;사58:8;렘30:17;33:6;말4:2).

24. ㉠ 예수께서 모인 무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36, 37절)

- ㉠ (1) 예수께서는 귀먹고 어눌한 자가 치유받을 때 주위에 있던 무리에게 아무에게라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경계하는 말을 하셨다.
- (2) 그가 이적을 행하신 곳이 유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 것을 경계한 이유는 아마 1:44에서처럼 자신이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 잘못 소문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대적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그를 죽이고자 마음먹고 있었으나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참조, 10:45;14:24).
- (3) 그러나 그 경계는 지켜지지 않았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그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 (4) 때때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실수를 한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으로 한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는 사도 바울이 사울일 적에 스테반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이다(참조, 54-60절;8:1-3).
- (5)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참조, 행21:14;롬1:10;2:18;엡6:6;골4:12;약4:13-15;벧전4:2;요일5:14).

본장의 요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4절).

제 8 장 공생애 후기 갈릴리를

중심한 예수의 사역

단락구분 1-10 4천 명을 먹이시다 / 11-13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다 / 14-21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 경계하시다 / 22-26 벳새다에서 소경을 고치시다 / 27-30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다 / 31-33 당신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예언하시다 / 34-38 당신을 따르는 자의 각오에 대해 말씀하시다

1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 내가 무리됨 볼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3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4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5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6 예수께서 무리됨 명하시라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7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시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8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9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혼여 보내시고

10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1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들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3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14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딱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15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대

16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하거늘

17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19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니 가로되 열 둘이니라

20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니 가로되 일곱이니라

21 가라사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22 벳새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음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니라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26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음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27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뱃길로 여러 마일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29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0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31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32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은 하시니 베드로가 예

수를 붙들고 간하매

33 예수께서 들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쫓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3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

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1. ㉠ 본장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어느 시기에 발생했는가?

- ㉠ (1) 예수께서 갈릴리 전도 후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격렬한 배척을 받으시고 난 후 갈릴리를 떠나 이방 지역으로 가서서 사역하셨으나,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잠깐 돌아오셔서 사역하시다가 또다시 갈릴리를 떠나신 전후로 해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 (2) 다시 말해서 먼저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께서는 4천 명의 무리를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으며, 바리새인들의 힐난(詰難)과 표적의 요구에 대해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 가르치셨다. 한편 벳새다에 도착한 예수께서는 눈먼 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다.
- (3) 그 일 후에 예수께서는 또다시 갈릴리를 떠나 북방으로 후퇴하시면서 무리보다는 제자들을 주로 상대하셨다. 이때가 그의 공생애 전체를 결산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계기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게 될 수난을 처음으로 예고하신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2. ㉠ 예수께서 4천 명을 먹이신 이적과 오병 이어의 이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1-10절)

- ㉠ (1) 예수께서 4천 명을 먹이신 이적과 오병 이어의 이적 사이에는 대단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건들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만일 본장의 사건이 6:34-44의 오병 이어의 이적과 다른 이적이라면 제자들이 첫번째 이적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고(8:4) 생각한다.
- (2) 그러나 이 두 이적이 서로 다른 기사라고 보는 견해를 지지해 주는 강력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두 기사들에 사용된 언어는 비록 유사하기는 하지만 중대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본기사에는 무리가 3일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언급이 있으나 6장에는 그러한 말이 없다.
- (3) 또한 여기서는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반면, 6장에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4천 명을 먹이셨는데, 6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셨다.
- (4) 둘째, 예수께서 분명히 두 번 무리를 먹인 사실을 언급하시고 있기 때문이다(18-21절). 세째, 절망에 가까운 상황에서의 제자들의 대답은 거의 언제나 동일하였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항상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예수가 이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할 정도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5)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본기사와 오병 이어의 기사가 확실히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두 기사들간의 차이점들은 서로 다른 두 상황에서 예수가 무리를 먹이셨음을 잘 말해 준다. 마가 자신도 이 두 사건들을 서로 다른 사건으로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3. ㉠ 예수께서 4천 명을 먹이신 근본 동기는 무엇인가? (1-3절)

- ㉠ (1) 예수께서 4천 명을 먹이신 근본 동기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당신의 연민이었다.

- (2) 원근 각처에서 물려든 무리는 데가불리 지역에서 사흘 동안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3일 동안 함께 있었으므로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렸는데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동정하셨던 것이다.
- (3) 그는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보셨을 때, 그들이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영적인 양식이 굶주리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끼셨다. 이러한 연민 때문에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러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참조, 요 10:18; 롬 5:8; 엠 5:2; 벰전 2:24; 3:18).
- (4) 지금도 주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신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는 이전처럼 오늘날에도 무리를 굶어 살피시되 한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낱알이 살피신다는 사실이다. 즉 그분은 나를 감찰하시며, 나의 궁핍함을 알고 계시며, 나에게 연민을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참조, 롬 8:35, 37; 고후 5:13, 14; 갈 2:20).
- (5)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공동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일 대 일의 만남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

4. **㉠**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였는가? (4절)

- ㉠** (1)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라고 말하였다.
- (2) 여기 나타난 제자들의 대답은 그들이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일을 완전히 망각했음을 보여 준다.
- (3)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에는 주위에 있는 촌과 마을에서 음식을 구할 수도 있었으므로 상황이 보다 유리하였으나 (6:36), 이번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왜냐하면 데가불리는 황폐한 곳이며 그야말로 광야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반드시 깨우쳐야 할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것이다.
- (4)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에 대처하여 무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그 어려움을 실감하고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는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이적을 행하셨다.
- (5) 이것은 우리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곳이며,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 것이다 (참조, 출 14:10-16; 왕상 19:1-8).

5. **㉠**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무슨 질문을 하셨는가? (5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
- (2)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들을 찾아내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시려는 의도에서였다.
- (3)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영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의미에서도 맞는 말이다.
- (4) 또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며 불필요한 것으로 지나쳐 버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
- (5) 그래서 우리 주위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고통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우리를 도와 줄 어떤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때에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6) 이런 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시험과 환난 같은 사단의 계교가 너무 커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보일 때가 있다. 그래서 자포 자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 우리는 주의 질문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는 너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힘도 전혀 없느냐?' (참조, 사 41:9, 10; 43:1-3)

6. **㉠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6절)**

㉠ (1)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땅에 앉도록 명령하셨다.

(2) 그의 능력은 작은 양의 음식으로도 많은 무리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많은 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주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앉기를 명하셨던 것이다.

(3) 여기에는 바쁘고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값진 교훈이 있다. 사실상 우리에게 충분한 마음의 안정과 보다 더 조용하고 침착하고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4) 우리가 만일 주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땅에 앉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주의 은총은 질서 있고, 조용하고 안정되어 있고 겸허한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참조, 고전 14:33).

7. **㉠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8절)**

㉠ (1)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내버리지 않고 일곱 광주리에 거두게 하셨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즉 영적인 것이든 현세적인 것이든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시려는 예수의 성실성을 잘 대변해 준다.

(3)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우리에게 아주 관대하게 선물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이 낭비되지 않고 잘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조금의 낭비함도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 그리고 기타 모든 것들을 선한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참조, 잠 12:27; 18:9; 21:20; 눅 15:13; 16:1; 요 6:12).

8. **㉠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11절)**

㉠ (1)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온 표적이 아닌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했다.

(2) 그들은 예수의 '능력 있는 행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의 능력 있는 행동이 사단의 힘을 빌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3:22).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수많은 확실한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3) 그리하여 그들은 급기야 예수께 '하늘에서 온 표적'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들이 이것을 요구한 목적은 예수를 시험하여서 그로 하여금 군중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하려는 악한 것이었다.

(4) 여기서 '시험하다'는 동사의 원어는 (페이라조)로서 문맥상 '유혹하다'(tempt)로 번역되어야 한다. 1:13에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역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5)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표적'(헬, 세메이온)이란 단어는 신적인 권위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 정도로 강력한 외적인 증거를 표현할 때 공판 복음서 기자들이 사용했던 단어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헬, 두나메이스) 이상의 증거를 요구했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6)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들이다.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였다. 우리들은 어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는 아직도 많은 불신앙적 요소가 남아 있지는 않는가?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그곳에서 돌아서야 하지 않겠는가? (참조, 마 13:58; 눅 16:23-31; 요 3:18, 19; 롬 11:20; 살전 2:14-16; 살후 1:8, 9)

9. **㉠**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태도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가? (12절)

- ㉠** (1) 먼저 예수께서는 깊이 탄식하셨다. 여기에서 ‘탄식하다’라는 말이 사용된 단어의 원형은 <아나스테나조>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이다.
- (2) 이 말은 영적인 특권 때문에 마땅히 예수를 누구보다도 더 잘 믿었어야 했던 이들이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일 때 예수께서 느끼셔야 했던 슬픔과 실망을 나타내 준다.
- (3)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거절의 말씀을 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 (4) 문자적으로 보면 이 헬라이어에는 히브리 생략법이 사용되어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즉 ‘내가 그런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는 말이 생략되어 단호한 거부를 뜻한다.
- (5) 표적을 달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는 표적이 인간의 눈에는 이해하기 힘든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박힌 주(主)’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 (6) 그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분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뿐이다. 믿음이란 어떤 증거나 표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증거나 표적에만 확신의 근거를 두려 한다면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되지 못한 것이다(참조, 고후 5:7; 히 11:1-3).
- (7) 참고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 랑게(J. P. Lange)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첫째, 보이는 세계에 대한 신적인 인내심의 발로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모든 인내심의 집약적인 표현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은 우리들의 슬픔과 인내에 동참하신다는 선언이다.

10.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경계(警戒)하셨는가? (15절)

- ㉠** (1) 예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셨다.
- (2) 성경에서 누룩은 일반적으로 악을 상징한다.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빵 덩어리가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 (3)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특별히 예수의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헤롯의 누룩’이 언급된 까닭은 그도 역시 표적을 구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눅 23:8).
- (4)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경고를 하심으로써 제자들 역시 헤롯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도록 경고하고 계신 것이다.
- (5) 그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소유하고 계신 권세는 어떤 표적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해시키고자 애쓰셨던 것이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롬 10:9, 10; 고전 16:13; 골 1:23; 딤후 1:19; 딤후 1:12; 히 10:39).

11. **㉠** 예수의 경계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16절)

- ㉠** (1) 예수의 비유를 통한 영적 가르침에 대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주의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깊이 숙고하지도 못했다.
- (2)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들에게 딱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였다.

- (3)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에게 충분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영적인 깨달음을 풍성하게 체험하지 못한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이런 실수를 한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서도 종종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거나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참조, 눅 22:32).

12. **㉠**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떠한 응답을 하셨는가? (17-21절)

- ㉠** (1) 예수께서는 떡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셨다.
- (2)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18절) '외인'(4:11, 12)과 같았다. 그들은 오직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없었다.
- (3) 즉 그들은 떡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 (4)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두 번씩이나 충분한 떡을 제공하셨던 기적을 기억해야만 했다. 그랬었더라면 그들은 몇 개의 떡 조각을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 앞에서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책망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참조, 렘 5:21; 마 13:13).
- (5)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안(靈眼)이 어두워져서 육적인 일만 도모(圖謀)할 수밖에 없으며 예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씀과 가르침에 기도로서 거할 때 우리들의 믿음은 놀라움도 성장하게 된다(참조, 엠 4:13, 15; 히 5:14; 벰전 2:2).

13. **㉠**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신 곳은 어디인가? (22, 23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북동쪽의 '벳새다'에 도착하셨다. 이곳은 예수께서 오병 이여의 이적을 행하신 '벳새다 율리아스'(Bethsaida Julias)였다(눅 9:10).
- (2) 마가는 이곳을 '마을'(village)이라고 부르고 있고, 누가는 눅 9:10에서 이곳을 '고을'(city)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두 단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모순이 있는 듯이 보인다.
- (3) 그러나 이 모순되는 듯한 점에는 이상히 여기거나 동요될 만한 점이 없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벳새다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으나 후에 분봉왕 빌립(눅 3:1)이 확장시키고 꾸민 것이다.
- (4) 그래서 벳새다가 성읍이 되자 아구스도 황제의 딸인 율리아(Julia)를 기념하여 그곳을 벳새다 율리아스(Bethsaida Julias)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곳은 오랫동안 '마을'에 불과했기 때문에 큰 도시로 번창한 뒤에도 얼마 동안 계속해서 '마을'이라고 불리워졌다는 것은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

14. **㉠** 예수께서 고침을 받기 원하는 소경에게 하신 행위는 어떠한가? (23절)

- ㉠** (1) 첫째로, 예수께서는 소경의 손을 붙드셨다. 그 소경에게는 인도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이 사람에게 부어 주시고자 그의 손을 붙잡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몸소 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 것이다.
- (2) 둘째로, 예수께서는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어째서 이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다르다.
- (3) 예수께서 사람들을 피해 비밀히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은 단 세 군데 언급되어 있는데

모두 질병을 치유하신 사건에 해당된다. 죽은 아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 그랬고(5: 35-43),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 그러했다(7:31-37). 또 한 가지가 바로 본문의 사건이다.

- (4) 아마도 예수께서 이러신 이유는 두번째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로 하여금 좀더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려 함이 있을 것이다.
- (5) 세째로, 예수께서는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은 치유의 권능이 자기에게서 나간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함이고, 안수하신 것은 그에게 소망을 주는 일종의 표징이다.
- (6) 이상과 같이 살펴본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복음서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바대로, 소경을 고치신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 (7)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사랑과 지혜로써 모든 사람들을 각각의 경우마다 개별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참조, 10:46-52; 마9:27-31; 요9장).

15. **㉠**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신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24, 25절)

- ㉠** (1) 본문의 사건은 유일하게 본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하셨다는 사실이다.
- (2) 첫번째 치료에서 그는 사물을 명확하게 볼 정도로 완전하게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 보이느냐'는 예수의 질문에 '사람들이 보이나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다' 라고 대답을 하였던 것이다.
- (3)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사람과 나무의 모습을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예수께서 두번째 안수를 하셨을 때 비로소 그가 완전한 치유를 받아 만물을 밝히보게 되었다. 여기서 '밝히' (clearly)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이어 (테라우고스)는 '멀리에서도 분명히' (clearly at a distance)를 의미하는 말이다.
- (5)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다른 경우에서처럼 단 한번에 질병을 치유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인 치유를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마가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칼빈의 말을 빌린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기적을 행함에 있어서 고정된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 (6) 아니면 아마도 특별히 그가 자기에게 부여되고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의 본질을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6. **㉠** 예수께서는 완전히 치유함을 받은 소경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6절)

- ㉠** (1) 예수께서는 두 번에 걸친 치료로 완쾌함을 입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그에게 '마음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엄한 경계의 말씀을 하셨다.
- (2) 이 귀결로 보아 뱃새다는 이 소경의 고향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사실을 그 마을에 전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자 했을 것이다.
- (3)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흥분이나 유발시키며 저들의 잘못된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전(全)목적이며 이적은 그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었다.
- (4) 예수께서 그를 곧장 집으로 가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크나큰 축복을 목상하며 또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의 가장 가깝고 친한 이웃들에게 되어진 일

들을 간증하게 하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배려이었을 것이다 (참조, 5:19).

- (5) 이처럼 우리가 예수께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해야 할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 모든 감격과 기쁨을 절제하여 스스로 묵상해야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어떤 행동과 말을 하든지 우선 그것이 예수께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7. ㉠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 (27절).

- ㉠ (1) 가이사라 빌립보는 팔레스틴 북부 요단 강의 수원(水源)인 헤르몬 산의 남서쪽 기슭에 있던 성읍이다.
- (2) 이곳은 전략적 요지로서 B. C. 20년에 황제 아구스도는 이곳을 헤롯 왕에게 주었다. 헤롯은 여기에 대리석의 신전을 세워 아구스도에게 다시 바쳤다.
- (3) B. C. 4년에 헤롯이 죽은 후 이곳을 그의 아들 빌립이 다스렸다. 빌립 왕은 이 성읍을 확장하여 아름답게 꾸며 황제 디베로 가이사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하였다.
- (4) 주민들은 대개가 이방인들이었으며 헬라 및 로마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도시이며 그 당시 부근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 (5) 이곳이 27절과 마 16:13에 나오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소로서 알려져 있다.

18. ㉠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공관 복음의 각 기록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27-30절).

- ㉠ (1) 이 사건에 대한 마가의 기록은 마태, 누가의 기록과 각기 대조점이 있는 반면에 유사점도 놀라울 만큼 많다.
- (2)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각 복음서간의 유사점

마 가	마 태	누 가
27절	16 : 13	9 : 18
28절	16 : 14	9 : 19
29a절	16 : 15	9 : 20a
29b절	16 : 16	9 : 20b
30절	16 : 20	9 : 21

- (3) 마 16:17-19를 제외하고는 세 가지 모두 사건의 경과가 동일하며, 심지어는 어법까지도 상당한 정도로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세 기사 사이에 저작상의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설명인 것 같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어서 복음서 기자들이 단순한 필기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복음서 기자들은 각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록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문체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마 6:17-19을 제외하고는 미세한 것들이다.

19. ㉠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자로 보았는가? (27, 28절)

- ㉠ (1)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 보았다.
- (2)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 (3)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다는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그 사상은 3:1과 4:5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엘리야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자였을 뿐이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니었다. 따라서 예수를 엘리야로 보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참조, 6:14, 15).
- (4) '선지자 중의 하나'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는 말보다 훨씬 더 잘못된 견해

이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일 뿐이랴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생각인가!

- (5) 귀신들조차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있었으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외쳤다(1:24; 3:11; 5:7). 그런데도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로니컬하다.
- (6) 이처럼 불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설사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더라도 행위로 부인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불신앙적 요소가 남아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참조, 7:6; 신 10:12; 전 12:13; 호 6:6; 마 7:21; 딤후 1:16).

20. **㉠** 예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29절)

- ㉠** (1) 베드로는 예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 (2) 베드로의 이 대답은 베드로 자신만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 두 제자들의 일치된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딘 상태에서 예수의 책망을 받던 제자들의 모습(17-21절)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 (3) 헬라이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선지자 또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 받은 자, 즉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을 가리켜 사용되었다(참조, 출 29:7, 21; 삼상 10:1, 6; 16:13; 삼하 1:14, 16).
- (4)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은 자,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자, 위탁받은 일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부여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 (5) 그런데 구약 시대 말기에 가서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의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고 능력을 부여받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단 9:25, 26).
- (6) 솔로몬의 시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앞으로 오실 통치자는 또다시 다윗 왕국을 일으켜 원래의 번영과 영화를 회복시키실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칭호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 (7) 아마도 메시아라는 말 속에 포함된 그와 같은 의미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칭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본서에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일곱 번 등장하는데 그중 세 번만이 예수의 말씀 가운데 나온다(9:41; 12:35; 13:21). 그리고 이 세 번의 경우에도 예수께서는 그 칭호를 자신을 가리켜 사용하지 않으셨다.
- (8)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메시아직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아직 메시아의 고난과 사람들에게 의하여 거부당함과 죽움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워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9)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의 칭찬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마 16:17에 의하면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
- (10) 오늘날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담대하고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고전 12:3).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늘

명하게 말하였다(엡 2:8, 9).

21. **㉠**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30절)
- ㉠** (1)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 (2) 이는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그러나 아직 예수가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공포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같은 경계의 말씀을 하셨다.
- (4)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메시아관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메시아직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워야만 했기 때문이다(참조, 행 2:36).
22. **㉠** 예수께서는 자신의 수난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31절)
- ㉠** (1) 예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 (2)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는데, 이 칭호는 4복음서를 통해 볼 때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아주 즐겨 사용하시는 칭호이다. 사용된 총 회수는 81회인데 이 중 2:10, 28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 (3) ‘인자’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쓰였다.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인자’(Son of man)는 단 순히 ‘사람’을 의미하고 있으며(시 8:4;80:17), 에스겔서에서 ‘인자’라는 말은 91회나 등장하는데(참조, 겔 3:1, 10;8:5;21:2;35:2;47:6)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실 때 예언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 (4) 그러나 신약에 나온 ‘인자’라는 칭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 7:13, 14의 말씀을 참조해야 한다. 이 귀절에서는 인자를 종말 때 이 땅 위에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자의 모습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8:38;13:26;14:62)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 (5) 그러나 이 칭호에는 부가적인 의미가 곁들여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인자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8:31;9:9, 12, 31;10:33, 45; 14:21, 41). 다른 공관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본서에 나타난 인자 개념 역시 종말에 나타날 영광에 둘러싸인 인자와 고난받아 죽는 인자의 모습이 혼합되어 있다.
- (6)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받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가르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예수께서는 ‘인자’라는 말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로 간주하셨음이 틀림없다.
- (7) 또 그는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거부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장로’란 평민 출신으로서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으며, ‘대제사장들’이란 가야바(Gaiaphas)라 불리는 대제사장과 안나스(Annas)라 불리는 명예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대제사장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칭호였다.
- (8) 그리고 ‘서기관’은 전문적인 율법 학자 혹은 율법 기록자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대법정인 산헤드린을 구성하였다.
- (9) 예수의 이 말씀은 본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본서에 ‘메시아적 비밀’이 드러나 있는 곳은 이 귀절 한 곳뿐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메시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버림 받음

과 죽음이 뒤따라야만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직은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 (10)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는 제쳐놓고 오직 영광에 싸인 메시아만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예수가 메시아임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메시아직 사역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참조, 마21:1-9). 그러나 제자들에게만은 이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제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

23. **㉠**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32절)

- ㉠** (1)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
- (2)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메시아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당시 유행하던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범주 내에서밖에는 메시아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힘의 상징이지 사람들에 의해 고난받다가 죽는 약한 메시아는 아니었다.
- (3)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諫)하였다. ‘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 이는 비난이나 책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마태는 이것을 좀더 상세히 언급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 16:22).
- (4)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만류는 육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의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 (5) 이 같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잘못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된다. 첫째,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연약함과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때로는 우리 형제를 유혹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셋째, 우리는 환경이 어떠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참조, 갈 2:20; 골 3:1, 2).

24. **㉠** 베드로의 만류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가? (33절)

- ㉠** (1)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워 만류하는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 (2) 베드로의 만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힘있는 것이었다. 그는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하여 그의 관심을 십자가에서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하여 전에 했던 것과 같이(마 4:8, 9) 또다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계셨던 것이다.
- (3) 사실 인간의 본성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의 형벌은 참으로 잔인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므로 예수께서 필연적으로 겪으셔야 할 과정이었다(참조, 고전 1:18, 23, 24; 히 9:22).
- (4) 때때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일들과 앞으로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보다 이 땅에 속한 일들과 현재의 생활을 더 마음에 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일들보다 사람의 일들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신용, 안락 그리고 안전 등에 마음을 쏟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책망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참조, 눅 16:8; 고후 1:12).

25. **㉠** 예수를 따르는 참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34절)

- Ⓐ (1) 예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오신 자리에서 그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예수를 따르려는 참제자가 걸어야 할 길을 일목 요연하게 잘 지적해 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제자들에게 해당된다.
- (3) 참제자의 길이란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의 욕망 등을 억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다. 이는 이제까지의 삶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삶의 중심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고후 10:5; 빌 3:7-11).
- (4)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슬한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핍박과 순교, 온갖 고통과 슬픔 및 환난을 기꺼이 그리고 확고하게 감수하는 것을 말한다.
- (5) 셋째, 계속적으로 주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주의 가르침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나, 구원을 위해서 그를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주의 생각과 행동을 닮아 가는 삶을 의미한다(참조, 엠 4:13).
- (6) 다시 말해서 주를 따른다는 것은 그를 믿으며(요 3:16) 그 자취를 따르고(벤전 2:21),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엠 4:32-5:2), 주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요 15:14) 총체적인 삶을 의미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마디로 ‘성화(聖化)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7)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를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이다. 비록 성화는 분명히 인간의 책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인 중생의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요 3:3, 5).
- (8)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의 순서이다. 사실상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없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자가 계속적으로 주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 (9)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 길을 걷기 원한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한 중생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한 신앙적 인내심을 가져야만 한다(엠 4:13).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참조, 행 26:20; 고후 5:17; 살전 1:9, 10).
26. Ⓞ 예수께서는 육신의 생명과 영생의 상관 관계에 관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35절)
- Ⓐ (1) 예수께서는 육신의 생명과 영생의 관계에 대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귀절은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를 부인하느냐의 양자 택일의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이다.
- (3) 그는 당시를 부인하는 자가 육적인 생명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종말론적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다. 거꾸로 말해서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써 육적인 생명을 잃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보장받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 (4) 따라서 이 말씀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나 핍박과 환난의 고통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이것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의 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저주와 같다(참조, 고전 1:18).

27. ㉠ 예수께서 영생의 절대적인 가치에 관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36, 37절)

- ㉠ (1) 예수께서는 영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하시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만일 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 (2) 이 말씀은 세상적인 안락을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포기하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은 천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 (3) 세상의 그 어떤 특권과 명예, 쾌락 그리고 재물도 잠깐뿐이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에 불과하다. 더우기 사람이 죽을 때에는 그 어떤 소유물도 가져갈 수 없기에 더 더욱 그러하다.
- (4) 예수께서 34절에서 밝히셨던 참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거나 걷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으면 언제나 갈등과 좌절의 격랑을 헤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 (5) 참고적으로 글로스터와 우스터의 주교였던 후퍼(John Hooper, ?-1555)가 순교당하기 전날 밤에 한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생명은 달고 죽음은 쓰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더욱 달고 영원한 죽음은 더욱 쓴 것이다.'

28. ㉠ '음란(淫亂)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38절)

- ㉠ (1)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란 하나님을 떠나서 참생명을 버리고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에 탐닉(耽溺)하는 타락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를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의미한다.
- (2) 그리고 '부끄러워하면'이라는 말은 곧 아무 상관없이 없기를 바라는 교만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참조, 히 2:11).
- (3)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매우 음란한 상태에 있었다(참조, 사 50:1; 렘 3:8; 13:27; 31:32; 겔 16:32, 35; 호 2:1; 마 12:39; 16:4).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위선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 (4)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그들과 맞서 대적하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당연히 그를 배척하였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염두에 두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5) 이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영원한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다(참조, 살후 1:8, 9).
- (6)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주의 가르치심을 인정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려워서 그것을 드러내어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것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임을 명심하자(참조, 롬 2:6; 갈 4:8-11).

본장의 요점

'사람이 만일 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6절).

제 9 장 공생애 말기에 제자들의 양육에 중점을 두시다

단락구분 1-8 산에서 변모(變貌) 하시다 / 9-13 엘리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 14-29 병어리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 30-32 자신의 수난과 부활에 대해 두번째 예언하시다 / 33-37 겹손에 관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시다 / 38-42 다른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다 / 43-50 범 죄치 말 것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1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2 몇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3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탈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4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5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람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7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던라

9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0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11 이에 예수께 물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2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함을 당하리라 하였느냐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리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4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돌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15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16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17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병어리 귀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희를 잠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0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21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22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25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 귀신이 소리치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30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32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33 가벼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나 하시되
 34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나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35 예수께서 앉으사 열 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6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38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

하므로 금하였나이다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똘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오리라
 43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끼이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니라
 44 (없음)
 45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오니라
 46 (없음)
 47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오니라
 48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무리를 중심으로 가르치시던 초기의 사역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 (2) 변화산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화한 사건의 근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1-13절). 이 사건은 예수의 가르침, 즉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8:31-38)을 확증해 주고 있다.
- (3) 예수께서 당신이 위탁받은 메시아직의 비밀을 제자들 앞에 갑자기 드러내신 이후 옛새가 지났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더 확실히 보여 주려고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셨던 것이다.
- (4) 또한 예수께서는 병어리 귀신들린 아이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관하여 가르치셨다(14-29절).
- (5)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19절)라는 예수의 고뇌에 찬 말씀을 볼 때 주께서는 점점 가까이 오는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제자들에게 또 한번 자신이 당하게 될 수욕에 관한 예언을 하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30-32절).

- (6)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 (30-32절)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노중에서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광과 능력에 싸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겸손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33-37절).
- (7)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데 대해 일종의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자 싫어하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을 베풀 것을 가르치셨다 (38-41절).
- (8) 본장의 마지막 부분 (42-50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의 위험과, 우리의 지체 중 하나의 범죄가 우리의 전신에 대한 범죄와 형벌의 기회가 된다는 것에 대해 가르치셨다.
- (9) 이처럼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오직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에다 중점을 두셨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참조, 엡 4:13-15; 딤후 3:14-17).

2. ㉠ 예수께서 본장의 서두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절)

- ㉠ (1) 예수께서 본장의 서두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죽기 전에'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죽음을 맛보기 전에'인데, 이 '죽음을 맛보다' (taste death)라는 은유적인 표현은 예수를 위해 핍박당하다가 죽는 것을 가리킨다.
- (3) 이런 순교를 당하는 자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제자들의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복음서 어느 곳에도 예수께서 제자들 생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기 때문이다.
- (4) 오히려 이 말씀은 예표적인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본장의 서두에 언급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순간적인 현현(顯現)을 의미하는 변화산상의 이적 (2-8절)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8:38)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3. ㉠ 변화산의 이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8절)

- ㉠ (1) 첫째, 변화산에서의 예수의 변모는 그의 재림을 예시하고 보장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2)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신성(神性)을 가리고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 (빌 2:5-8).
- (3) 그러므로 이것은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 예수만을 보지 말고 그의 참모습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 (4) 둘째, 그것은 새 언약의 시작을 암시하는 사건이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복음의 언약이다.
- (5) 셋째,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 이 시점으로부터 임종하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위가 점점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그의 제사장적 직위는 현저해진다 (참조, 히 7:25-28; 8:1-6).

4. ㉠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높은 산'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2절)

- ㉠ (1) 본문에는 '높은 산'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 산이 다불 산이라고 하는데, 이 다불 산은 이스라엘 평야의 가운데쯤에 위치한 성채를 세울 만한 요새도 못 되는 등그런 산이다.
- (2) 그러나 우리는 '높은 산'을 다불 산으로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산이 해발 560m에 불과한 조그마한 산일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산 정상에는 요새화된 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 (3) 그렇다면 이 '높은 산'은 헤르몬 산일 가능성이 많다. 이 산은 해발 약 2,770m이며, 흰 눈으로 덮인 산꼭대기와 그 웅장한 위용 등 인상적인 광경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태고적부터 성산(聖山)으로 취급되었다.
- (4) 또한 이 산은 바로 전에 기록된 사건(8:31-38)이 일어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높은 산'을 헤르몬 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5. ㉡ 예수와 그의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절)

- ㉠ (1) 그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떨래하는 자가 그렇게 회개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회어졌다.
- (2) 여기서 '변형'이라는 단어의 헬라이어(메타모르포시스)는 단순한 변질을 의미하지 않고 육(肉)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는 일을 의미한다(참조, 롬12:2; 고후3:18). 다시 말해서 본질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영광의 모습으로 보았다(벧후1:16).
- (3) 그리고 그 옷의 광채는 밖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예수 자신에게서 나온 신성의 광채였다. 이 광채는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이다(요1:1-18). '세상에서 떨래하는 자'란 당시 로마의 세계에 번창하였던 세탁업에 종사하던 자를 가리킨 말이다.

6. ㉢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누구와 말씀을 나누셨는가? (4절)

- ㉠ (1) 예수께서 모습이 변형되신 후에 '엘리아'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
- (2) '엘리아'는 예언자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으므로 그들은 거기 있었다. 이들은 모두 메시아의 선구자요 수행자였다. 그들은 율법과 예언에 선포된 이 세상의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타났다.
- (3)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다(참조, 마5:17).
- (4) 또한 모세와 엘리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세는 주의 재림 때 무덤에서 나오게 될 죽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반면 엘리아는 주의 재림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나타낸다.
- (5) 누가복음(9:31)에는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의 별세'를 말했는데,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뜻한다.
- (6) 더 자세한 내용은 마17장 ㉠ 6-8을 참조하라.

7. ㉣ 베드로는 예수께 무엇을 제안하였는가? (5, 6절)

- ㉠ (1) 예수의 모습이 변화하고, 모세와 엘리아로 더불어 대화 나누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草幕)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예수께 말하였다.
- (2) 이 말은 그가 크게 감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동시에 그가 아직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 그래서 그는 세 개의 초막을 세움으로써 그가 경험하고 있는 황홀경을 더욱 연장시키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 (3) 이에 대해 레인(Lane)은 '베드로가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새 성막을 세우고자 한 사실은 그가 제 2의 출애굽(the second exodus, 인류 구원)이 성취되었고 진정한 안식일의 휴식(the Sabbath rest)이 달성되었다고 착각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하였다.
- (4) 사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써만 인류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즉 베드로는 메시아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 (5) 또 그는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었을 뿐 바로 그 순간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형제들의 필요에 무관심하기 쉽고 잊기 쉽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 (6)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오히려 '육신에 거하는 것'을 기꺼이 원하였다고 고백하였다(빌 1:21-25). 이런 바울의 자세를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
- (7) 한편 베드로가 예수를 부를 때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 '나의 큰 자'로서 주로 스승을 지칭할 때 사용된 용어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용한 호칭이 각 공관 복음서마다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 볼 만하다.
- (8) 마태복음에는 '주'(Lord)라고 기록되어 있고(마 17:4),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주'(Master)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세 용어는 동의어로 생각되어야 하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각 공관 복음서 기자들은 베드로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은 아랍어를 자기들 나름대로 번역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8. ㉠ 구름 속에서 들려 온 음성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7, 8절)

- (A) (1) 구름 속에서 들려 온 음성의 내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다.
- (2) 여기서 '구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출 16:10; 19:9; 24:15; 33:9; 레 16:2; 민 11:25).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이 들려 왔다.
- (3)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예수의 말씀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복종한다는 것이다(약 1:22-24).
- (4) 칼빈(Calvin)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유일하시고 가장 높으신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하셨던 것이다.
- (5)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필수적이며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단한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3:7-9, 20:4:1:6:4) 대부분 불신앙(6:2-6)과 불순종(1:44, 45), 심지어는 어리석음(5:39, 40)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이 음성을 들음으로 딸미암아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반드시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다.
- (6)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늘 마음 깊이 새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히 11:6),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롬 10:17).

9. ㉠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9, 10절)

- ㉠ (1) 산을 내려오시는 도중 예수께서는 세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체험한 변화 사건을 인자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 (2) 예수의 변화는 인자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변화하신 것과 같은 신비는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 (3) 그들이 이 사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야 변화하셨던 사건을 알리는 것이 타당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 (4) 제자들은 비밀을 지키라는 예수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인자의 부활에 관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의 제자들도 죽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부활에 관해서만 알고 있었지 본 귀절에서 말하는 인자의 부활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 (5) 이를 통하여 볼 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 말씀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 이해하는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 제자들처럼 예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다(참조, 창 6:9-22).

10. ㉠ 제자들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11-13절)

- ㉠ (1) 예수의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10절)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였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께 물어 보지 못하였다. 그 대신 그들은 엘리야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갑자기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변화산의 이적 가운데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으로 인하여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일찍 와서 이 땅 위의 모든 일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서기관들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일 것이다(말 4:5, 6).
- (2) 그러나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야 할 엘리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되신 예수께서는 이미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 (3)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엘리야에 관한 서기관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셨다(12절).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엘리야가 실제로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고 말씀하셨다.
- (4)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는 말은 해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6:17, 27, 28).
- (5)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서기관들의 주장이 옳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예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으리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다(사 52:13-53:12).
- (6)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메시아의 고난을 엘리야의 종말론적 사역과 관련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본귀절들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은 엘리야가 메시아, 즉 인자보다 먼저 와서 그의 종말론적 사역을 완수할지라도 인자는 고난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참조, 히 9:22).

11. ㉠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께서 던지신 첫 질문은 무엇인가? (14-16절)

- Ⓐ (1)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와 내려오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서 서기관들과 심한 논쟁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었다.
- (2) 사연인즉 병어리 귀신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서기관들의 악의에 찬 조롱을 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 (3) 그러던 와중이었으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갑작스런 출현은 가장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5절).
- (4) 흑자는 심히 놀란 이유를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의 영광의 모습이 아직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나 이는 지나친 해석이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변화하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몸에 흔적을 남겨 놓으실 리 없기 때문이다.
- (5)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첫 질문은 그들이 무슨 문제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16절). 이것은 정말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나약함과 그들의 당면한 필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계셨다 (참조, 골 2:3).
- (6)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슬한 장애들을 대할 때마다 풍성한 사랑으로써 도우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확언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 7).

12. Ⓞ 병어리 귀신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7-19절)

- Ⓐ (1) 제자들이 병어리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는 데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탄식 섞인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 (2)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말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외침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실망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 (3)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그 일은 가능했을 것이다 (마 17:20).
- (4)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라는 말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실망한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라는 말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영적인 우둔함에 지치셨으며 비분(悲憤)하고 계심을 암시한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있어 결코 인내심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말은 예수께서 불쾌하고 피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얼마나 열심이셨는지를 잘 보여 준다.
- (6) 예수의 탄식 섞인 이 말씀들은 믿음이 식어져 가고 변질되어 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참믿음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탄식에 귀기울여 참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다 (참조, 눅 18:8).

13. Ⓞ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는 말속에 나타난 아이의 아버지의 신앙은 어떤가? (22절)

- Ⓐ (1)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자기 아들을 도와 주실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께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 (2)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 속에 그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처음에 그가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올 때는 그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텄을 것이다 (18절).
- (3)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느꼈던 실망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는 예수께서 도와 주시기를 원하였으면서도 고침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주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 (4)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실패들을 통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길로 내몰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참조, 엡 1:3-10; 3:16-19; 빌 2:13).

14. ⓐ 아이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23, 24절)

- Ⓐ (1) 확신이 없는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병어리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아이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아이를 치료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 (3)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불신앙 때문이었다. 믿음은 병고침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기 보다는 믿음 자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힘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 (4) 예수의 이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믿음이 결코 확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24절).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 달라고 예수께 간구하게 되었다.
- (5)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앙이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반신 반의(半信半疑)는 결국 불신앙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신뢰만이 참신앙이다. 그런 신앙을 소유한 자는 모든 불가능한 일마저도 할 수 있다 (참조, 빌 4:13).

15. ⓐ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무엇이든 꾸짖었는가? (25-27절)

- Ⓐ (1) 이제까지 예수께서는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적 행하시는 일을 항상 피해 오셨다. 그래서 군중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자 예수께서는 서둘러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향하여 아이에게서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25절).
- (2) 예수에 의해 쫓겨 나게 된 귀신은 크게 소리를 질렀으며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26절). 귀신에 의해 아이에게 가해진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무리가 보기에 아이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다.
- (3)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 있을 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 아이는 곧 일어섰다 (27절). 전혀 살 소망이 없어 보이던 아이가 순간적으로 회복하였는데 이는 아이 자신의 회복력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4) 이처럼 예수의 생명력은 모든 억눌린 영혼과 죽어 가는 생명체를 소생시킬 수 있다(참조, 히 7:16; 요일 5:11, 12).

(5)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어떤 종류이든 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참조, 마 11:28-30).

16. **㉠**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 밝히셨는가?(28, 29 절)

㉠ (1) 제자들은 이미 예수께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부여받았다(6:7). 또 그러한 경험도 있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런 권능을 자기들이 행사할 수 없었는지 궁금하여 예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한 마디로 말씀하셨다.

(2) 분명히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자기들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쫓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 기도로써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마 17:20)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본 귀절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통된다. 믿음이 적은 곳에는 기도도 적게 마련이다. 이와 반대로 순수하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풍성한 곳에는 뜨겁고 꾸준한 기도가 넘치게 마련이다.

(4) 이처럼 예수께서는 기도를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인내로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다(마 7:7; 눅 18:1-8; 21:36). 사도 바울도 기도를 권면했고(살전 5:17),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골 1:9; 살후 1:11).

(5) 기도해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약 1:6)는 말과 함께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다(참조, 대상 16:11; 시 105:3, 4; 빌 4:6).

17. **㉠** 갈릴리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가?(30-32절)

㉠ (1)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것은 그가 또 한번 전도 사역을 행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갈릴리에서의 그의 공적 사역은 이미 끝이 났다. 지금은 그가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2) 이제 그는 자신의 사역을 열 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시키고, 이 일을 위하여 아무에게도 자신의 소재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혼잡한 무리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3) 예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자신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메시아로서의 비밀이었다(31절). 그러나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다(32절).

(4) 인간적인 척도로써 예수를 헤아리는 제자들의 심정으로는 예수의 수난에 관한 가르침이 이해될 까닭이 없었다(참조, 8:32). 형식적인 율법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유대 율법의 모독자였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셔야 했다. 여기에 수난의 필연성이 있다.

(5)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수난은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이것이 그들의 본능적인 공포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태도가 너무나 참되고 엄숙하기 때

문에 제자들은 감히 묻지도 못하였다.

- (6)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부활하실 것도 아울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두 가지의 관련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놀라운 소망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만 것이었다.
- (7)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진리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얼마나 둔한 것인가를 간파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만이 사도들의 영적 눈을 여신 것처럼 (행 2:14-36) 우리들의 어두운 눈을 밝게 열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참조, 요 14:26; 행 28:25; 고전 2:10, 11).

18. **㉠**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던 노중 어떠한 문제로 논쟁하였으며 그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33-37절)

- ㉠** (1) 주의 수난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께서 정치적 측면에서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가 임박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간적인 욕망에 이끌려 서로 누가 큰가 하는 무의미한 논쟁을 하였다.
- (2) 예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시면서도 노중에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여 집에서 분위기를 가라앉힌 후 그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 (3) 그가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매우 역설적인 가르침이었다 (35절).
- (4)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우선적인 덕은 바로 '겸손'이다.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 이 교훈을 반복하셨다 (참조, 10:43, 44; 마 20:26, 27; 23:11; 눅 9:48; 14:11; 18:14). 사실 이 교훈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강조되고 있다 (참조, 욥 22:29; 잠 29:23; 사 57:15; 약 4:6; 뱀전 5:5).
- (5) 예수께서는 좀더 효과적으로 이 교훈을 기억시키기 위해 어린아이를 통해 실물 교육을 시키셨다. 특별히 어린이를 내세우신 것은 어린이와 같이 별반 중요시되지 않는 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 (6) 우리는 예수의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잠 16:18) 이기 때문이다. 백부장 (마 8:8, 10, 13) 과 겸손했던 수로 보니게 여인 (7:29; 마 15:27, 28) 그리고 회개하였던 세리 (눅 18:13, 14) 처럼 늘 겸손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참조, 빌 2:5-8).

19. **㉠** 요한이 예수께 이야기한 것은 무엇인가? (38-42절)

- ㉠** (1) 요한은 예수께 당신을 따르겠다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금하였다고 이야기했다 (38절).
- (2) 왜 요한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추측컨대 요한은 자신과 제자들이 예수의 책망을 받아 당황하여 화제를 바꾸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꺼냈거나, 아니면 예수의 책망 (35-37절)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전에 그들이 행한 일이 과연 적당했는지 여부가 궁금했기 때문일 것이다.
- (3) 그도 그럴 것이 예수께서 특별히 권능을 주신 자들은 제자들뿐이었다 (6:7). 따라서 그들은 그 권능 행하는 자를 강력하게 금지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연유로 그들이 권능을 받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주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 (4) 제자들이 실수한 부분은 그들 나름대로의 우월 의식,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금지하지 말라'고 단호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 (39절).
- (5) 중요한 문제는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암 6:12; 고후 9:10; 빌 1:11; 약 3:18), 그렇지 않으면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롬 6:21;7:5).

- (6)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지극히 조그만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41절). 그렇지 않은 자는 늘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42절).
- (7)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가 맺는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하겠고, 우리 자신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참조, 갈5:22, 23; 약3:18).

20.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죄’에 대해 어떤 교훈을 하셨는가? (43-48절)

- ㉠ (1) 본문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의 방해 요인이 되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단호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사실 죄란 것은 매우 파괴적인 권세이므로 그냥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골 3:5). 우물쭈물하다가는 오히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 (3) 여기서 죄는 손(43절), 발(45절) 및 눈(47절) 등의 육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예수께서 ‘찍어 버리라’, ‘떼어 버리라’고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육신이 죄짓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는 간절한 요구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참조, 마 5장 ㉠ 28, 29).
- (4)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영적 수술이 필요하다. 이는 바로 우리의 생명, 즉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참조, 시 32:5; 51:3, 4; 119:11; 롬 6:6; 8:1-14; 딤후 5:22; 히 12:1, 4).
- (5) 한편 본문에 ‘지옥’이라는 말이 세 번 쓰였다(43, 45, 47절).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게넨나>로서 ‘헌놈의 골짜기’라는 뜻의 히브리어 <게헌놈>에서 유래된 것이다.
- (6)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구약 시대에는 이곳이 이방 신 물렉에게 사람을 번제로 불살라 바치던 곳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는데(왕하 16:3; 21:6; 대하 28:3; 33:6) 후에 요시아 왕이 이 가궁할 짓을 중단시켰다(왕하 23:10). 또한 이곳은 사람의 배설물과 쓰레기 또는 짐승의 시체를 버려서 불태우는 곳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7) 이러한 연유로 <게넨나>라는 말이 지옥의 상징이 되었다. 43절에서는 <게넨나>를 ‘꺼지지 않는 불’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곧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받을 형벌은 결코 끝이 없으며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마 25:46).
- (8)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48절)은 사 66:24의 인용귀이다. 이 역시 지옥의 형벌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구더기는 내부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불은 외적인 고통을 의미한다(참조, 단 12:2; 유 1:6, 7; 계 14:9-11).
- (9)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영원한 고통과 멸망을 초래하는 암적 요소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 날마다 죄와의 끊임없는 전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 전투의 대장으로서 예수를 모셔야만 한다(참조, 롬 8:1, 2).

21. ㉠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9절)

- ㉠ (1) 여기서 ‘불’이나 ‘소금’은 모두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중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참조, 왕하 2:19-22).
- (2) 그런데 ‘불은’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지옥의 소멸하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43, 48절) 여기서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불, 즉 부패한 것을 태우고 은과 금을 연단하는 그러한 불(말 3:2, 3)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말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불신자와 신자를 명백히 구분하는 연단의 격렬한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잠 17:3; 사 48:10; 숙 13:9).
- (4) 예수의 이 말씀대로 그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의 시험을 당했

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더욱 훈련되어 값진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

- (5) 이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갈파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 1:6, 7).
- (6)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이 연단의 불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롬 5:3, 4).

22. **㉠** 예수께서 소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50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금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다.
- (2) 인간 사회는 소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금의 역할은 막중하다. 인체의 유지에서부터 각종 음식의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이르기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 이유는 소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분 때문이다.
- (3) 그러나 당시 사해 근방의 암석이나 늪지대, 개펄 등지에서 나는 소금은 석회 등과 섞여 있어서 때때로 소금 맛을 잃어버리거나 알칼리성의 맛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소금은 문자 그대로 아무 쓸모 없는 것이었다(참조, 겔47:11).
- (4)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면서 옛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참종교 대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를 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많이 보셨다.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종교적 삶은 그 맛을 거의 잃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 (5)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한 그들의 소금과 같은 특성을 잃지 말도록 경계하신 것이다. 여기서 소금의 특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향한 제자들의 헌신과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가리킨다.
- (6) 이것은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서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사랑과 화목을 이룰 때에만 가능하며, 말씀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하다(참조, 마5:16; 9:13; 약1:22-25; 2:14-26).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연구자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1. 하나님 나라의 개념 및 용어 이해

‘하나님 나라’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의 왕적 통치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권은 무공간(無空間)에서 실행되어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란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란 의미도 필연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1, 47절) 외에도 '하늘나라'(the Kingdom of heaven, 천국, 마 3:2; 18:3)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주로 마태가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마태가 하나님이란 말을 하늘이라는 말로 대치하여 사용한 까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꺼려 하여서 '야훼'(YHWH) 대신 '주'(the Lord)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용어 사이에는 별다른 개념적 차이는 없다.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주로 종말론적(終末論的)인 의미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예수께서는 가까운 장래에 도래(到來)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그분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1:15)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생애(公生涯)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마 6:10). 그 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1절)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는 '왕권'(王權)을 의미한다(마 16:28).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멀지 않아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를 가운데 도래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은 곧 예수 자신의 지상 사역(地上事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서 뿌리를 내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4:26-29)를 통하여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사람이 땅에 뿌린 씨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자라나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추수당할 날을 기다리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의 지상 사역은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을 세상 가운데 뿌려 놓은 것과 같다 하겠다.

3. 교회와 하나님 나라

혹자는 이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3:3)이 듯이 교회의 구성원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점은 참된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나 교회 내에는 가라지와 같은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마 13:24-30). 따라서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겠다.

제 10 장 베레아에서 전도

사역을 행하시다

단락구분 1-12 이론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 13-16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다 / 17-22 부자 청년의 잠된 헌신을 요구하시다 / 23-31 올바른 물질관을 교육하시다 / 32-34 자신의 수난과 부활에 대하여 세번째 예언하시다 / 35-45 아고보와 요한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시다 / 46-52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매오를 고치시다

1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2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은지인가

3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5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6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7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 그 몸이 한 몸이 된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10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11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 이요

12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13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지라 하시고

16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 내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시니

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우는지

25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대

26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수 있는가 하니

27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하실 수 있느니라

28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좃았나이다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꾀박을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3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3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34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가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대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39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1 열 제자가 들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42 예수께서 흘려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

인들이 저희에게 권세한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6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 소경이 내어 걸음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대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1. ㉠ 본장의 사건 전개 배경은 어디인가?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말기에 갈릴리에서의 전도 사역을 끝내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다. 이 나중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주로 베레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2) 그래서 이 베레아 전도 사역은 갈릴리 전도 사역과 예루살렘 전도 사역의 중간을 잇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 (3) 그리고 예수의 사역 중에서 대갈릴리 사역(1-8장)과 은둔 사역(9장) 그리고 베레아의 사역(10장)이 본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前)장의 은둔 사역이 본장에 들어오면서 끝이 난다.
- (4) 이제 예수께서는 더 이상 군중들을 멀리하지 않으셨다. 사실상 1절과 46절, 마 19:2, 13과 20:29, 31 그리고 눅 18:15, 36, 43 등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수많은 무리들을 접하셨던 것이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점은 예수께서 병 고침보다 가르침에 중점을 두셨다는 사실이다(1절; 마 19:2). 물론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1절) 특별히 제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가르침에 중점을 두셨음을 알아야 한다(10-12, 14, 15, 23-27, 29-31, 32-34, 38-45절).

2. ㉡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도로 이혼에 대한 문제를 예수께 질문하였는가? (2절)

- Ⓐ (1)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언제나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없애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참조, 마 22:16-40; 요 18:33-38).
- (2) 당시 이혼의 문제에 대해 두 학파의 이론이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Shammai) 학파의 이론이요 또 하나는 힐렐(Hillel) 학파의 이론이다.
- (3) 샴마이 학파는 이혼 문제에 대해 단지 도덕적으로 부정한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하였고, 힐렐 학파는 전적으로 남편의 권한에 그 문제를 맡겼다.
- (4) 따라서 이 교활한 질문은 예수께서 긍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어느 한 학파와 알력을 빚게 되어 있었다.
- (5) 또한 그들이 특별히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한 것은 또 다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계시던 베로니아는 헤롯 안디바(Herod Antipas)의 관할지였는데, 안디바는 그가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죽게 했던 인물이다.
- (6)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바랐던 것은 예수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을 함으로써 안디바와 충돌케 하여 세례 요한과 동일한 운명에 빠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 (7) 세상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처럼 여러 가지로 도전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도전의 배후에는 사단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칠 때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해야 하겠다(참조, 엡 6:10-20).

3. Ⓒ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3-9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혼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신 후 결혼의 참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 (2) 그는 율법 그 자체에 이의(異意)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창조시의 원리로 소급한 것이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4절)은 연약해진 인간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한 것뿐이었다(5절).
- (3)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이 무시된 사회 속에서 어떤 종류의 질서를 세워 보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하여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랍비들은 모세를 통하여 이혼을 허락한 하나님의 자비의 규정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신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4절).
- (4) '창조시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참원리는, 이전에 들었던 것이 하나로 변화된 것이요(7, 8절), 이 연합은 전생애적인 연합이므로 인간이 결코 나눌 수 없다(9절)는 것이다.
- (5) 더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셈이다.
- (6) 이혼율이 갈수록 급증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커다란 경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배우자를 위해 신중히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해야 하겠지만, 결혼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참조, 고전 7:10, 11).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4. Ⓒ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신 후에 이혼 문제에 대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0-12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 (2)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간음했을 경우 여자는 남편에게 간음죄가 되나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한국의 남존 여비(男尊女卑) 사상과 상통한다.
- (3) 그러나 예수께서는 남자도 자기 아내에 대해 간음죄가 적용된다고 말씀하심으로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 동등성을 강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은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셨다는 말씀이다.
- (4) 예수의 이 말씀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이라도 가정을 파괴하는 더러운 죄를 범하지 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곧 남편이 범하든 아내가 범하든 결혼이라는 거룩한 제도를 파괴시키는 행위는 간음이며 창조와 결혼의 율례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행이라는 것이다(창 1:27; 2:24; 5:2).
- (5) 이리하여 예수께서는 간단한 말씀으로 이혼의 불가(不可)를 역설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논박하시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재확인하시며, 이런 일들을 통하여 결혼의 거룩성과 영속성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대로의 형태로 복원시키셨다.

5. **㉠**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오자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13절)

- ㉠** (1) 이 일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본문은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본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절과 32절을 고려해 보건대 여기 기술된 사건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베레아에 있는 어느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 여기 언급된 아이들에 해당하는 용어로 마가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단어는 보통 6세에서 14세까지 정도의 아동을 의미한다(참조, 5:23, 35, 41). 그러나 눅 18:15에 언급된 것처럼 아주 어린아이들로 보는 것이 더욱 어울린다.
- (3)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래서였다. 이는 단순한 만져 주심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뜻한다.
- (4) 이에 대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으며 막았다. 아마도 제자들은 당시 미천하게 여겨졌던 아이들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쉬시는 데 방해받지 않게 하시기 위한 배려로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 같다.
- (5) 그러나 비록 그들의 동기는 좋았다고 하지만 또다시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감각이 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예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동기에서 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다(참조, 행 9:1-6).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 우선적인 관심을 쏟아야 하겠다.

6. **㉠** 아이들을 금하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14-16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시고 분히 여기셨다(14절). 예수의 분히 여기심은 그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2) 그런 상태에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容納)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주인이 어린이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진성, 순수성, 단순성, 겸손성 그리고 신뢰성 등이 바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가지는 특성이라는 말이다.

- (3) 예수의 이 말씀은 당시에 있어서 대단히 파격적인 말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실 당시에는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시됨을 당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분때 오히려 어른들의 스승이나 마찬가지로 지적하셨기 때문이다.
- (4) 연이어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15절) 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앞 절의 진술을 제차 반복하여 상술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5) 그 뒤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16절). 이러한 교훈은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 준다. 또한 주어진 모든 상황을 제자들의 훈련을 위한 교육의 장(場)으로 환용하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성숙을 위해 같은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참조, 잠6:6-11).

7. **㉠**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청년의 질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7절)

- ㉠** (1)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행하던 행위 구원의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킬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2)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 3:20).
- (3)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흘리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참조, 롬 3:21-28; 갈 2:16; 3:24).
- (4)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부분이 혼동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제외시켜 버리거나 앎을까 하는 생각이 그 좋은 증거다. 선한 삶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들의 삶의 표현일 뿐이다(참조, 갈 2:20).

8. **㉠** 영생에 관한 청년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떠한 대답을 하셨는가? (18-21절)

- ㉠** (1) 영생에 관한 청년의 질문에 대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8절) 라고 시작하신 예수의 답변은 뜻밖의 진술이다.
- (2) 이 말씀은 예수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간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집약되는 의견은 청년이 예수를 '선한 선생' 이라고 부르면서도 참 선의 의미를 모르는 채 피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지적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다.
- (3) 이어 예수께서는 율법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다(19절). 여기서 '속여 취하지 말라' 는 것은 결국 탐을 낸다는 의미이므로 이 말씀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대신하여 쓰인 것이다.
- (4) 구약의 가르침에 전주어 볼 때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참조, 신 30:15, 16). 사실 이것은 확고한 진리이다. 다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罪性)을 지녔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이다(참조, 롬 3:23).
- (5) 이에 대해 청년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20절). 그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바로 외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 있게 대답하였던 것이다.

- (6) 사실 바울도 그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다(빌 2:42). 그 청년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내적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 (7) 십계명의 전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은 바로 '사랑'이다(마 22:37-40). 이것이 청년에게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寶貨)가 네게 있으리라'(21절)고 말씀하셨다.
- (8) 청년을 향한 예수의 이 요구는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한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즉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副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약 2:14-26).
9. ㉠ '와서 나를 좃으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했는가?(21, 22절)
- ㉠ (1)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자기를 좃으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에게 대단히 큰 충격이었다.
- (2)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청년의 가장 유일한 약점인 세상 재물에 대한 지나친 애착심을 정통으로 찢었기 때문이다.
- (3) 이제 그는 양자간의 하나를 택일해야만 했다. 재물을 위하여 예수의 명령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것이다. 이 갈등으로 인하여 그는 얼굴에 습근 기색을 띠고 근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자신 깊숙이 뿌리 박힌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은 돌아가 버렸다.
- (4)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데에 가장 큰 장애는 물질욕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마 6:24; 눅 16:13).
- (5)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잡을 때 바로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들 중 하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 (6)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딤후 6:17-19).
10. ㉠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것을 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23-27절)
- ㉠ (1) 예수께서는 주위에 있던 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다(23절).
- (2) 여기서 '어렵도다'에 해당하는 원어(δυσσκολος)는 곤란을 의미하지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은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뜻이다.
- (3) 예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란 것은 우리가 아니다(24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적 번영이나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이다(참조, 신 28:1-14; 대상 29:12).
- (4) 그러나 전지하신 능력으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신 예수께서는 재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다.
- (5)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대와 바늘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다(25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 그

신분(부자라는)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대신 물질을 두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 (6) 오늘날 민중 신학이나 해방 신학의 큰 오류 중의 하나가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계급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었음을 알 필요가 있다.
- (7)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제 예수께서는 그 해답을 제시하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하실 수 있느니라’ (27절).
- (8) 이것은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임을 분명히 해준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써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참조, 렘 32:17, 27).

11. ㉠ 베드로는 예수께 무슨 말을 하였는가? (28절)

- ㉠ (1)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예수의 말씀(27절)을 들은 베드로는 불안한 마음에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 (2) 사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렸다.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위해 모두 버렸던 것이다(1:18, 20; 2:14).
- (3)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을 것이 확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과연 확실한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 (4)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 준다. 즉 참제자의 길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을 말한다(참조, 8:34, 35; 눅 14:26, 33).

12. ㉠ 베드로의 말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어떠한가? (29-31절)

- ㉠ (1)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
- (2)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첫째, 그가 살아 있을 때 반드시 잃어버린 것의 100배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셨다. 여기서의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영적인 축복으로 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타당성이 있다(참조, 마 16:17, 18; 눅 24:50, 51; 고후 13:13).
- (3) 둘째, 핍박을 같이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마도 이것은 초대 교회가 로마에 의하여 환난과 핍박을 미리 예견하시고 하신 말씀임이 분명하다.
- (4) 그런데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와는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역사를 통하여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음을 깨우쳐주는 광의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타당하다(참조, 갈 4:29).
- (5) 세째,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의 생활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미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내세에서는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 (6)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영생’이라는 개념이 양적, 질적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지만 그중 후자의 의미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영생이란 영원토록 계속되는 삶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의 거룩함, 지

식, 교제, 평안, 기쁨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 (7) 이러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이유로 영적 자만에 빠져 버릴 것을 염려하여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1절)는 경계의 말씀을 하셨다.
- (8) 오늘날의 우리도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이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때 예수의 경계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수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골 3:12; 벧전 5:5).

13. ㉠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2절)

- ㉠ (1) 이미 예수께서는 두 번에 걸쳐 자신의 수난에 대해 예고하셨는데 (8:31; 9:31), 본문에서는 예수가 수난에 대해 세번째 예언을 하시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다른 공관 복음보다 더 생생하고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 (2) 그가 향하여 가고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잡혀서 고난받으실 곳이다. 따라서 예수의 그 발걸음은 처절한 결심과 각오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그리고 그는 ‘제자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셨다. 이 당당한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 (4) 이러한 그의 행동은 만용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었다. 세 번씩이나 자신이 당하게 될 수난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오래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한 뒤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5)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어린양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수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 (6)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께서 걸으신 고통의 길을 가야 한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이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일한 신앙 생활을 하지 말고 끝없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마 10:37-39; 16:24-26).

14. ㉠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33, 34절)

- ㉠ (1)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게 될 수난에 대하여 세번째로 예언하셨다.
- (2) 본문에 나타난 예언은 다른 두 예언보다 더욱 자세하면서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첫째,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란 7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회의인 산헤드린(Sanhedrin) 곧 유대의 대법원을 가리킨다(참조, 14:53).
- (4) 둘째, 죽이기로 결안(決案)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는 그들이 재판을 통해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임을 암시해 준다(참조, 14:55-64).
- (5) 셋째, 이방인들에게 넘겨 줄 것에 대한 예언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이방인들, 즉 여기서는 빌라도와 그 일행들에게 넘겨 줄 것을 가리킨다(참조, 15:1).
- (6) 넷째, 이방인들에 의해 예수가 능욕받고 침뱀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갓은 수모를 다 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제셨던 것이다

(참조, 15:15-20; 눅 23:11).

- (7) 다섯째,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는 인류의 구속이라는 대업(大業)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었다(참조, 15:24, 37).
- (8) 여섯째,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참조, 16장). 3일 만의 부활이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옛 창조의 종말인 동시에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한다(참조, 고전 15:22).

15. **㉠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께 어떤 요구를 하였는가? (35-37절)**

- ㉠** (1)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요구가 무엇이든 꼭 들어달라고 예수께 떼를 썼다(35절). 그들의 이 무례한 요구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 (2) 예수께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물으셨을 때(36절)에 그들의 답변은 그들이 장차 율 메시아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37절).
- (3) 이러한 요청으로 보아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지상에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그대로 믿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 (4) 또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분명하므로 곧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적 영광을 그곳에서 나타내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을 보면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의 수난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음을 잘 알 수 있다.
- (5) 그들의 이러한 처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스스로를 위하여 가장 높은 자리(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구하는 그들의 심사는 조금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이 라고 볼 수 없다.
- (6) 이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석했다. ‘이 기사는 인간의 허영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올바르고 경건한 열정이라 할지라도 흔히 야망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와 그의 약속과는 다른 이것 혹은 저것을 찾는 자들은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헛되이 방황하게 된다.’

16. **㉠ 세베대 아들들의 요구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였는가? (38-40절)**

- ㉠** (1)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구하는 바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말씀은 날카로우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꿰뚫는 것이었다.
- (2) 메시아 왕국에서 높은 지위와 특권을 얻는 길은 권력을 잡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자신의 모든 권력을 포기하는 데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잔과 세레라는 말로써 설명하고 있다(38절).
- (3) 구약에서는 피로움과 수난을 상징하는 말로서 ‘잔’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시 75:8; 사 51:17; 렘 49:12; 겔 23:31-34). 또한 ‘세레’는 넘치는 피로움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시 18:16; 69:1, 2).
- (4) 이어서 예수께서는 메시아 왕국에서 당신들에게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 밖의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셨다(40절).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을 조금도 침해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순종하는 것이었을 뿐이다(참조, 14:35, 36; 빌 2:5-8).
- (5) 예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채워 가야 함을 깨닫게 된다(참조, 행 5:29). 또한 천국의 상급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결과일 뿐이며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참조, 마 6:16; 빌 1:11).

17. **㉠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열 제자의 반응과 예수의 교훈은 무엇인가? (41-45절)**

- Ⓐ (1) 제자들 사이의 야심과 질투에 대하여 이미 예수께서 책망하신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나머지 열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하게 여겼다 (41절).
- (2) 그들의 분노는 아마 그들 나름대로 그러한 최고의 자리를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열 제자의 영적인 태도도 두 제자의 그것이나 똑같았다고 볼 수 있다.
- (3)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조금의 용서도 없이 비난을 일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단 선지를 통해서 우리도 분명히 이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조, 삼하 12:1-9).
- (4)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수난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겸손'에 대해 가르쳐야만 하셨다.
- (5) 세상의 집권자(執權者)들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 그리하여 일단 그러한 것들을 얻고 나면 그것을 악용하여 백성들을 압제한다는 것이 예수의 지적이다 (42절).
- (6)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추구해야만 위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셨다 (43, 44절). 남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행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라는 말씀이시다 (참조, 고전 13장; 골 3:14; 뱀전 4:8; 요일 3:14; 4:8).
- (7) 그 절정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다 (45절). 인자되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기 때문이다 (참조, 빌 2:5-8).
- (8) 그러므로 예수의 이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무 일에도 지나 탐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빌 2:3).
- (9)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롬 12:16).
- (10) 더 자세한 내용은 마 20장 ㉑ 22-26을 참조하라.

18. ㉑ 예수께서 소경 바디매오를 만난 곳은 어디인가? (46절)

- Ⓐ (1) 예수께서 소경 바디매오를 만난 곳은 여리고였다.
- (2)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24km, 요단 강에서 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 (3) 이 여리고는 구촌(舊村)과 신촌(新村)으로 분리되는데, 예수 당시에는 구여리고가 거의 황폐하였고 남쪽으로 뻗어 나가는 새로운 마을이 흥왕하고 있었다.
- (4) 이 새 여리고는 헤롯 왕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는 그곳에 자신의 겨울철 왕궁을 지었으며, 원형 극장과 목욕탕 등 여러 가지 위락 시설도 지었다.
- (5) 그곳의 겨울 기후는 너무 좋기 때문에 왕이나 부호의 휴양지로 널리 알려졌다. 바로 그곳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애정의 증표로 준 곳이기도 하다.

19. ㉒ 소경 거지 바디매오가 예수께 탄원하는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46-48절)

- Ⓐ (1)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길가에 있던 소경 바디매오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하였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다가 매일매일을 구걸하여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 (2) 그는 예수를 볼 수는 없었지만 무리의 시끄러운 소리를 통해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3) 오가는 소문을 통해 그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가 사용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곧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1:9, 10; 12:35-37).
- (4) 그러나 사람들은 천대받는 하찮은 걸인의 외침을 무시했다. 아니 무시했다기 보다는 꾸짖어서 강압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 (5)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디매오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소리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청했다.
- (6)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인내심 있고 용기 있는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가 화평을 누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참조, 롬 4:20-24; 고전 16:13; 딤후 1:12).

20. **㉠** 예수의 부르심에 대한 소경의 반응은 어떤가? (49, 50절)

- ㉠** (1) 예수께서는 사랑이 풍성한 분이셨다. 그래서 자신에게 호소하는 소경 거저 바디매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불러 데려오도록 하셨다.
- (2) 이 말을 전해 들은 소경은 즉시 자신이 걸치고 있던 겹옷을 내어 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 (3) 예수께 나아가기 위하여 겹옷을 내어 버린 소경의 행동은 단순한 개성의 표시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 그것은 한 영혼이 그의 구주 되신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모든 종류의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한 전형적인 모습으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4)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나뉘대로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 (5)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권세나 어떠한 업적 등이 아니라 '하나님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뿐이다 (참조, 눅 18:9-13).

21. **㉠** 소경이 눈 고침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51, 52절)

- ㉠** (1) 소경이 눈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남달리 뛰어난 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 (2)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다. 유일한 구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구원해 주신다.
- (3)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의 것은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그와 결속되고 친교를 맺게 된다. 그가 친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 (4) 바디매오의 믿음은 강건했고 실천적이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를 구한 것이다. 그 믿음이 그와 그리스도의 전능과 거룩함을 결속시켰던 것이다.
- (5) 우리는 이 바디매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슬한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참조, 눅 18:8).
- (6) 우리 앞서 살다 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참조, 롬 1:17; 히 11장).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참조, 행 14:22; 롬 4:20-24; 고전 16:13; 고후 8:7; 골 1:23; 딤펴전 1:19).

제 11 장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단락구분 1-11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 12-14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 / 15-19 성전의 부패상을 보시고 청결케 하시다 / 20-26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우시다 / 27-33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하여 질문하시다

1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벧 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하느냐 물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풀니

5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6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8 많은 사람은 자기 겹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퍼며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치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12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 멀리서 일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일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남이라

14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5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16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 님을 허치 아니하시교

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19 대양 저물매 저희가 성밖으로 나가더라

20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21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람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26 (없음)

27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28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30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나 사람에게서로서나 내게 대답하라

31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2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33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 하리라 하시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사건들의 중요성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대별(大別)하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2) 첫째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고(1-11절), 둘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 사건(12-14, 20-26절), 셋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15-19절)이며 마지막 네째는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한 논쟁이다(27-33절).
- (3) 여기서 첫번째 사건은 약 600여 년 전에 스가랴에 의하여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것(참조, 스9:9)이고 다른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보여 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 (4) 결국 본장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사실을 강하게 나타내고 그가 오신 목적은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암시한 데 있다.
- (5)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에 많이 좌우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겉보다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참조, 삼상 16:7)이 있어야 한다.

2. ㉠ 본장부터 전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고난 주간)을 설명하라.

- ㉠ (1)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은 본장부터 15장까지의 기록에서 잘 나타나 있다.
- (2) 그의 한 주간 동안 행적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요 일	사건 및 행적	마 태	마 가	누 가	요 한
일요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21:1-11	11:1-11	19:29-44	12:12-19
	베다니로 돌아오심		11:11		12:36
월요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 성전을 정화(淨化)하심	21:12, 13	11:12-14 11:15-18	19:45-48	
화요일	마른 무화과나무의 교훈	21:19-22	11:20-26		
	메시아의 권위에 대한 도전	21:23-27	11:27-33	20:1-8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언 가롯 유다의 반역	24:1, 2 26:14-16	13:1, 12 14:10, 11	21:5, 6 22:3-6	
수요일	가롯 유다와 대제사장의 약속		14:10, 11		
목요일	유원절 준비와 최후의 만찬	26:17-20	14:12-17	22:7-18	13:1
	성찬식을 제정하심	26:26-29	14:22-25	22:19, 20	
	베드로의 부인(否認)을 예언하심	26:31-35	14:27-31	22:28-38	13:33-38
	겻세마네의 기도 체포당하신 예수	26:36-46 26:47-56	14:32-42 14:43-52	22:40-46 22:47-54	18:1 18:2-12
금요일	가야바 앞에 서신 예수	26:57-68	14:53-65	22:44	18:24
	베드로의 부인(否認)	26:58, 69-75	14:54, 66-72	22:54-62	18:15-18, 25-27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장사지낸 바 되신 예수	27:2 27:35-50 27:57-61	15:1-5 15:24-37 15:42-47	23:1-5 23:33-46 23:50-56	18:28-38 19:17
토요일	무덤에 파수군을 세우다	27:62-66			
일요일	부활하신 예수	28장	16장	24장	20장

일요일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남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 염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심	28:5-8	16:2-8 16:9-11 16:12	24:1-11 24:33-35
-----	---	--------	----------------------------	---------------------

3. **㉠**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레아 지방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도착하신 다음 장소는 어디인가? (1절)

- ㉠** (1) 그곳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위치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였다.
 (2) 예수께서 베레아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여리고를 둘러 소경 바디매오의 눈을 뜨게 하신 후 유다의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셨다.
 (3) 본절에서 세 장소가 함께 표현되었는데 이는 벳바게와 베다니가 모두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4)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들의 집'이란 뜻으로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 감람산 근처의 마을이고,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란 뜻으로 예루살렘 남동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요 11:18)이다.
 (5) 여기서 예수는 그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면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취 하시게 된다(참조, 마 21장 ㉠ 4).

4. **㉠** 예수께서 두 제자를 파송하신 곳은 어디인가? (2절)

- ㉠** (1) 그곳은 '맞은편 마을'이었다.
 (2) 이곳은 일반적으로 벳바게라고 주장한다.
 (3) 그 이유는 마 21:1에서는 예루살렘과 벳바게만 언급되어 있으나 예수의 전(前)행선지였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야만 했기 때문이다.
 (4) 또한 예수께서는 마지막 한 주간을 베다니를 중심으로 지내셨기에 (11, 19절; 마 21:17, 요 11:55; 12:1, 36)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두 제자를 파송하셨다는 설명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더 자세한 내용은 마 21장 ㉠ 5를 참조하라.

5. **㉠** 예수께서 두 제자를 벳바게로 파송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2절)

- ㉠** (1) 그곳에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끌고 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2)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관점에서 이 귀절을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이고 둘째는 그분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나귀 새끼의 상태이다.
 (3) 첫째 우리는 본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한다. 즉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참조, 요 1:48).
 (4)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쓰시겠다고 택하신 나귀의 상태이다. 본서와 누가복음은 그 나귀의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눅 19:30)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즉 그가 선택하신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하며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다(민 19:2; 신 21:3; 삼상 6:7).
 (5)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아직 쓰지 않은', 즉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사 7:14; 마 1:19, 25) 그분의 시신이 장사된 것도 역시 쓰지 않았던 무덤이었다(눅 23:53).
 (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제물들이 되기 위해(레 22:21)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말 3:3; 행 15:9; 약 4:8; 벰전 1:22).
 (7) 더 자세한 내용은 마 21장 ㉠ 6을 참조하라.

6. **㉠** 예수께서 나귀를 풀어 올 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준비해 주셨는가? (3절)

- ㉠** (1) 어떤 자들이 나귀를 풀어 오는 제자들에게 '왜 이리하느냐'라고 물으면 단순히 '주가 쓰시겠다'는 대답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귀를 즉시 보내 줄 것이라고 하셨다.
 (2) 본절은 상당히 논란이 오가는 귀절이다. 그 논란의 요지는 '주'가 누구인가 그리고 '즉'

시 이리로 보내리라' 는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가이다.

- (3) 먼저 '주'(헬, 퀴리오스)는 누구인가? 어떠한 자들은 나귀의 임자(V. Taylor, M. H. Bolkestein)로 보거나 하나님(W. C. Allen)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본다(A. B. Bruce, C. R. Erdman, E.P. Gould, H. B. Swete 등).
- (4) 그리고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점에서 그것을 나귀 주인이 예수께 보낸다는 해석과 예수께서 나귀를 사용하시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낸다는 해석으로 나뉘어진다.
- (5)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해석 중에 후자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빌려 쓰시고 되돌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4:1, 2; 6:20; 고후 8:8, 9; 벧전 4:10).
- (6)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것으로 인한 권위 그리고 청지기직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할 것인가를 배웠다는 사실이다.
- (7) 더 자세한 내용은 마 21장 ㉒ 7, 8을 참조하라.

7. ㉑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을 순종한 결과는 어떠한가? (4-6절)

- ㉒ (1) 그들이 순종한 결과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어 올 수 있었다.
- (2)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 즉 이것은 사 62:11과 슥 9:9의 성취였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마 21장 ㉑ 8을 참조하라.
- (3)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 보니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는데 임자들(눅 19:33)은 예수께서 필요하다는 말에 즉시 순응하였다.
- (4)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졌음을 상상할 수 있다.
- (5) 또한 나귀의 주인의 태도 역시 오늘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한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만났던 자들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쓰시겠다는 한 마디 말씀에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나귀를 드렸다.
- (6) 주님께서서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를 찾으신다. 또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큰 축복을 베푸신다.

8. ㉑ 예수의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7절)

- ㉒ (1) 그들은 자신들의 겂옷을 벗어 나귀 위에 걸쳐두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도록 준비하였다.
- (2) 히브리인들의 겂옷은 어깨를 덮을 수 있고 소매 둘레가 있는 정방형 천이다. 그들의 속옷은 통으로 짜서 몸에 붙게 입었다. 그러므로 겂옷은 손쉽게 입고 벗을 수 있었고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그것을 나귀 위에 걸칠 수도 있었다(요 19:23, 24).
- (3) 그런데 그 옷을 벗어서 피는 행위는 왕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표시였다(왕하 9:13). 그리고 중동 지방에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개신 장군에게도 이와 같은 예우(禮遇)를 하였다.
- (4)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예언되었는데(슥 9:9)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완전한 성취를 이룩하였다.
- (5) 이제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그의 제자들과 같이 그분 앞에 완전한 복종을 약속하고 실행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참조, 롬 12:1, 2; 딤후 2:4; 히 12:1, 2).

9. ㉑ 예수께서 사용하신 나귀는 어떤 동물인가? (7절)

- ㉒ (1) 나귀는 성경 기록상 창 12:16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들 중에서 처음 나타난다.
- (2) 일반적으로 나귀는 회색과 갈색이 대부분이지만 어깨 부분에 특이하게 흑백 얼룩 줄무

니가 있는 것도 있다.

- (3) 한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친 땅에서 사는데 힘이 되었기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연자땀들을 사용하여 곡식을 쪼는 일(마 24:41)과 단순히 쟁기를 끄는 것을 포함하는 일을 하였다.
- (4) 구약 성경에서 나귀는 히브리인들의 기본 재산으로 묘사되었고 또한 유명한 사사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다(삿 10:3, 4; 12:13, 14).
- (5) 그리고 팔레스틴과 그 주변 국가에서는 평화시에 왕들이 나귀를 탔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10. Q 예수를 맞이하는 자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8절)

- A (1) 그들은 자기 겹옷과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퍼며 예수를 환영하였다.
- (2)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할 때 나무 가지를 길에 퍼며 환영했는데 각 복음서마다 각기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 즉 본서에서는 나무의 잎이나 껍질 등을 나타내는 <스티바다스>가 사용되었고 마태복음에는 나무에서 잘라 낸 어린 순이란 뜻의 <클라두스>(마 21:8)가,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를 나타내는 <바이아>가 사용되었다(요 12:13).
- (3) 결국 이 귀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는 무리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참조, 계 7:9).
- (4)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범위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시인(사 9:6, 7; 눅 9:10; 마 8:27; 엠 1:22; 벰전 3:22)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마 5:16; 고후 4:17).
- (5) 더 자세한 내용은 마 21장 Q 9를 참조하라.

11. Q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찬송은 무엇인가? (9, 10절)

- A (1) 그들은 예수의 주위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찬송하며 따랐다.
- (2) 본절에서 '호산나'는 본래 '구원하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소서'(시 118:25)라는 히브리어 기원(祈願)인데 후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갈채, 찬양의 송영으로 사용되었다.
- (3)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국의 주체로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절에 나타난 상황은 그리스도를 찬양한 자들이 국가 회복에 대한 소망만을 중심으로 환호한 것이므로 실제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마 1:21)인 줄은 몰랐다.
- (4) 마지막에 외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외치는 찬양으로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인정한 것이다.
- (5)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은 환호를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참된 목적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현실적인 면과 정치적 해방만을 염두에 두었다.
- (6) 그래서 이처럼 열성적으로 환영하던 그들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던 것이다(참조, 15:13).
- (7)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분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반대로 현실적인 상황에만 연결시켜도 유대인들이 예수께 범한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참조, 벰후 1: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전인격으로 인정하고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 (8) 더 자세한 내용은 마 21장 Q 10을 참조하라.

12. Q 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신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11절)

- A (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저물어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 (2) 본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성전 모든 곳을 돌아보신 것이 아니라 넓은 이방인의 뜰과 거기 인접한 행각을 돌아보셨음을 가리킨다 (Hendriksen).
- (3) 이날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전날, 즉 일요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께서는 다음날 있어질 사건을 위해 미리 성전을 방문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4)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날 저녁을 지내시기 위해 베다니로 돌아가셨는데 이는 지도자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고심하였기에 그가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제자들과의 조용한 휴식도 필요했기 때문에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Lanski, Hendriksen).
- (5) 한편 예수께서 둘러보신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의 재위 18년부터 약 9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때까지 완전하게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하였다(요 2:20).

13. **㉠**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를 나오셨을 때 어떤 상태였는가? (12절)

- ㉠** (1) 그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 (2) 그 이유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제자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조반(朝飯)을 못 드신 것 같다.
- (3) 아물든 우리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인 배고픔을 예수께서도 느꼈다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발견하고 더욱 친근하게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참조, 마4:2; 히4:15).
- (4)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인성(humanity of Christ)은 신약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분의 신성(divinity of Christ)에 대해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인간으로 살아가셨다.
- (5) 그런데 예수의 인간적인 면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절규에서이다(15:34).
- (6) 특별히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피로(疲勞)하시고 목말라하시는 것을 묘사하며(요 4:6, 7; 19:28),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왔다(요 19:34)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예수의 고난이 환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 (7)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예수가 유대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인간적 제약이 있었음을 강조하였고(롬 9:5; 고후 13:4; 갈 4:4; 빌 2:7, 8),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는 비록 죄가 없으시나 인간들이 당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히 4:14) 인간적인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히 4:14-16).
- (8)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고 이러한 인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체험하시므로 모든 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케 했다.

14. **㉠** 시장함을 느끼신 예수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는가? (13절)

- ㉠** (1) 예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무 것도 구하지 못하셨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 (2) 본래 무화과는 3월말에 싹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5, 6월에 익고 봄에 나온 새싹에서 조금 늦게 익는 무화과는 8-10월 사이에 딸 수 있다.
- (3) 그런데 본절의 사건은 유월절이 가까운 4월경이었으므로 무화과를 따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열매를 구하려 갔을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 (4) 한편 무화과는 잎이 나기 전에 먼저 열매를 맺는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첫 열매(6월)

를 맺고 있어 무성해지는 때를 여름이라고 한다(참조, 아2:13).

- (5) 따라서 잎이 무성한 나무에서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예수께서 찾으신 무화과는 비정상적으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여 예수와 많은 사람을 현혹하였다.
- (6) 이처럼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사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이 우리의 주위에도 많이 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내면을 알차게 하는 영적·정신적으로 신실한 자들이어야 한다(참조, 딤후2:9).

15. **㉠**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 ㉠** (1)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나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다.
- (2) 이런 저주를 무화과나무가 받게 된 것은 열매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때는 본래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계절이었기 때문이다.
- (3) 중요한 것은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는 사실이다.
- (4) 여기서 예수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겉으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신앙적 열매도 맺지 못하는 유대 민족들의 외식적 모습을 기억하시고 상징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 (5)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추종할 수 없었다(7:6; 마6:5; 23:28).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외식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참조, 벰전2:1, 2).

16. **㉠**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상은 어떠했는가? (15절)

- ㉠** (1) 본절에서는 종교적인 부패상을 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 행위가 있어야 할 성전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터와 같이 변했다.
- (2) 제사장들이 허욕과 탐욕으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했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는 명목으로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를 허용했으며 그것을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 및 그들과 결탁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였다.
- (3) 랍비 문서에 의하면 성전 안의 매점들은 이방인의 뜰에 위치해 있었으며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소유했는데 그 매점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아들이 소유하였다고 한다.
- (4) 그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의 재물까지도 착취하였던 것이다(참조, 레5:7).
- (5)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날 정치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또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배 계층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약한 자들의 소유를 착취하면서도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 외적인 법을 재정의하여 정당화한다(참조, 마21장 **㉠** 12).

17. **㉠** 예수께서 타락한 성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15절)

- ㉠** (1)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며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참조, 마21장 **㉠** 13).
- (2) 예수의 성전 정화 작업은 그의 사역 기간 중 두 번 있었다. 첫째는 요2:13-22에 기록된 것으로 초기 활동시였고 둘째는 본절에 기록된 것으로 마지막 활동 시기였다.
- (3) 그의 첫번째 성전 청결 작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이때는 성전을 담당하는 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그것에 대하여 적절한 해명을 하셨다.
- (4) 그러나 두번째는 강력한 비난으로 책망하시며 그들을 '강도'라고 하셨다.

- (5) 첫번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았을 때 두번째는 강력한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자주 나타나지만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불행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위와 사고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고하심에 귀기울여 만에 하나라도 주의 징계에 합당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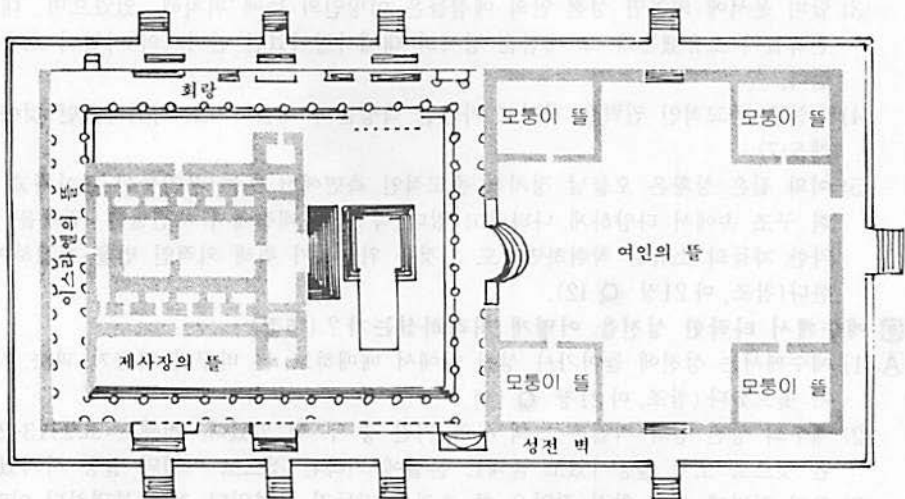
18. **㉠**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어떤 규정(規定)을 세우셨는가? (16절)

- ㉠** (1) 예수께서는 아무나 기구(器具)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 (2) 그 이유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그들의 일을 위해 장소를 이동할 때에 성전을 둘러서 간다면 무척 멀었다.
- (3) 그러나 성전을 관통하여 간다면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를 갈 수 있었다(참조, **㉠** 19 도표).
- (4)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장사를 위해 하나님의 전을 지나다니는 것을 금지하셨다.
- (5) 예수를 믿는다는 핑계로 교회 안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장사를 하는 것은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은 차치(且置)하고 그분을 경홀히 여기는 일과 같다.

19. **㉠** 예수께서는 성전을 어떤 곳이라고 하셨는가? (17절)

- ㉠** (1) 그분은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다(참조, 마21장 **㉠** 14).
- (2) 이때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와는 달리 각 사람의 신분별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 (3) 이때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 헤롯 성전의 내부 구조를 보면 도표와 같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 (4) 성전에서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성소의 주위에는 제사장의 뜰이 위치해 있고 그 뜰의 앞면은 남자의 뜰(이스라엘의 뜰)이 있으며 그 뒤로는 여인의 뜰이 있다. 그리고 그 밖으로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사장의 모습은 정확히 볼 수 있었다.
- (5) 그런데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사실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성전고(聖殿庫)가 있었기에 세금을 받게 되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을 파는 곳이 있었다.
- (6)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유대인들의 횡포였고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저지하는 사단적 행동이었다.
- (7)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횡포를 중단시키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다.
- (8)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룩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불신자들이 영원히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다.

20. **㉠** 예수께서는 타락한 성전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17절)

- ㉠** (1)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로 인하여 성전은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고 하셨다.
- (2) 예수의 이 말씀은 램 7:11을 인용한 것으로 성전이 본래 의도대로 기도하는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강도의 굴혈이 되도록 방치(放置)해 두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3) 본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상징되었고 그곳을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였다.
 - (4) 특히 이때의 성전은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뜰이 있어서 그 구조 자체에서 종교의 보편성을 나타내었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 의하여 합법적인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워졌다.
 - (6)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의 성전(고전 3:16)도 이처럼 더러워졌음을 가슴 아파해야 한다.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떠나 각종 악행을 일삼는 자가 되고 말았다(참조, 롬 1:28-32).

21. **㉠**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멸(滅)하려고 노력하였는가? (18절)

- ㉠** (1)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
- (2) 제사장은 주로 사두개파였고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은 산헤드린(Sanhedrin) 공회와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 (3) 역사적으로 산헤드린은 특권 귀족 계층인 제사장들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었다.
 - (4) 미쉬나(Mishnah)의 랍비 구전(口傳)에 의하면 산헤드린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 중 70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한 때까지 소급된다(민 11:16).
 - (5) 이 모임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에 의해 재조직되었으나 산헤드린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 (6)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산헤드린의 기원은 톨레미(Ptolemy) 및 셀류쿠스(Selucus) 왕조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헬레니즘 시대 이후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7) 이 기구가 최초로 언급된 곳은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이다. 그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을 우두머리로 한 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임으로, 사법 문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틴 전역의 통치 기구로서 광범위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 (8) 그들은 국내의 종교 문제를 완전히 관장하였고 민사 문제와 로마 행정 장관의 재량에 따라 형사 소송도 재판하였다. 그러나 신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산헤드린에는 사형의 재판권이 없었다(요 18:31).
- (9) 한편 본질을 통해 볼 때 중요한 내용은 본래부터 반목(反目) 상태에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행 23:7-9)이 공모하여 예수를 잡으려 했던 것이다. 악을 위해서는 원수끼리도 의견이 통합된 것이다.
- (10)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잡을 수 없었는데 이는 진리를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진리 안에 있다면 사단의 세력이 결단코 넘어서리지 못할 것이다.

22. **㉠** 예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행하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19절)

- ㉠** (1)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는 성밖으로 나가셨다.
- (2) 이날은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일요일 밤에 베다니에서 지내신 것과 같이 이날도 베다니로 가셨다(마 21:17).
- (3) 예수께서는 목요일 밤에 잡히시기 전까지 4일간은 성안에 거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 (4) 이와 같은 예수의 행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 있는 행동의 지침을 가르쳐 준다. 즉 반드시 필요한 때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경솔하게 자신을 내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23. **㉠**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20, 21절)

- ㉠** (1) 그 나무는 예수의 저주하신 대로 뿌리로부터 말랐는데 베드로는 전날 예수의 저주하심이 생각나서 그분께 질문하였다.
- (2) 무화과나무에 대하여 저주하신 때는 아침, 즉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신 날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다음날 나무가 마른 것을 발견하였다.
- (3) 월요일 밤에 베다니로 돌아올 때는 아마 어두워서 그 나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 (4) 그런데 이날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대로 실현된 사실에 대하여 매우 놀라움을 표시했다.
- (5)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놀라운 사건을 즉시 발견할 수 있었다.
- (6) 그리스도인들도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생활할 때 말씀과 적용되는 많은 일들을 가볍게 흘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24. **㉠**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셨는가? (22, 23절)

- ㉠** (1)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기적이 믿음을 통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즉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우는 일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 (2) 이것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다.
- (3) 예수의 이런 비유는 반드시 산이 들러서 바다에 던지운다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참조, 마 17:20; 21:21; 눅 17:6).
- (4)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한계가 뚜렷한 자신과 또한 급변하는 환경에 시선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신뢰하여 끝내 그분이 각자의 삶에서 활동하시도록 해야 한다(참조, 갈 2:20).

25. **㉠** 어떻게 할 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가? (24절)

- Ⓐ (1)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응답될 것이다.
- (2) 본질은 23절과 병행되는 말씀으로 조금 더 강조하는 뜻이 나타나며 적극적인 의미를 보여 준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된 상태에서 가지는 믿음은 불가능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 (4) 그러나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인간적인 정욕을 위한 간구이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약4:3).
- (5) 성도들은 기도할 때 무조건 간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마6:33).

26. ㉠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25절)

- Ⓐ (1)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음에 거리가 되고 미워하는 일이 생각하면 먼저 용서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 (2) 이 귀절에서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자비와 인간의 그 동료에 대한 자비의 상호간의 상관 작용을 가르쳐 준다(참조, 마6:14, 15; 골3:13).
- (3)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분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마음도 진정으로 타인을 용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만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가르치신다.
- (4)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선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태도와 생활 양식을 갖도록 요구한다.

27. ㉠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께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 (27, 28절)

- Ⓐ (1)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분의 권위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하였다.
- (2) 이미 그들은 예수를 멸하고자 여러 방면에서 기회를 찾고 있었다(18절). 이런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을 씌우기 위하여 질문을 했다.
- (3) 유대의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예수의 권세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권위에 관한 출처는 산헤드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4)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교권을 전혀 무시하셨다. 그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私利私慾)을 위해 남용했다(15-17절; 마21:12-16; 눅19:45-47; 요2:14-16).
- (5)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혹시 우리가 세상 권력이나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신앙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는가?

28. ㉠ 예수의 신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그분은 어떤 대답을 주셨는가? (29, 30절)

- Ⓐ (1) 그분은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역(逆)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라고 질문하셨다.
- (2) 예수의 이 질문은 단지 질문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해집고 정곡(正鵠)을 찌르는 것이었다.
- (3)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과 예수의 질문은 모두 일맥 상통한 것인데 결국은 예수의 권위에 대하여 귀결되기 때문이다.
- (4) 한편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 위치를 부정하지 못했고 그의 외침은 메

시아에 대한 것(요 1:19-34) 입을 알았으며 그 외침의 대상이 예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부정하지 못했다.

- (5) 따라서 우리도 예수의 지혜로움을 본받아 자신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한다(마 10:16; 약 1:5). 그 지혜란 결국 예수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다.

29. **㉠** 예수의 질문을 받은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1-33절)

- ㉠** (1)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에게로서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이었다.
- (2) 만일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군중들로 인하여 정치적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밝히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지 그들이 확보한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아집(我執)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 (3)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아집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유대의 지도자들과 같이 진리를 묵살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 것이다.
- (4) 이런 상황은 종교적인 면 외에 오늘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신들이 취득한 권력과 여러 힘은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이고 불합리하며 비양심적인데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롬 13:1; 뱀전 2:13)을 남용하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을 한다.
- (5) 따라서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正義)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진리가 왜곡(歪曲)되지 않도록 생명을 바쳐 싸워야 한다(딤후 1:18; 딤후 4:7; 히 12:4).

화보자료

예루살렘에 입성(入城)하시는 그리스도. 비잔틴(Byzantine) 시대의 성화(聖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은 구약 예언(슌 9:9)의 성취이다. 그런데 그가 왕이나 기사(騎士)처럼 말을 타지 않고 굳이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의 겸손하신 인품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제 12 장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

단락구분 1-12 포도원 농부의 비유 / 13-17 세금 바치는 일에 대하여 교훈하시다 / 18-27 부활에 관해 사두개인들과 변론하시다 / 28-34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되는 계명 / 35-37 다윗의 권위 이상이신 그리스도 / 38-40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책하시다 / 41-44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헌금

1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좁 짚은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2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6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7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9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10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음 잃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잠고자 하되 무리를 두러 위하여 예수를 버려 두고 가니라

13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14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이 참되시고 아무라도 보지 않고 오직 참으르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르시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15 우리가 받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대 예수께

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테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6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18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19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썩 죽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0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21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22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23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2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25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6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뚝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말씀을 잃어 보지 못하였느냐

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

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6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돌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37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들더라

38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1 예수께서 연보কে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के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के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의 의미를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특히 지도자들의 잘못, 정치와 종교의 다른 면 그리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교훈하신다.
- (2) 먼저 예수께서는 성전 정화(11:15-18)에 못지않게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날카롭게 지적하셨다.
- (3)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들이 받을 불이고 사는 세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할 자들의 생활 중 위선의 죄악을 지적하셨다.
- (4) 끝으로 예수께서는 올바른 헌금관(觀)에 대하여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을 통하여 교훈하신다.
- (5)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전체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하며 외형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적인 신앙의 성숙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2. ㉠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12절)

- ㉠ (1) 이 비유의 중요한 특징은 그 비유의 의미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당시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포도원 농부로 비유하여 고용된 자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을 지적하였다.
- (2) 우리는 악한 농부의 행실에 대한 주인의 인내와 관용을 통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발견할 수 있다(겔 18:21-23; 뱀후 3:8,9).
- (3) 또한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포도원을 위탁(委託)받은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世界觀)이다. 그들은 주인이 멀리 있다고 포도원을 자기들이 소유하려

고 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신 10:14; 시 24:1; 50:12; 고전 10:26)을 잊은 것이 큰 죄악임을 깨닫게 된다.

- (4)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불충(不忠)한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 일꾼들을 세우셨으나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하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들(참조, 마 24:47-51; 25:26-30; 눅 19:22-24)을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5)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을 소홀히 여기다가 그분의 심판을 당하는 위치로 떨어지지 않게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전 4:2).

3. ㉠ 예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셨는가? (1절)

- ㉠ (1) 예수께서는 비유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 (2) 비유(譬喩)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로서 문자적으로 '나란히 놓음'이란 뜻이다.
- (3) 이것은 화자(話者)가 강조하려는 논점(論點)을 일상 생활의 낮은 상황으로부터 설명함으로써 그것을 납득시키려는 방법이다.
- (4) 구약에서 비유는 잠언에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데(잠 10:26; 30:25 등) 대화체(對話體) 형태로 나오는 구약의 비유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사 9:8-15에 나오는 '나무들의 우화'이다.
- (5)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 '어린 양양의 비유'(삼상 12:1-7)도 사사기의 비유와 같이 듣는 이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6) 신약에서의 비유는 예수의 비유를 먼저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 가운데 비유의 완전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백성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도 항상 비유를 사용하셨다(마 13:34; 18:23; 눅 7:41; 13:6 등).
- (7) 그분의 비유는 언제나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 보다 생동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개개의 비유들은 한 가지 논점을 분명하게 납득시키려 한다.
- (8) 그러므로 예수의 비유를 모두 우의화(偶意化, allegorizing) 하려는 것은 쓸모없는 노력이다. 우화는 의미하는 바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요 6:35)이나 '포도나무'(요 15장)로 의미한 것 등이다.
- (9)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해 고심한 것을 알 수 있고 오늘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태도가 진지하면서도 듣는 이들의 이해를 돕는 방법들을 개발해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

4. ㉠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1절)

- ㉠ (1)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것을 세(貰)로 준 농부들이다.
- (2)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한 곳이 많이 있다(시 80:8-15; 사 5:1, 2; 렘 2:21).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며, 농부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 (3)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셨음을 알 수 있다(롬 13:1; 벧전 2:13-17).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5. ㉠ 포도원의 구조는 어떠한가? (1절)

- ㉠ (1) 포도원 주위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는 좁 째는 구유 자리가 있고 또한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망대가 있었다.
- (2) 울타리는 포도원의 중요한 보호책이다. 그것은 담장이나 산 울타리로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선민과 이방 민족 간의 분리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보호벽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정이 있기 때문이다.

- (3) 좁 짜는 구유는 일반적으로 땅 속에 두 개의 구멍이틀 판 후 둘로 그 주변을 쌓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구유에서 포도를 밟으면(사 63:23) 작은 연결 구멍을 통하여 아래로 흘러 포도즙 향아리에 담겨지고(학 2:16) 그 후 그 즙을 포도주 부대에 옮겨 담게 된다.
- (4) 또 망대는 둘로 쌓았는데(사 5:2) 높이는 10규빗(1규빗은 약 45.6cm), 넓이는 4 규빗 정도이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망대지기들이 거하던 곳이었다. 이 망대는 때때로 창고가 되기도 하였다.

6. **㉠ 포도의 수확기가 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보내었는가? (2절)**

- ㉠** (1) 때가 이르러 주인은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 종을 보내었다.
- (2) 이것은 주인의 정당한 행위이다. 즉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贖)로 줄 때는 소출에 대한 계약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그래서 주인은 당신의 권리를 위임한 종(servant)을 파송하였다.
- (4) 일반적으로 종(헬, 돌로스)은 노예(slave)라는 관념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신 32:36; 느 1:6; 시 135:14; 105:25; 사 63:17; 계 2:20; 19:5)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다(왕상 6:53; 시 132:10; 학 2:23; 눅 1:69; 행 4:25).
- (5) 본절에 나타난 종들도 소작인이나 농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주인의 권리를 받은 자로 주인과 같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였다.
- (6) 여기에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4)이며 종들은 특별히 파송된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패한 지도자들을 경책하시려고 하셨다.
- (7)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지적한 것을 통해 깨닫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7. **㉠ 포도원 주인이 파송한 종을 농부들은 어떻게 대하였는가? (3절)**

- ㉠** (1)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포도원 소출도 없이 거저 보내었다.
- (2) 농부들은 주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순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인이 파송한 종을 구타하였으니 이는 주인을 멸시한 행위인 것이다.
- (3)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하여 그들의 죄상을 지적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역사를 가리킨다(왕상 19:14; 대하 24:19-22; 렘 20:2; 37:15; 암 7:12; 마 23:24; 행 7:52; 히 11:37, 38).
- (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언(直言)하는 자들을 싫어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감을 갖기 일쑤이다. 그러나 말씀은 입에서는 쓰지만 속에 들어가서는 달고 좋은 약이 되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8. **㉠ 이처럼 패역한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대하였는가? (4, 5절)**

- ㉠** (1) 주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농부들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종들을 파송하였다. 그러나 패역한 농부들은 다시 준 기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동일하게 종들을 구타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 (2)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셨는데(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등)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이다(사 48:9; 롬 9:22; 벰전 3:20; 벰후 3:9).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을 외면한 채 자행 자지(自行自止)했음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임에 분명하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뜨거운 사랑과 인내로 우리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인내하심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다.

9. ㉠ 포도원 주인의 인내와 사랑의 극치(極致)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6절)

- ㉠ (1)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파송한 종들이 농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며 농부들이 그 아들만은 공경하리라고 기대하였다.
 (2)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인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참조, 요 3:16) 사랑과 연민의 감정을 표현하시는데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고 하셨다.
 (3)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마지막 방책인데 그가 곧 보냄을 받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 것인가를 알게 해준다.
 (4)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과하지 말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행 16:30-34).

10. ㉠ 패역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베푸는 최후의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7, 8절)

- ㉠ (1)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인내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포도원을 자신들이 가지려는 불의한 욕심으로 상속자인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다.
 (2) 농부들의 완악한 생각은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으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려는 욕심이었다. 그것을 위해 사전에 계획하고 그것에 의하여 사랑의 표시였던 상속자를 살해하였다.
 (3) 그들은 비록 상속자를 살해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인은 살아 있으며 그가 패역한 자들을 응징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시 2:4).
 (4)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 어리석고 패역한 농부와 같다. 항상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반항의 역사인 것이다.
 (5) 본절은 예수께서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것이 예언된 말씀이다(마 21:39; 요 19:17; 히 13:12). 이것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11. ㉠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기회마저 멸시한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9절)

- ㉠ (1) 그 주인은 포도원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2)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게 질문하셨고 마태는 그들이 대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마 21:41).
 (3) 농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나 결코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이는 궁극적 승리가 포도원 주인 곧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4) 결국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다른 농부들, 즉 이방인에게 이양(移讓)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롬 9:19-33; 11:16-32).
 (5)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준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각기 직무를 맡기셨는데(참조, 마 25:14, 15) 그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것도 빼앗기고 음부로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마 25:26-30).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기회와 권면을 소홀히 하지 말고 또한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충직한 청지기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참조, 마 24:45-51).

12. ㉠ 예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 귀절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 (10, 11절)

- ㉠ (1) 그 말씀은 시편 118:22, 23의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의 인용이다.

- (2) 이 말씀은 공관 복음서의 저자가 다같이 인용하였는데(마 21:42; 눅 20:17) 건축자들, 즉 유대의 지도자들이 돌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모독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인 것이다.
- (3) 그런데 버려진 돌이란 참된 의미에서 천대받거나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즉 열방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이다(참조, 시 147:20).
- (4) 이런 사실은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그분은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에게 거부당하여(15:13; 마 27:22, 23; 눅 23:31) 십자가의 형틀에서 돌아가셨다.
- (5) 그러나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므로 선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 (6)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인간의 시각에서는 무가치한 존재였으나 당신 스스로는 산 돌로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고(참조, 뵤전 2:4) 동시에 당신을 거부하고 궤박한 자들에게는 큰 형벌을 예비하셨다(참조, 뵤전 2:7, 8). 이 형벌로 인하여 이미 멸망한 자들도 많다(참조, 마 21:44).
- (7) 그러므로 우리들은 산 돌이신 예수를 삶의 주춧돌이자 머릿돌로 모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의 거침들이요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참조, 눅 20:16).

13. **☉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12절)**

- Ⓐ** (1) 그들은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 알고 그분을 잡으려고 했으나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떠나갔다.
- (2)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들이 당할 결과가 어떠한지 깨달았으나 회개하기는 커녕 오히려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 (3)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여겼고(마 21:46),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며(요 6:15) 바로 전에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이다(11:8-10).
- (4) 결국 그들은 패배자의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때가 그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 비유에서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
- (5)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잘 포착하여 회개치 않음으로 인한 결과(요 8:33-44; 9:39-41; 살후 1:8, 9)를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14. **☉ 예수께로부터 책(責)잡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를 보내었는가? (13절)**

- Ⓐ** (1) 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선택하여 예수께 보내었다.
- (2) 이들은 사두개파와 엷센파 그리고 열심당과 함께 예수 당시의 중요한 유대 분파들이었다.
- (3) 먼저 바리새파(the Pharisees)는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 헬레니즘의 타락한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킨 사람들을 의미한다.
- (4) 이들은 의식적(儀式的) 정결에 관한 율법을 지키는 데 철저하여 죄인들에서 음식을 구입하지 않고 죄인들의 집에서 식사한 하지 않았다.
- (5) 그리이스-로마 문화의 변동 속에서도 율법이 실행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새로운 전통을 발전시켰는데 B. C. 1세기의 유력한 두 지도자를 통하여 두 학파가 창시되었다. 그 하나는 힐렐(Hillel) 학파로 온건하여 유대 정통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 하여 로마의 법을 수용했고, 샴마이(Shammai) 학파는 완고하여 로마에 대해 배타적이었다.
- (6) 또한 율법 해석의 전통은 율법과 같은 권위를 갖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성문 율법’ 혹은 토라(Torah) 뿐 아니라 ‘구전 율법’도 포함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7) 사두개파 (the Sadducees)는 ㉠ 21을 참조하라.
- (8) 에센파 (the Essenes)는 바리새파와 같이 마카비 혁명 중 헬레니즘에 반대하여 정통주의를 표방했던 지도자들에게 근거한다.
- (9) 에센파 운동은 기독교가 생성되기 이전의 유대교에 있었던 부패적인 양상에 극도로 저항했던 세력으로 자체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곳에서 영적인 경건을 추구하며 살았다.
- (10) 이들은 철저한 금욕주의자들로 유대인의 생활을 타락시키는 모든 영향들을 극단적으로 반대하였고 금욕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자급 자족을 위해 육체 노동을 해야만 했고 재산은 공동 소유였으며 노예 제도와 전쟁은 거부하였다.
- (11) 에센파는 자신들만을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이스라엘로 간주하여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종교적 교류도 갖지 않았다.
- (12) 한편 헤롯당은 헤롯을 지지하며 로마에 대하여도 호의적이고 유대인들의 메시아 운동을 반대하는 일종의 정치적 집단이었다. 그러나 열심당은 어떤 회생을 감수하더라도 로마에 항거할 것을 결의한 열성적인 애국자들이었다.

15. ㉠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보내진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13절)

- ㉠ (1)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로운 자, 죄인으로부터 분리된 자로 자처하고 헤롯당은 로마와 헤롯을 지지하는 정치적 집단이기 때문에 그 들은 연합할 수 있는 공통점이 전혀 없었다.
- (2) 또한 헤롯당은 이방인들의 예술, 건축, 운동 등을 좋아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에 비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었다.
- (3) 따라서 이들의 결합은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화합할 수 없는 것이 화합하고 원수끼리도 동맹을 맺는 경우가 많다 (참조, 눅 23:12).
- (4)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기를 보여 주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실족하지 않도록 감당할 힘과 또한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다 (참조, 고전 10:13; 벧후 2:9).

16. ㉠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보내진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하였는가? (14절)

- ㉠ (1) 그들은 예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신 1:17)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는 일이 없는 분이라고 했다.
- (2) 이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우리만치 예수에 대하여 정확히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가장 열렬한 제자들인 제 행세하였다.
- (3) 그들의 이런 예우 (禮遇)는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로마의 가이사까지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시면 그것을 옹무로 만들기 위한 포석 (布石) 이었다.
- (4)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혹하여 (시 36:1-4; 잠 2:16; 룎 16:18) 죽음의 길로 유도한다 (잠 26:28; 단 11:21, 25, 27; 행 12:21-23).
- (5) 따라서 성도들은 아첨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잠 20:19) 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또한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 (시 5:8, 9).

17. ㉠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질문하였는가? (14, 15절)

- ㉠ (1)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 (稅) 를 바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 (2) 이 세는 A. D. 6년 아켈라우스 (Archelaus)가 폐위된 후 세리들이 유대의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서 거두어 로마로 보낸 인두세 (人頭稅) 를 말한다.
- (3) 이런 일은 로마 황제를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며 신적 권위까지 부여하고 유대가 그

나라의 속국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으므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불만스러운 제도였다.

- (4) 따라서 이 질문은 매우 교묘한 함정이었다. 만일 긍정적인 답변이면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애국자들의 극한 반발이, 부정적인 답변이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으로 해롯당이 저항할 처지였다 (눅 20:20; 23:2).
- (5) 사단의 시험은 이와 같이 매우 간교하여 성도들을 궁지에 몰아넣곤 한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엡 6:10-18) 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

18. **㉠** 바리새인과 해롯당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셨는가? (15절)

- ㉠** (1) 예수께서는 당시의 주화(鑄貨)였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다.
 (2) 데나리온(Denarius)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작은 은화로 법정 인두세의 납부액이기도 하였다.
 (3)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게 하심으로 은연중에 그들이 인정하는 모든 행위, 즉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들의 의무를 지적하시려고 하셨다.
 (4) 질문자의 의도와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의 간계에 대항하여 싸울 때 표면적인 모양에 현혹되지 말고 핵심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갖게 하신다.

19. **㉡** 당시의 화폐였던 데나리온에 대하여 설명하라(16절).

- ㉠** (1) 본절에 의하면 그 주화는 그림(사람의 모습)과 글씨가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예수 당시는 디베리우스(Tiberius Claudius Caesar Augustus, A. D. 14-37)가 통치했는데 그 당시 주화를 보면 한 면에는 그의 얼굴이 있고 다른 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3) 그 글씨의 내용으로 전면은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이고 이면(異面)은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4) 일반적으로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통용된 지역이 그 화폐에 찍힌 화상(畫像)의 실제 인물에게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라이트푸트(J. Lightfoot)는 '어떤 왕의 돈이 통용되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지 그곳 주민은 그 왕을 자기들의 군주로 인정한다'고 말하였다.

20. **㉢** 예수께서 데나리온에 그려진 그림과 글씨를 통하여 질문자들에게 주신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17절)

- ㉠** (1) 예수께서는 질문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다.
 (2)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3)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그 속에 예속되어 있으므로 땅에서 세워진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참조, 롬 13:1-7; 벰전 2:13-17).
 (4) 그러나 이 땅의 것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경배나 순종까지 바치지 말아야 한다.
 (5)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의 법과 통치자가 선하고 흠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아래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종교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6) 따라서 예수께서는 당시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시키려는 면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종교적인 면에만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시켰었다(참조, 전 8:2; 마 17:27; 딤후 3:1; 벰전 2:13, 14).

21. ㉠ 사두개파에 대하여 설명하라(18절).

- ㉠ (1) 이들은 유대 종파의 하나로서 세력이 강했는데 종교적이거나 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더 뚜렷했다.
- (2) 사두개(Sadducee)라는 말은 '의로운'이란 뜻의 히브리어 <싸디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 (3) 그리고 그 기원은 솔로몬의 제사장인 사독(삼하8:17) 이후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의 구성은 제사장파 관련을 맺고 있는데 상당히 귀족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대제사장과 주요 사제(司祭)는 거의 사두개파로 구성되어 있다.
- (4) 특히 이들은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민중들과는 단절되었고 대제사장의 가문이나 예루살렘의 귀족이 아니면 사두개파의 일원으로 가입할 수 없었다.
- (5) 사두개파의 가르침은 타협적인 바리새파의 교리를 거부했고 특히 구전 율법(oral law)은 철저히 부정했다.
- (6)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내세의 기쁨이나 슬픔까지도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제거해 버렸고(참조, 행 23:8) 그와 함께 천사나 악마의 존재도 부정하였다.
- (7) 결국 그들은 운명이라는 것을 모두 말소시키고 만사를 인간의 자유 의지와 책임의 탓으로 돌렸다.
- (8) 위와 같이 그들의 교리는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진리를 거부하였고 단지 모세 오경에만 정경적 권위를 부여하였다.
- (9) 신약에서의 사두개파는 복음서 초기에 어떤 역할도 없었고 예수의 초기 선교에서도 관심 밖이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들에 대한 두드러진 언급은 부활에 관한 질문에서였다(마 22:23-33; 눅 20:27, 28).

22. ㉠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 (19-23절)

- ㉠ (1)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께서 부활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에게 회개와 거룩한 삶을 권유하시므로 자신들이 믿는 교리와는 다른 예수의 가르침에 타격을 주기 위해 찾아왔다.
- (2) 예수의 말문을 막기 위한 그들의 질문의 요지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수혼 제도(媾婚制度)에 따라(신 25:5-10) 7형제 집안에서 맏형이 취한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형이 죽어, 바로 밑의 동생이 대신 그 형수를 취하였으나 그도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계속해서 같은 경우로 인해 7명이 모두 형수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한 뒤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 (3) 이와 같은 질문은 부활 교리로부터 나오는 불합리성을 지적하므로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한편 그들은 이런 난제로 그들과 대립하던 바리새인들도 제압하려는 속셈이 있었다.
- (4)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관한 질문은 내세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발상(發想)된 것이므로 앞으로 읊 내세에 의하여 그 질문은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다.

23. ㉠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질문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수혼(媾婚) 제도는 어떤 것인가? (19-23절)

- ㉠ (1) 이 수혼법(Levirate Law)은 신 25:5-10에 정의되어 있는 혼인 형태를 가리킨다.
- (2) 이 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미망인을 보살피기 위한 사회 보장이라는 목적도 있었다.
- (3) 이것은 동족혼(同族婚)의 가치성과 아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아들이 아닌 딸

만 있을 때에도 이 수혼법은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비록 딸이라도 아버지의 기업 을 이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민 27:4;36:8).

- (4) 성경에 언급된 수혼의 첫번째 예는 유다의 아들 오난과 다말과의 관계이다(창 38:6-10). 두번째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룻 2:1-4;4:1-13)인데 두 사람을 통하여 다윗의 할아버 지인 오벳이 출생하였다(룻 4:17; 마 1:5,6).
- (5) 이런 법이 있는데도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망인의 제소로 성읍 장로 들 앞에서 아우의 본분을 이행하지 못한 죄로 재판을 받고 그대로 순응하지 않으면 이 스톱라엘 전체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었다.
- (6)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앗시리아나 헷타이트 그리고 가나안에도 널리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서 지켜지던 이 법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대(代)를 잇는다는 측면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정된 것이었다.
- (7) 따라서 이런 사실로 비추어 볼 때 근친 상간으로 명시된 형수와의 성 관계는 형이 살아 있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레 18:16;20:21).

24. **㉠**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오해하였다고 하셨는가? (24절)

- ㉠** (1)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하였다고 하셨다.
- (2)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오해하였는데 첫째는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였다(요 19:25; 사 26:19; 단 12:2).
- (3)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셨 듯이 죽은 자의 육체까지도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
- (4) 그러나 부활한 생명체는 천사와 같아서 영적이며 영광스럽고 영원한 새 생명이 된다.
- (5)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롬 4:17; 히 11:19) 악한 것을 선하게 하는 신비로운 부활만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하였 다.
- (6)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면 사두개인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당하고 거룩한 나라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계 22:18, 19). 성경 은 성령의 감동을 입고서야 비로소 그 깊은 뜻들을 알 수 있다(벧후 1:20, 21).

25. **㉠**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의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25절)

- ㉠** (1) 그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부활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 (2) 이것은 현세와 내세와의 명백한 차이를 설명한다. 현세에서 사람들은 결혼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참삶의 의미를 느끼고 자손의 번성을 꾀한다.
- (3) 그러나 내세에는 큰 기쁨이 항상 존재하고 온 인격들이 한 가정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과 자손을 퍼뜨리는 일 등은 필요치 않다.
- (4) 따라서 그곳은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또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예속되지 않으며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고정될 것이다(참조, 계 7:2-8).
- (5)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서 천사들의 존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음에도(창 19:1, 15; 28:12; 32:1) 불구하고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한 것은(행 23 :8) 예수의 지적처럼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소치였음을 알 수 있다.

26. **㉠** 예수께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공박하셨는가?(26, 27절)

- ㉠** (1) 예수께서는 성경을 잘못 사용하여 오해한 사두개인들의 오류를 지적하시고 성경을 옳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주장을 일축(一蹴)하셨다.
- (2) 사두개인들은 신 25:5,6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였으나 오히려 예수께

서는 출3:6의 말씀을 사용하시어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셨다.

- (3) 그들은 현재적인 삶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므로 단편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포괄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출3:6을 언급하시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아직도 살아서 영광스런 부활을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신다.
- (4)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언급하신 것은 그들이 현재도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활을 분명히 믿었다(참조, 창22:5, 8; 히11:19).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단편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사34:16).

27. ㉠ 부활(復活, Resurrection)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부활은 '일어남'을 뜻하는 헬라이 <아나스타시스>나 '일으킴'을 뜻하는 <에게르시스>에서 유래된 말이다.
- (2) 성경적 의미의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뜻한다.
 - (3) 구약에서 부활에 관한 언급은 삼상2:6에 나타난 한나의 노래와 욥의 말 가운데서(욥19:25-27) 사후 세계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 (4) 그리고 구약의 다른 언급들은 직접적인 육체의 부활을 말하지는 않으나 부활 교리에 대한 믿음을 함축하고 있다(시16:9-11; 사26:19; 겔37:1-14; 단12:2; 호6:2 등).
 - (5) 한편 신약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과 사건이 많이 언급되어 있다. 예수께서 친히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5:35; 눅7:11; 요11:11) 그가 친히 죽으셨을 뿐 아니라 친히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주인이심을 보여 주셨다(마27:52, 53).
 - (6) 더우기 예수께서는 이 세상 끝날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심판하시는데 불신자도 부활하여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으며(마10:28; 요5:28, 29; 행24:15)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후5:10).
 - (7)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활의 시기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주의 재림이라고 언급한다(고전15:51, 52; 살전4:16).
 - (8) 또 부활체(復活體)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데 이들은 육체를 죄의 원천이거나, 죄의 본거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이다(마12:24).
 - (9) 성경에서는 육적인 몸이 악하거나 죄의 원천이라고 주장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헬, 카르디아)이 악하다고 지적하였다(렘17:9; 욥2:5).
 - (10)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육은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매체이며 신자(信者)에 관한 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고전6:15) 성령의 전(殿)이며(고전3:16; 6:19) 주께 봉사하는 수단이다(고전6:12, 13).
 - (11) 또 예수는 부활하신 후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눅24:38-43; 행10:41) 승천하실 때에도 육적인 몸을 버리지 않으셨다(행1:1; 빌3:21; 계1:17).
 - (12) 따라서 부활한 신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이므로(고전15:49; 빌3:21; 요일3:2) 역시 육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참조, 고전15:35-42) 인간은 그 전체성에 있어서 구원을 받으며 새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사65:17; 66:22; 마5:5; 계21:1-3).

28. ㉠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28절)

- ㉠ (1) 서기관(scribes, 히, 쏘페림; 헬, 그람마테이스)은 서기(書記), 글 베끼는 사람이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가족의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수공업읍 보존시킨 어떤 족벌에 주로 한정되었다.

- (2) 통일된 유대 군주제와 그 후 군주제 시대에 많은 수의 서기관들이 레위 지파에서 배출되었는데 이는 성전 운영의 국고(國庫) 조직을 위한 요구에서 생겼다.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무를 기록하였고(대상 24:6), 왕실 서기관은 성전 수리비로 모금된 공공 기금을 계산하여 기록하였다(왕하 12:10, 11; 대하 14:11).
- (3) 서기관들 중 가장 중요한 서기관은 정부의 행정 서기관이었다. 그들은 정부의 고문으로 일했거나(참조, 대상 27:32) 군대 소집의 책임도 있었다(왕하 25:19).
- (4) 신약 성경에는 서기관이 율법 학자 및 권위자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신약의 서기관은 제사장(사두개파)과 바리새파와 관련하여 나와 있다.
- (5) 바리새파 학자들은 랍비 교리에 의한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후에는 '현인' (賢人) 또는 랍비(Rabbi)로 알려졌다.
- (6) 한편 바울은 서기관을 기록 율법과 구두 율법 학자인 변증가로 이해했는데(고전 1:20-25) 그의 견해로 볼 때 변증법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과 반대되는 어리석음이었다.
- (7) 그러나 초대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합법적인 책임하에 있는 그리스도인 학자와 교사로서의 서기관 기능이 보존되었다(마 8:19; 13:52; 23:34). 그래서 모세 율법이 폐지되지 않고 초대 교회에서 다시 필요하게 사용되었다.

29. **㉠** 서기관이 예수께 대하여 질문한 내용은 무엇인가? (28절)

- ㉠** (1) 그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였다.
- (2) 이 서기관은 사두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악의에 찬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대답을 잘하셨고 그 결과 자신들과 반대 교리를 주장했던 자들이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다.
- (3) 그래서 서기관은 그 당시 의견이 분분했던 내용을 예수께 질문하여 좋은 답변을 구하려고 하였다.
- (4) 유대인들은 10계명, 모세 오경 외에 많은 구전의 계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느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 (5)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첫 계명을 제물과 회생에 관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는 적절하고 온전한 예물에 달려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베데(Bede)는 말하였다.
- (6) 이 같은 율법에 관한 논쟁으로 유대인 사이에는 두 가지 대립된 경향이 있었다. 그 하나는 율법을 분석하는 경향으로 사소한 조항으로 분류하는 것이었고(마 5:33-37; 23:16-18), 다른 하나는 율법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일이었다.

30. **㉠**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어떠하였는가? (29-31절)

- ㉠** (1) 그는 서기관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답하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태도와 피조물인 인간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곧 사랑이다.
- (2)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즉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신 6:4,5의 쉐마(Shema)를 인용하셨다. 이것은 유일신론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 한 분만 사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3) 먼저 마음(heart)은 인간 존재의 추진력의 중심지이고, 모든 생각, 말, 행동의 근원이다(잠 4:23). 그리고 목숨(soul)은 인간의 감정이 활동하는 자리이며, 뜻(mind)은 인간의 순수한 지식 생활의 중심일 뿐 아니라 기질과 마음가짐의 중심이다.
- (4) 그러므로 이 말씀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인격을 통하여 사랑하라는 가르침이다.
- (5) 두번째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다(레 19:18). 이것으로써 예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

한 온전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연합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제시하였다.

(6)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그분의 사랑을 모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이다 (참조, 골 3:14; 벧전 4:8; 요일 3:14; 4:8).

31. **㉠** 예수의 답변에 대한 서기관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32, 33절)

- ㉠** (1) 서기관은 예수의 답변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그 당시 많이 주장되었던 예물에 대한 계명보다 사랑이 우선임을 인정하였다.
- (2) 서기관은 예수의 명확한 답변을 다시 자기의 말로 인정하고 모든 제사보다도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수용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파악하였던 것이다.
- (3) 진리에 대한 서기관들의 이런 태도는 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그는 율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으나 진리 앞에서는 자신의 지위나 명예 또는 체면도 버릴 수 있었다.
-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과 같이 진리 앞에서 신앙적 교만, 지위, 명예 등을 버리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참조, 벧전 1:22; 요삼 1:3, 4).

32. **㉠** 서기관들의 태도를 보신 예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34절)

- ㉠** (1)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므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라고 하셨다.
- (2) 예수께서는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들에 대해 호의적(好意的)인 태도를 보이신다.
- (3) 그래서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다고 하셨다. 사소한 율법의 준수(7:3, 4; 마 23:23)와 같이 소극적인 것보다 계명 전체의 중심이며 계명의 기초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4) 우리도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교리나 성경을 지식으로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한 율법의 준행이 필요하다 (참조, 마 7:21).

33. **㉠** 성전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시 110편을 인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35-37절)

- ㉠** (1) 이 부분에서 예수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메시아로 오셨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 (2) 이것은 이미 앞에서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하여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후 그 내용과 연관되는 질문을 예수께서 친히 대답하심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밝혀 주시는 사랑을 보여 주신 것이다.
- (3)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참조, 창 49:10; 삼하 7:12, 13; 시 89:3, 4; 암 9:11; 미 5:2).
- (4) 예수께서는 서기관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즉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된 것이다.
- (5) 결국 예수께서는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며 곧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고 어떤 종교적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올바른 메시아관(觀)이 없이는 구원도 없음을 알리셨다.

34. **㉠** 예수께서 인용하신 시편의 내용은 무엇인가? (36절)

- ㉠** (1) 그 내용은 시 110:1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는 구절이다.
- (2) 그러나 시편의 히브리 원문은 첫 부분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로'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
- (3) 시편의 이 부분은 백성들이 다윗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이다.
- (4) 이 시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배에 동참하면서 위엄과 그 통치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고전 15:25).

- (5) 이것은 결국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밟혀 굴복당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6) 한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기는 하지만 그 메시아가 다윗의 주라는 사실이다.
 (7)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사람들도 그가 다윗의 자손임을 외쳤다(참조, 마 12:23; 20:30, 31; 21:15). 거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가 곧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사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35. ㉠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는가? (38-40절)

- ㉠ (1) 예수께서는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2) 그들은 율법(Torah)의 직업적 해석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율법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그들은 대예복(大禮服)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받고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 그것은 교만이었으며 자기들의 종교적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4) 이런 교만은 영적으로 부패하고(호 7:9, 10)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며(시 10:4-6) 불순종하게 된다(참조, 렘 43:2; 49:16).

36. ㉠ 위와 같은 서기관들이 행하는 잘못과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가? (40절)

- ㉠ (1) 그들은 과부의 가산(家産)을 삼키며 그러면서도 거룩한 채하며 길게 기도하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재이나 고아, 과부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하셨으며(출 22:22; 신 24:17) 서기관들은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보살피 줄 지도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데 온 생각을 집중하였다.
 (4) 오늘날도 사회 구조 속에서 약한 자나 외로운 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5)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로(末路)에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고 야고보 사도 역시 지도자의 심판이 더 크다고 했다(약 3:1).

37. ㉠ 오늘날 신앙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41-44절)

- ㉠ (1) 예수께서는 연보케에 두 렙돈을 넣는 과부를 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
 (2) 즉 그 과부는 자신의 생활이 쪼들리는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만은 풍성했고 부유했기 때문이다.
 (3)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일을 모두 이루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려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흔하다.
 (4)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양이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원하신다. 이것은 당신께는 결코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이고 또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 영광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이다(고전 10:31).

38. ㉠ 과부는 연보케에 얼마의 돈을 넣었는가? (42절)

- ㉠ (1) 그녀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2) 여기서 렙돈(Lepton)은 헬라의 화폐 단위로 로마 고드란트(Kodrant)의 2분의 1에 해당하고, 고드란트는 앗사리온(Assarius)의 4분의 1에 해당하며 앗사리온은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Denarius)의 16분의 1에 해당한다.

- (3) 따라서 하루 품삯을 12,000원으로 계산할 때 1렙돈은 약 95원에 해당하며 과부가 드린 헌금은 약 190원 정도가 된다.
- (4) 이때의 화폐 단위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명 칭		가 치	관계 성귀
유	게 라(Gerah) 베 가(Beka) 세 켈(Shekel)	세켈의 1/20 세켈의 1/2 금-은의 15배 은-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	출 30:13 출 38:26 대상 21:25 출 30:24 삼하 24:24
	므 나(Minah) 달란트(Talent)	달란트의 1/60 금-은의 15배 은-6,000드라크마	눅 19:13-25 대상 29:4 출 38:27 마 18:24
로 마	고드란트(Kodrantes, 호리) 앗사리온(Assarius) 데나리온(Denarius)	앗사리온의 1/4 데나리온의 1/16 하루 품삯	마 5:26 마 10:29 마 18:28
	렙 돈	로마 고드란트의 1/2	12:42 눅 12:59
		드라크마(Drachma)	하루 품삯

연구자료

잠긴 헌금. 본장에는 예수께서 한 가난한 과부(寡婦)가 연보(捐補)하는 것을 보시고서 칭찬하신 기사가 나온다(41-44절). 그 과부가 바친 헌금의 액수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져 100원짜리 동전 두 닢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과부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오늘날의 성도들이 연보하는 자세는 어떠한가? 과연 자신의 한 달 수입 중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칠 헌금을 정성껏 구별해 놓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않고서 적금(積金)과 교육비, 각종 세금, 생활비 등을 먼저 떼어놓은 후 남은 돈으로 헌금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참으로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헌금은 무익한 것이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헌금이 될 뿐이다. 하물며 사람들간에도 웃사람에게 헌물(獻物)할 때에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 자신이 쓰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것을 바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겠는가? (참조, 말 1:6-8)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살아나갈 수 있는 재정 수입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바치는 헌금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잠긴 헌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참조, 고후 9:7).

제 13 장 종말론(終末論) 전반에

관한 예수의 교훈

단락구분 1-2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다 / 3-8 마지막 때에 나타남 징조 / 9-13 핍박의 경고 / 14-23 마지막 때의 대환난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 / 24-27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 / 28-31 무화과나무에 관한 비유 / 32-37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며 이 건물들이 어찌하니이까

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3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중용히 묻자오되

4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7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8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판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10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11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2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음진저) 그때에 유대

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이다

15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16 밭에 있는 자는 걸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이다

17 그날에는 아이뱀 자들과 첫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18 이 일이 거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19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0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1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란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23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4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8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29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라

31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2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만 아시느니라

33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4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1. ㉠ 종말에 관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 예수께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와 그때를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은 마 24장 및 눅 21장과 같은 내용이다.
- (2) 예수께서는 세상의 종말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이 전쟁에 휘말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된다고 하셨다.
- (3) 그리고 이런 때가 되면 죽음 후에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 ㉠ 성전에 대한 어느 제자의 질문을 듣고 예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1,2절)

- ㉠ (1)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가 예수께 성전의 외형이 웅장하고 거대한 것을 보고 그 성전을 바라보신 소감이 어떠한가를 여쭙어 보았다.
- (2)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와는 달리 성전이 둘 하나도 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말로 대답하셨다.
- (3) 제자들은 어느 한 순간 눈앞에 보여지는 외형에 마음이 집중되어 그것만 중시하는 단 순함에 빠졌는데 예수께서는 건물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 (4) 사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알 수 있다. 주춧돌 하나의 길이가 7.3m, 높이가 1.2m나 되었으니 성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 (5) 그러나 예수께서는 건물의 성전보다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성전(고전 3:16)이 더 중요하며 그 성전이 항상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위와 같은 사실을 대답하셨다.
- (6) 이 같은 말씀은 수십, 수백억 원의 돈으로 치장한 교회 건물을 바라보고 자신의 목회 성공했느니, 다른 교역자보다는 영력이 뛰어나다느니 하고 착각하는 우매하고 고지식한 목회자에게 도전이 되기에 족하다. 교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협한 생각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3. ㉠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무슨 질문을 하였는가?(3,4절)

- ㉠ (1)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수의 예언을 듣고 그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께 질문하였다.
- (2) 그 질문은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그 징조는 어떠한가 라는 내용이었다.
- (3)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께 질문한 자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나(마 24:3,4; 눅 21:7) 질문자를 밝힌 곳은 본서뿐이다.
- (4) 한편 예수께서 예언하신 성전의 파괴는 A. D. 70년 로마의 디도(Titus) 장군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파괴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에 더 큰 의미가 주어진다.

4. **㉠** 제자들이 질문한 성전 붕괴의 시기와 그 증거에 대하여 예수는 어떠한 대답을 주셨는가? (5-8절)

- ㉠** (1) 예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고 그때에는 각처에서 난리 소문과 기근, 지진 등이 일어날 것인데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 세상의 끝은 아니라 하셨다.
- (2) 많은 사람들은 위와 같은 현상에 의하여 두려움에 빠지고 그때가 바로 종말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 (3)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의 재림이 가까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 신앙적으로 깨어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다(롬 13:11-14).
- (4) 그러나 일부 성직자들은 이런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한 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뿐이다(계 19:20;20:10).

5. **㉠** 성도들을 미혹(迷惑)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5, 6절)

- ㉠** (1) 거짓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 (2) 여기서 ‘미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인데 이는 ‘잘못 인도하다’, ‘방황케 하다’의 뜻을 갖고 있다.
- (3) 한편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Antichrist) 라고 표현하고 있다(참조, 요일2:18, 22;4:3;요삼 1:7).
- (4)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종교적으로 진리를 왜곡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나 천재 지변(天災地變)을 이용하고 또는 신앙적 핍박을 통하여 진리로부터 떠나게 한다.
- (5)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대표적이고(단 7장;11:36-45;12:1-3) 신약에서는 당신의 대적자들에 관해 친히 말씀하신 예수의 가르침이 대표적이다(참조, 마 24:4, 5, 24;계 19:20).
- (6) 또한 이런 사상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세우고 있다(고후 6:15;살후 2:1-12).
- (7)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인상적인 귀절은 계 13장의 두 짐승에 대한 묘사에서 볼 수 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계 13:1-10)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계 13:11-18) 일반적인 견해를 따른다면 첫번째 짐승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의 마지막 세계 통치자이고, 두번째 짐승은 정치적 세력하에서 활동하는 종교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본다.
- (8) 이들 적그리스도는 사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사악한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 (9) 그러므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고 결코 그들의 사악한 제략에 현혹되거나 위축됨이 없이 담대한 신앙 생활을 경주해야 한다(참조, 요 16:33).

6. **㉠** 적그리스도 외에 말세에 나타날 징조는 무엇인가? (7, 8절)

- ㉠** (1) 그것은 전쟁과 천재 지변이다.
- (2)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마 24:6, 7) 상상할 수 없는 재난들이 속출하며(마 24:7, 8) 그런 가운데 세상의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사랑은 식어져 간다(마 24:12;딤후 3:1-4;약 5:3).
- (3) 따라서 이런 때는 단적으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마 24:37-39) 사람들은 세상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딤후 3:4) 그들로부터 경건의 능력은 부

인되며 세상에서 참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눅 18:8; 딤후 3:5)

- (4)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롬 13:12-14; 딤후 3:5).

7. ㉠ 예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경고는 무엇인가? (9절)

- ㉠ (1) 예수께서는 성도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다.
 (2)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도들을 공회에 넘겨 주고 회당에서 매질하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관장(官長)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3) 한편 예수 당시의 공회, 즉 산헤드린은 유대 전역에 걸쳐 강력한 행정권과 종교적 실력 행사 기관으로 군림하면서 한 개인의 사형을 논할 수 있을 만큼 그 세력이 대단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으므로 유대의 지배국인 로마의 총독에게 사형수의 사형 집행을 일임해야만 했다.
 (4) 그러므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다수인 산헤드린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동족과 이방인(로마)의 위협 및 종교와 정치적인 폭행을 감수해야 했다.
 (5)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다방면에서 어려운 시련이 닥치게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런 때에 세상 세력들로부터 성도들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6) 이런 면은 성경을 통해 보아도(행 4:3; 6:11-13; 25:23) 알 수 있고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아서도 이런 말씀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일에 직면하여 크게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일은 세상 끝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완전히 종식될 것이다.

8. ㉠ 여러 가지 환난이 성도들에게 밀려오지만 그래도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가? (10절)

- ㉠ (1) 이런 환난이 성도들에게 밀어닥치지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된다.
 (2) 복음(gospel)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을 가리킨다(롬 1:2; 살후 2:13, 14; 히 10:9).
 (3) 그러므로 이 복음은 결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어떤 세력에 의해 그 파급 효과가 감소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도록 만드실 것이다(참조, 롬 15:18, 19).
 (4) 또한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것은 유대인을 포함하여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5) 이러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동역자들을 택하시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다(참조, 벰전 2:9, 10).
 (6)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마 28:19, 20; 행 1:8) 우리가 사랑에 빛진 자이기에(참조, 롬 1:14)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롬 1:16).

9. ㉠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11절)

- ㉠ (1) 사람들이 성도들을 끌어들여 관장들이나 임금들에게 넘겨 줄 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2) 그 이유는 말을 하는 자는 성도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즉 그 시에 성령께서 해야 할 말들이 생각나도록 도우시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신다.

- (3)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은 전지(全知)하시고 전능(全能)하시므로 필요한 때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구재(口才)와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눅 21:14, 15).
- (4)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나치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식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외칠 때 수천 명씩 회개한 사건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행 2:37-41; 4:1-4).
- (5) 이는 인간의 구변(口辯)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롬 1:16, 17).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10. **㉠** 그리스도인이기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시련을 이겨 낸 후 받게 될 축복은 무엇인가? (12, 13절)

- ㉠** (1) 그리스도인들은 참다운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 (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
- (3) 더우기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위함이 아니라 검(劍)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참조, 마 10:34, 35). 즉 예수께서는 불의와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과 타협하여 대충 사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진리와 의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 가족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일이다.
- (5) 이처럼 생명적 싸움, 즉 진리와 비진리와의 견해 차이는 가족 관계를 초월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 (6)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하는 자신의 친동생 아벨의 생명을 해하였고(창 4:8; 히 11:4), 예수께서도 친히 복음 전파에 장애를 받고 핍박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셨다(요 9:18-22).
- (7) 그렇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한 천국과 상급은 결코 떼앗기지 않는다(마 5:10-12).

11. **㉠** 예수께서는 무엇 때문에 급한 도주를 명하셨는가? (14절)

- ㉠** (1) 본절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깨닫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 (2) 본서의 이 부분과 서로 병행되는 마 24:15-25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본서는 이것의 출처를 모호하게 언급했으나, 마태는 다니엘에게서 나왔다고 밝혔으며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도 마태는 '거룩한 곳'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 (3) 따라서 본절의 이 말씀은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다니엘도 세 군데에서 이를 암시하였다(단 9:27; 11:31; 12:11).
- (4) 다니엘의 이러한 예언은 B. C. 168년에 예루살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에게 점령되면서 번제단에 제우스(Jupiter, 主神)의 상(像)이 세워짐으로써 일단 성취되었다.
- (5) 그러나 예수께서 그 내용을 다시 인용하신 것은 앞으로 있을 성전의 파괴(Titus, A. D. 70)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대환난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었다.

- (6) 이러한 예언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講壇)에 어떤 형상을 지닌 우상이 서는 것을 말한다기 보다는 강단에서 당연히 외쳐져야 할 진리가 왜곡되어 말씀이 잘못 전달되는 상태를 지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 (7) 이런 상황을 통하여 성도들은 무조건 귀에 좋은 말만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
- (8)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면 무엇보다 우선 그것을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착수해야만 한다. 사실 성도 개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다(참조, 고전 6:19).

12. **㉠**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14-16절)

- ㉠** (1)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길옷을 가지러 풀이키지 말아야 한다.
- (2) 이미 예루살렘은 버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의 다른 산으로 도망해야 하며 지붕에 있는 자, 밭에 있는 자는 자신들의 생명을 위하여 재물도 버리고 도망하여야 한다.
- (3) 만일 재물에 욕심을 내어 되돌아가는 자들은 롯의 아내와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창 19:26).
- (4) 온 인격을 앗아갈 환난이 급하게 임하는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런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은 노아의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홍수로 멸망당하기까지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 쾌락을 즐기다가 멸망당하였다(마 24:37-39).
- (5)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적 지혜와 함께 때가 되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마 25:1-13; 눅 21:25-28; 딤후 3:5).

13. **㉠** 세상이 끝나는 때 어떤 자들에게 화(禍)가 있을 것인가? (17절)

- ㉠** (1) 그날에는 아이벳 자들과 젓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 (2) 이 말씀의 표면적인 뜻은 임신한 여인이나 젓먹이를 키우는 여인은 재난이 닥쳐올 때 빨리 피할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이다.
- (3) 즉 남자들은 자신들의 재물이나 옷 등을 쉽게 버리고 도망할 수 있으나 여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와 자녀들까지 어려움에 처하기 쉽다는 것이다.
- (4) 이것은 다른 면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거기에 애착을 보인다면 마지막 때에 그것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역(逆)으로 누가는 임신하지 못한 자와 젓먹이가 없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다(눅 23:29).

14. **㉠** 언젠가 환난이 닥치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18절)

- ㉠** (1) 반드시 닥치게 될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 (2) 이것과 같은 병행귀인 마태복음 24:20에는 '겨울이나 안식일'이 안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였다.
- (3) 일반적으로 안식일이나 겨울은 피난하기 어려운 때이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 (4) 따라서 재난의 시기도 계절적으로 좋은 때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다. 즉 기도의 능력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
- (5) 엘리야도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면 비도 그치고, 다시 내리기도 하였다(약 5:17, 18). 그러므로 우리도 재난이 반드시 임하는데 그 시기가 어려운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15. **㉠** 예수께서 위에 제시한 날을 가리켜 어떤 날이라고 하셨는가? (19절)

- Ⓐ (1) 그날은 '환난의 날'이라고 하셨다.
- (2)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이 같은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 (3) 이와 같은 일은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때 이루어졌는데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하면 그때 100만 명이상이 죽고 10만 명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다.
- (4)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의 궁극적 원인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데에 있었다(참조, 마 23:37-39).
- (5) 물론 이런 일은 역사적 상황하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와 같은 사건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어질 대환난에 대한 예표인 것이다.
- (6) 그때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이 죄의 요소들로 인하여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지면 반드시 엄청난 심판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날을 고대하는 것은 그날에야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즉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믿는 성도들과 영원히 동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와의 차이이다(참조, 살전 4:17).

16. ㉠ 하나님께서 정하신 환난의 날에 택한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0절)

- Ⓐ (1) 환난의 날에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滅)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 (2) 그 실례로 로마의 디도(Titus)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A. D. 70) 공격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면 유대 민족은 하나도 살아 남지 못했을 것이다.
- (3)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대환난이 닥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심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환난의 그날을 단축시키셨다.
- (5) 이것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얼마나 큰가 알 수 있게 해주며 이런 사실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기쁨과 확신에 넘친 찬송을 불렀다(시 30:5).

17. ㉠ 말세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어떤 것이 있는가?(21-23절)

- Ⓐ (1)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들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보다 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된다.
- (2)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의 앞잡이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비진리의 길로 유혹하려고 한다.
- (3) 그들도 사단의 도움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므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말세에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셨다.
- (4) 특히 사람들은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사단은 인간들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미혹한다.
- (5) 사단도 영물(靈物)이므로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 이적을 행할 수 있다(참조, 출 7:11-22; 8:18, 19; 삼상 28:9-12; 마 7:22, 23; 24:24).
- (6)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이적을 추종하지 말고(신 13:1-3) 그것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가져야 한다(참조, 말 3:18; 마 16:3; 요 14:17; 롬 12:2; 요일 4:1).

18. ㉠ 예수께서는 사단을 힘입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을 볼 때 어떻게 처신하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는가? (23절)

- Ⓐ (1) 예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말고 행동을 삼가라고 하셨다.
- (2) 물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있던 자들은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성도들을 향한 훈계의 말씀이다.
- (3) 예수께서는 사단의 미혹이 있을 것으로 아시고 주의하라고 경계하셨다(5절; 요 13:19; 14:29; 16:4; 뱀후 3:17). 이런 경계는 물론 당신의 보호하심을 동반한 메시지이다.
- (4)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경고를 깨닫고 신앙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 경고를 흘려 버린 자들은 어두운 곳에서 고통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마 25:30; 눅 19:27).

19. ㉠ 세상 끝날 나타날 자연계의 변화는 어떠한가? (24, 25절)

- Ⓐ (1) 그때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 (2) 여기서 '그때에'란 종말론적인 의미가 내포된 표현으로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렘 3:16, 18; 욥 3:1; 숙 8:23).
- (3) 이런 징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참조, 욥 2:31; 눅 21:11).
- (4)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은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
- (5)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종말의 때에는 우주적인 소란 상태가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본다면 이는 분명히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천체의 소란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참조, 뱀후 3:10). 물론 이런 표현은 우주의 완전한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며 이 심판의 폐허로부터 새 세계가 탄생할 것을 뜻한다.
- (6) 이처럼 세상이 끝날 때를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은 설명하기를 '진리의 빛이 퇴색하여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7) 이것은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다(눅 18:8).
- (8) 그러나 성도들은 이처럼 힘든 환난의 날에 신앙을 잃지 않도록 평안한 시기에 더 많은 신앙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

20. ㉠ 자연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인가? (26절)

- Ⓐ (1) 그때에 인자(人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 상황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 (2) 한편 예수께서 오시는 상황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절이나 승천 때의 상황을 비취 볼 때 그분은 확실히 구름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행 1:9-11).
- (3)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며(참조, 사 97:2)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화로운 당신의 임재를 뜻한다(참조, 출 40:34; 왕상 8:10, 11).
- (4) 즉 예수께서는 초림 때와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다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지니신 모습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것이다.
- (5) 또한 예수의 재림은 어느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류에게 동시에 임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남을 자는 남게 되고 들림 받을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참조, 마 24:40, 41).

(6)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잠을 떨쳐 버리고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성실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堅持)해야 한다(마 24:42).

21. ㉠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7)

- ㉠ (1)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 (2) 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천사들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말씀이다(참조, 마 25:32).
- (3) 본절에 '사방에서'란 원문에서 <테사론 아네몬>으로 쓰였는데 이 뜻은 '네 종류의 바람'이다. 즉 동서남북의 모든 곳에서 택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모으실 것을 가리킨다.
- (4)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모으시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 모으시는 능력을 방해할 만한 세력이라고는 전혀 없다.
- (5) 그러므로 택함 받은 우리들은 어느 곳,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탈락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최후의 심판대에 서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스스로의 신앙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참조, 딤후 4:6-8).

22. ㉠ 예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가? (28절)

- ㉠ (1) 무화과나무의 상태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라고 가르치신다.
- (2) 즉 사람들은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軟)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 (3) 팔레스틴 지역에는 주로 상록수들이 자라지만 무화과나무처럼 계절에 따른 변화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낙엽수들도 있다. 무화과나무는 가을이면 잎이 떨어지고 봄에는 가지마다 수액이 올라 잎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름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 (4) 이와 같은 팔레스틴의 무화과는 열매가 열리기 위하여 많은 일조량(日照量)이 필요하며 또한 무화과의 참맛을 위해서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필요하다.
- (5) 이처럼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때를 분별할 수 있듯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비유를 제시하셨다.
- (6) 이러한 비유는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이 말세를 당하여 여러 환난을 당하고 또한 말세의 징조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산란해지지만 예수의 오심이 가까움을 인식하고 절망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러한 하나님의 암시를 바로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23. ㉠ 위와 같은 징조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30절)

- ㉠ (1) 예수께서는 이런 일들은 이 세대(世代)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예언은 1차적으로 로마의 침공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성취되었다(Titus, A. D. 70).
- (3) 그러나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면 유대 민족이 형성한 국가가 세계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존속할 것이고(시 12:7) 그 민족은 끝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 (4) 여하튼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는 이미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일밖에는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날과 그때에 대해 정확한 예지는 없지만 영적으로 항상 긴장하여 그분

을 기다릴 수는 있어야 한다.

24. ㉠ 예수께서는 당신의 예언에 대한 확실성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31절)

- ㉠ (1)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다.
 (2) 여기서 '천지'는 온 우주 곧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수의 말씀은 이 천지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보다 더 확실하며 신비성이 있다. 우주는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올 것이지만 예수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참조, 시 102:25-27; 사 51:6).
 (3) 예수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으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요 1:1,14).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사 40:8; 벰전 1:24, 25).
 (4)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미래를 계획하기 보다는 항상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계 1:8, 17, 18).

25.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언제인가? (32절)

- ㉠ (1)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2)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전지성(全知性)에 관한 의심을 품는다.
 (3)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적인 요소가 없는 단지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4)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인 능력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의 위대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려는 표현으로 봄이 마땅하다.
 (5) 그러므로 그 비밀을 모두 밝힐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대리자의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침범할 수 없었다.
 (6) 삼위 일체의 하나님은 동일한 인격체이시고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서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계신다.
 (7)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조차도 그날을 모르는 엄청난 비밀에 휩싸인 그것을 인간의 영적 통찰력으로 안다는 것은 거짓이다. 오늘날 주의 재림의 때에 관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확히 제시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무리들이 많다. 그러나 성경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의 행동은 확실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6. ㉠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33절)

- ㉠ (1) 그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성도들은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만 한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늘 긴장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2) 제자들에게 훈계하신 예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깨우침을 준다.
 (3) 왜냐하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에만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재림에 대처해야 할 신앙적 태도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4)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재림하실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와 마음이 흔들리게 되므로 그런 것에 대하여 '주의하라' 고 하셨다(5절).
 (5) 다음에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면 얼마나 당황할 것인가.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깨어 있으라' 고 하셨다(14:38; 엠 6:18; 히 13:17).
 (6)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육신의 일과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27. ㉠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으며 모든 일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어떤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34-37절)

- ㉠ (1) 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사무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후 불시(不時)에 돌아올 때 그 종들의 게으른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다.
 (2) 종들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았다. 그러나 언제인지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었다.
 (3) 성도들도 이런 상태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긴장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4) 그렇지만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늦을 때 마음 상태는 해이(解弛)해지고 게을러지게 된다.
 (5)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며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28. ㉠ 이 비유에서 종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34절)

- ㉠ (1) 주인은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하였다.
 (2)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성도들을 상징한다.
 (3)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으며 성도들은 그 목적을 잘 준행할 의무가 있다.
 (4)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고 인간들은 모든 일 중에서 최선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참조, 고전 10:31; 골 3:17; 뱀전 4:11; 계 11:13).
 (5) 따라서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29. ㉠ 주인이 돌아오는 시각은 알 수가 없다. 본절에 추측한 시간을 설명하라(35절).

- ㉠ (1)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알 수 없는데 혹 저물 때인지, 밤중엔는지, 닭 울 때인지, 새벽일런지 알 수 없다.
 (2) 본절에서 제시한 시간대(時間帶)와 현대의 시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시간 개념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시 대	구 분		시	각	관련 성귀	
구	밤	초 경	해질 때-오후 10시		애 2 : 19	
		이 경 삼경(새벽)	오후 10시-오전 2시 오전 2시-해 뜰 때		삿 7 : 19 출 14 : 24	
약	낮	아 침	해 뜰 때-오전 10시		창 29 : 25	
		오 정 서늘할 때 저 물 때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3시-오후 6시 오후 6시		창 18 : 1 창 3 : 8 잠 7 : 9	
신	밤	저 물 때	해질 때-오후 10시		35절	
		밤 중 닭 울 때 새벽	오후 10시-오전 1시 오전 1시-오전 4시 오전 4시-해 뜰 때		35절 35절; 눅 22:61 35절; 마 14:35	
24 시 간 제						
약	낮	아 침 (마16:3)	밤중기점-로마식 (요한복음)	새벽기점-유대식 (공관복음)	오늘날의 시 간	관련 성귀
			제 6 시	제 0 시	오전 6시	요 19:14
			제 9 시	제 3 시	오전 9시	마 20:3
		제 10 시	제 4 시	오전 10시	요 1:39	

	정 오 (행22:6)	제 12 시 제 3 시	제 6 시 제 9 시	오전 12시 오후 3 시	마 20: 5 마 20: 5
		제 5 시 제 6 시	제 11 시 제 12 시	오후 5 시 오후 6 시	마 26: 6 요 4 : 6
저 녀 (마16:2)		제 7 시	제 1 시	오후 7 시	요 4 : 52

30. ㉠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나 문지기는 어떤 상태로 있어야 하는가? (36, 37절)

- ㉠ (1) 주인의 돌아오는 시간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종들은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동시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實務)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 (2) 주인의 재산과 집을 지켜야 할 종들이 태만하면 그 집은 도적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종들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 (3)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모두 나태해진다면 주님의 호된 책망을 면할 수 없다.
- (4)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서의 삶은 위임받은 청지기들이기 때문이다.

31. ㉠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37절)

- ㉠ (1)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비록 그 시간에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으나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하셨다.
- (2) 그래서 예수의 교훈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당시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같은 권위와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
- (3)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알 수 있다.
- (4)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 기록이나 설화(說話)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살아 있고 또한 운동력이 있으므로 오늘날에도 사람들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히4:12).
- (5) 이 말씀은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 변할 수도 없고 또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말씀을 바꾸거나 더하거나 감할 수도 없다(참조, 마5:18; 계22:18, 19).

본장의 요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處處)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8절).



제 14 장 그리스도의 수난이 시작되다

단락구분 1-2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 / 3-9 향유로 예수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 / 10-11 가룟 유다가 배신하다 / 12-16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다 / 17-21 유다의 배신을 경고하시다 / 22-26 성만찬을 베푸시다 / 27-31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다 / 32-42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다 / 43-52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시다 / 53-65 산헤드린에서 심문받으시다 / 66-72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다

1 이튿날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제제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2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차하더라

3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0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12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이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13 예수께서 제자 중에 들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14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

더라 하라

15 그리하면 자리를 배종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시대

16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신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7 저를매 그 열 둘을 데리고 와서

18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대

19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20 이르시되 열 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21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22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3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1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2 저희가 깃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라

34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5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7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39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41 세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썬 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42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3 말씀하실 때에 곧 열 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4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45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46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47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48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 흩이뿜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52 베 흩이뿜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53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4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55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57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58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후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60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은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3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65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66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67 베드로의 풀 췌를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8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69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70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71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 닭이 곧 두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1. ㉠ 본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약술(略述)하라.

- ㉠ (1) 본장에는 3:1에서 시작된 예수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그 절정을 이루는 수난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중요성을 지닌다.
- (2) 본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악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지고, 특히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동고 동락(同苦同樂)하던 제자들의 흠여 집과 그들의 배신은 예수께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 (3) 이러한 일련의 수난 사건들은 부활 사건과 함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전반에 걸쳐 언급이 되어 있다.
- (4) 예수의 이 수난과 부활이 초대 교회의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는가는 각 복음서, 특히 본서에 수난과 부활에 관한 기사가 비교적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익히 알 수 있다.
- (5) 본서는 전체가 661귀절인데 그중 128귀절이 수난과 부활에 관한 기사이며, 이것과 합해서 후반부 242귀절 전부가 예수의 생애 중 마지막 1주일(예루살렘 입성에서 부활까지)에 관한 내용이다.
- (6) 교회는 분명히 예수의 수난과 부활에 대하여 단순히 역사적인 관심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진실로 이러한 사건들은 교회의 예배와 복음 증거의 기초를 형성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생명력이었다는 점에서 본장의 중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2. ㉠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던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던 때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틀 전이었다.
- (2)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첫 소생을 모두 멸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낸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들이다(참조, 출12:13, 23, 27).
- (3) 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نيسان 월(양력 3, 4월) 14일에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날이 되기 전에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였으며 14일 저녁이 되면 구운 양 고기와 함께 쓴 나물, 무교병을 먹었다(출12:8, 15).
- (4) 그리고 그날로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을 계속해서 무교 절기로 지켰는데 이때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제거당하였다(출12:15).

3. ㉠ 유대 지도자들이 명절에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의논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유대 지도자들은 민요(民擾)가 날 것을 두려워하여 명절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지 말자고 의논을 했다.
- (2) 오랫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제거할 방도를 구상하여 왔다(3:6; 11:18; 12:12). 이제 그들은 다시금 예수를 처치하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 (3)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장막절과 오순절처럼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순례객들이 절기를 축하하기 위하여 모여든다.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는 약 백만 명 정도의 인구가 모여든다고 한다.
- (4) 따라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절기를 축하하기 위하여 모여든 무리들이 들떠 있을 때 예수를 처치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만일 예수를 절기 기간 중에 죽인다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컸다.
- (5) 따라서 약간의 시간을 더 기다린 후에, 즉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대다수 떠난 후에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을 것이다.
- (6)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의 이러한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기치 않았던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생각을 바꾸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43, 44절).

- (7) 이처럼 악한 인격과 또 다른 악한 인격이 함께 어울리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파괴적인 계획과 악행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버린 인간에게 찾을 수 있는 최후란 멸망밖에 없다.

4. **㉠**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9절)

- ㉠** (1) 이것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이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을 말한다.
- (2)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것은 주위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그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해 변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위를 영원히 기념하신 예수의 태도에 잘 드러나 있다.
- (3)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많은 봉사를 했는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신다. 정작 관심을 보이시는 곳은 자신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는지의 여부일 뿐이다.
- (4) 따라서 우리들은 주어진 여건과 역량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에 봉사해야 한다. '듣는 신자'는 늘어나고 '봉사하는 신자'는 줄어 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봉사로 우리의 삶을 엮어 가야 할 것이다 (참조, 고전 4:2; 계 2:10).

5. **㉠** 여인이 예수께 부어 드린 향유는 어떤 것이었는가? (3, 5절)

- ㉠** (1)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매우 값지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었다.
- (2) 나드 향유는 주로 인도에서 자라는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Nardostachys Jatamansi)라는 식물에서 채취한 것으로 매우 값이 비쌌다. 가격은 한 옥합당 약 300데나리온 정도였다 (5절; 요 12:5).
- (3) 예수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한화 약 만 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참조, 마 20:1-16).
- (4) 이 여인은 요 12:3에 의하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임을 알 수 있는데, 그녀의 이러한 행위는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 (5)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느껴지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일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외쳐대면서도 조그만 회생조차 원치 않는 의식적인 신앙을 이제 우리는 버려야 한다. 대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조, 7:6; 마 23:25; 요 4:26).

6. **㉠** 여인의 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분을 낸 이유는 무엇인가? (4, 5절)

- ㉠** (1) 그 이유는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 (2) 요 12:4에 의하면 여인을 책망하며 이 말을 한 자가 예수를 은 30에 판 가릇 유대였다.
- (3)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일면 타당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동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으므로 큰 잘못이다. 그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아끼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던 것이다 (요 12:6).
- (4) 교회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못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의 봉사를 조금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삼상 16:7).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겠다.

7. **㉠** 예수는 어떤 말씀으로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로부터 그 여인을 변호하셨는가? (6-9절)
- ㉠** (1) 예수께서는 마리아를 급히 변호하셨다 (6절).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그녀를 정죄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를 칭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녀의 행위를 ‘선한 일’이라고 단정하셨던 것은 곧 그 동기가 순수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 (2) 이어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내세웠던 구제와 연관시켜 말씀하셨다 (7절). 즉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므로 예수께 우선권을 두어 봉사하는 그녀의 행위는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음을 밝히셨다.
- (3) 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위는 헌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행위를 당신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로 간주하셨다 (8절).
- (4) 이러한 말씀들로 여인을 변호하신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평가하여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 (9절). ‘은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 (5)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도 물질적, 시간적 제한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우선 순위를 정해 놓아야만 한다. 우리가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 축복들로 우리를 풍성히 채우실 것이다 (참조, 마6:33).
8. **㉠**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10, 11절)
- ㉠** (1)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
- (2) 예수를 넘겨 주겠다는 유다의 제안은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즉시 받아들여졌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의 제자였던 유다라면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 (3) 더구나 유다가 예수를 넘겨 줄 경우 그들 자신은 뚜렷한 명분이 서므로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 (4)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그런 기회는 정말 황금 같은 기회였다. 따라서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유다는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예수를 넘겨 주기로 하였는데 마태복음에는 그의 배신의 대가가 은 30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26:15).
- (5) 그렇다면 유다는 과연 어떤 동기로 인하여 예수를 넘겨 주기로 작정하였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 그러나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만은 아닌 듯하다.
- (6) 여인의 향유 사건에 뒤이어 이 일이 있었음을 보건대 예수의 책망(요12:4,5)도 유다가 어처구니없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또한 영광의 메시야로만 생각했던 예수의 사역이 수난과 죽음임을 알고 실망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 (7) 오늘날 우리도 주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시시때때로 주를 배신하는 위치에 설 경우가 많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의 더러운 동기로 주를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불순한 동기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하겠다 (참조, 잠6:24-35; 마5:28, 29; 고전5:11; 딤후전5:22).
9. **㉠** 유월절 절기와 예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2절)
- ㉠** (1) 유월절에 먹는 음식은 양고기와 무교병, 쓴 나뭇 그리고 포도주와 약간의 양념 등이다 (유교절과 무교병의 목적에 대해서는 ㉠2를 참조할 것).
- (2) 그런데 유월절의 희생 제물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참조, 출 12

:46; 요 19:33; 고전 5:7; 뱀전 1:18, 19).

- (3)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라고 외쳤는데 이것도 하나의 좋은 증거라 할 수 있다.
- (4) 사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셨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예표하는 절기이다.
- (5) 그리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으로서 죄악과 구별된 순수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이 역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낸다(요 6:30-59; 고전 11:24). 또한 이것은 죄악에서 분리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참교회의 상징이기도 하다(고전 5:7, 8).
- (6) 따라서 우리는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그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친한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참조, 요 3:16; 13:1; 15:9; 롬 8:35; 엡 2:4; 요일 2:2; 4:10).

10. ㉠ 유월절을 예비할 처소를 구하지 못하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해결책은 무엇인가? (13-16절)

- (A) (1) 예수께서는 2명의 제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것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그 집주인을 만나 유월절을 예비할 처소를 구하라는 것이었다.
- (2)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만일 집에 여분의 방이 있다면 그 집주인은 유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하여 머물 곳을 구하는 순례자들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방을 빌려 주어야만 했다.
- (3) 예수의 이 명령은 이미 사전에 그가 그 집주인과 합의를 본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참으로 황당 무계(荒唐無稽)함에 틀림없다. 그리고 본서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디에도 그곳이 누구의 집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일설에는 마가의 모친 집이라는 말도 있지만 충분한 근거가 없기에 그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눅 22:8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임)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 (5)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면-제자들이 유월절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참조, 신 26:16; 수 1:8; 요 14:23).
- (6) 또한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예비할 처소를 마련해 준 집주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숨은 봉사과 헌신을 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다. 인간의 칭찬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남이 모르게 드리는 봉사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살찌우게 한다(참조, 마 6:2-4).

11. ㉠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7-21절)

- (A) (1) 예수께서는 누가 배신하여 자기를 팔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 그러나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지 않으셨다. 대신 제자들 중 한 명이 자기를 팔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말씀하셨다(18절).
- (2)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예수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들 생각에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진리' 그 자

체인 예수께서 엄숙하게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참조, 마 26:21-25; 요 13:21-30).

- (3)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자기를 파는 자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셨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 (4) 오늘날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울리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을 살 때마다 이 저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것이 됨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 (5)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위선과 형식에 얽매인 자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다시 말해서 자기 욕심, 명예, 사상, 권력 등을 위해 예수를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그런 자들은 모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마 7:22, 23).
- (6)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예수와는 무관한 사이, 아니 예수로부터 이 세상에서 필요없는 존재라는 책망을 듣기 전에 항상 예수에게서 인정을 받을 만큼 신실한 자세를 경주해야 한다. 예수께 인정받는 자는 이웃과 사회와 교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아낌을 받을 것이다.

12. ㉠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22-24절)

- (A) (1) 예수께서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에 관한 명확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 성만찬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성찬식의 기원이요 모범이 된다.
- (2) 여기서 예수께서는 먼저 떡을 떼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22절).
- (3)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떡이 예수의 살로 진짜 변했다는 화체설(化體說)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떡은 단순히 상징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석하는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참조, 눅 22:19; 고전 11:24).
- (4) 분명한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먹여 살리신 것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다(요 6:32-35).
- (5)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물질적인 양식이 없으면 견뎌 낼 수 없듯이 친히 인류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을 찾으신 예수의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한시라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생명의 양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 모시고 그 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生)의 의미와 가치를 소유하며 살아가야 한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참조, 갈 2:20).

13. ㉠ 예수께서는 포도주가 든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무엇이냐고 하셨는가?(24절)

- (A) (1) 예수께서는 포도주가 든 잔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 주시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言約)의 피’ 라고 말씀하셨다(24절).
- (2)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한다(창 9:4, 5; 레 17:11).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바 있다. 그 언약의 증표(證標)로서 모세는 짐승의 피를 백성들 앞에 뿌렸다(출 24:8).
- (3) 이러한 근거에서 예수의 피를 ‘언약의 피’ 라고 말하셨는데 이는 새 언약의 증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은 죄로 인해 죽을 인생들을 구원하신 속죄의 언약이라는 뜻이다(참조, 히 9:13, 14, 24-28).

- (4)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리신 대속의 사역이 없이는 어떠한 인간도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참조, 히 9:22).
- (5) 더우기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 인간들이 마시지 않고서는 참된 의미에서의 만족과 영속적인 기쁨은 누릴 수가 없다(참조, 요 4:14).
- (6)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흘리시고 찢기시며 온갖 수욕을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진심어린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하겠다(참조, 고전 11:24; 고후 9:15; 엠 1:16; 빌 1:3; 살후 2:13).

14. ㉠ 성만찬을 마친 후 예수와 그 일행은 어디로 갔는가? (26절)

- ㉠ (1) 성만찬을 마친 후에 예수와 그 제자들은 찬미(讚美)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 (2) 흔히 유월절 식사 후에는 특별한 찬송을 불렀는데 그들이 부른 것은 아마 시 115-118 편에 포함되어 있는 할렐(Hallel)이었을 것이다.
- (3)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신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그들은 기도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겐세마네 동산으로 갔다(32절; 요 18:1).
- (4) 이제 그 밤이 지나면 예수께서 대적의 손에 잡혀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로서 준비하기 위하여 늘 잘 가시던 기도처로 가셨던 것이다.
- (5)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처럼 먼저 기도로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진리가 그것이다.
- (6) 특히 감당하기 힘들거나 예상 밖의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알팍한 생각에 당황해 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신령한 도움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마 7:7-11).

15. ㉠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가? (27-31절)

- ㉠ (1) 예수께서는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숙 13:7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자기를 버리고 모두 도망하여 흩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 (2) 여기서 '버리다'라는 동사(스칸달리조)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잃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용기가 약하여 그를 버리게 될 것을 의미한다.
- (3) 예수의 이 말씀은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의 성취이며 제자들의 흩어짐 역시 그러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자주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용기와 신앙을 자랑하던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다.
- (4)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할 때(29절) 예수께서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30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 (5) 이와 같이 우리도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따르고 섬긴다고 자처하던 제자들처럼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호언장담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고 실패의 이유가 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참조, 잠 3:5; 23:4; 렘 9:23; 롬 11:20).

16. ㉠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32-36절)

- ㉠ (1)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세 명(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려 겐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장(腸)이 끊어지는 듯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 (2) 그는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양이셨기에 그

무거운 짐과 고통이 너무 심하여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35절).

- (3) 술직이 그는 고난의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였던 것이다.
- (4)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힘에 벅찬 인류를 대신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곤혹스럽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안락과 주장을 포기한 채 자신이 맞게 될 어떤 형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노라고 기도하셨다.
- (5) 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의 죽으심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점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분이셨다 (빌 2:6-8).
- (6) 둘째는 예수께서는 인간들 특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완악하고, 교만하고, 스승의 죽음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자기 변명과 자기 주장만이 살아 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할 수 없이 귀한 모범이 된다.
- (7) 이처럼 죽기까지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됨 본받아 우리의 삶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바로 온 마음에서 우리나오는 순종이다 (참조 신 26:16; 삼상 15:22; 눅 2:39; 행 26:19; 롬 6:17; 히 5:8; 빌 2:12).

17. **㉠** ‘깨어 있으라’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34, 37-42절)

- ㉠**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심한 마음의 고민과 고통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최대의 고통이었던 것이다.
- (2) 따라서 예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자지 말고 깨어서 자기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도 하자는 뜻으로 볼 수 있다.
- (3) 그러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잠들고 말았다. 실상 제자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했어야만 했다. 임박한 예수의 수난과 아울러 그들에게 닥칠 환난과 핍박에 대비하여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4) 이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38절).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잠들고 말았다 (40절).
- (5) 깨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속에는 ‘경계’ (vigilance)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언제나 긴장된 마음을 요구한다. 전쟁에서 경계를 소홀히 할 때 필연지패(必然之敗)할 수밖에 없듯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 (6) 우리가 제자들처럼 영적 잠에 깊이 빠져 버린다면 큰 일이다.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 이기 때문이다 (엡 6:10-17).

18. **㉠** 예수를 잡기 위하여 무리를 이끌고 온 가롯 유다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43-45절)

- ㉠** (1) 갓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예수를 잡기 위하여 찾아온 가롯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다.

- (2) 이미 예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결심까지 한 그가 뻔뻔스럽게 그 동산에 나타나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춘 일은 참으로 소름끼치는 일이다(45절).
- (3) 속으로는 배신의 칼을 갈면서 겉으로는 존경과 헌신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한 가롯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 오늘날의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 (4) 겉으로는 거룩한 목자의 탈을 쓴 사군 목자, 순전한 양의 가족을 쓴 이리와 같은 교인들, 남 몰래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은 다 저지르면서 교회에 나와선 신실한 성도인 척하는 그런 자들은 모두 가롯 유다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각종 헌금을 생색내어 바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더러운 장사치 교인들도 모두 가롯 유다임을 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참조, 마7:21-23).

19. **㉠** 우리가 예수를 잡으려는 것을 본 제자 중 한 명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46, 47절)

- ㉠** (1) 예수의 곁에서 있던 제자 중의 한 사람이 예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 (2) 마가는 예수 곁에서 검을 댄 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지만 요한은 그가 베드로였다고 밝혔다(18:10). 아마 제자들 중 가장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을 도저히 그냥 참아 넘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 (3) 본문에는 그 이후의 자세한 기록이 생략되어 있는데 다른 공판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마26:52)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고쳐 주셨다(눅22:51)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4) 베드로의 이 같은 행위는 예수를 사랑하는 열심에서 비롯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의 열심의 영적인 열심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적인 열심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행동을 책망하셨던 것이다.
- (5)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어떤 영적 무장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신 예수께서 겹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냥 자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37, 38, 40, 41절).
- (6)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끼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참조, 1:45; 7:36; 롬10:2, 3).

20. **㉠** 예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48, 49절)

- ㉠** (1) 예수께서는 검과 몽치를 들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자들의 태도를 꾸짖듯이 말씀하셨다(48절). 그들은 마치 예수께서 위험한 반동 분자인 것처럼 검과 몽치 등의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잡으러 왔기 때문이다.
- (2) 사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그곳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그를 체포하러 온 것은 백성들이 예수께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소동을 일으킬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외진 장소 어두운 시간을 택해 예수를 체포하러 왔던 것이다.
- (3)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잡히시는 것이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셨다(50절). 사53:7에는 '...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53:12에는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아림을 입었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말씀들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한다.
- (4)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악한 체계에도 불구하고 하

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대적자들을 통해서도 이루기도 하신다(마 6:10).

21. ㉠ 예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떠하였는가? (50절)

- ㉠ (1) 예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고 말았다.
 (2)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께서 영광의 메시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해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며 이상적인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 기대했다.
 (3) 수번에 걸친 예수의 수난에 대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강하게 소유하던 신념이 여기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자 더 이상 예수의 제자로서 따를 용기와 결심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4)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의 일이 잘되어 갈 때 그들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가 사정이 변하여 그들이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는 모르는 척 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기가 쉬움을 알자.
 (5) 또 우리는 사업이 잘되고 매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많음을 기억하여 그런 자들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참조, 출 5:20, 21; 16:2, 3; 욥 1:21, 22; 2:7-10).

22. ㉠ 베 흩어붙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황급히 도망친 ‘한 청년’은 과연 누구인가? (51, 52절)

- ㉠ (1) 학자들에 따라 베다니의 나사로, 바울, 사도 요한, 겐세마네 동산지기의 아들 등 여러 주장들이 있으나 공관 복음서들 중 본서에만 이 사건이 수록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청년은 본서 저자인 ‘마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Alexander, Bruce 등).
 (2)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심이라는 무겁고도 엄숙한 분위기로 일관하던 사건의 연결 속에 이같이 코믹한 내용이 왜 삽입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3) 한편 그 당시 대개의 남자들은 헬리어로 <키톤>이라 불리워지는 속옷을 입는 것이 보통인데 그 청년은 단지 <신돈>이라는 걸옷만 걸치고 있었다.
 (4) 이 걸옷은 보편적으로 양모로 만들어졌으나 그 청년은 부자들이 주로 입던 세마포로 된 걸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 같다. 여하튼 그는 속옷을 생략하고 걸옷만을 걸치고 있었기에 자기가 위험에 처하자 그 걸옷을 벗고 알몸으로 출행량을 칠 수밖에 없었다.
 (5) 아마도 마가가 이런 재미있는 내용의 사건을 소개한 것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버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음이 틀림없다.
 (6)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부터 그가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주위의 따뜻한 환영이라고는 별로 받아 본 일이 없이 그저 고독한 삶을 사셨던 것이다. 오늘 우리도 제자로부터 버림 받았던 예수님을 다시 골목 한 구석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는가?

23. ㉠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누구에게로 갔는가? (53절)

- ㉠ (1) 우리는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2) 마 26:3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였다. 당시 안나스는 A. D. 7-14년 동안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일했으나 빌라도의 선임 총독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Valerius Gratus)에 의해 해임되고 그 후 가야바가 그 일을 대신 맡았다.
 (3) 그는 야비하고 교활한 모사군이요 기회주의자였으며 공정이니 정의니 하는 말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마 26:3, 4; 요 11:49).
 (4) 그리고 그는 무려한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열망하는 것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백성들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 양 위장하던

자였다.

- (5) 이러한 악랄한 위선자인 그는 자기의 시기심을 자극한(마 27:18) 예수를 정죄하기 위하여 교활한 계획과 미증유(未曾有)의 대담성을 가지고 제책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자였다.
- (6) 이처럼 종교라는 안락한 회전의 의자에 앉아서 신자들의 회생을 강요하며, 진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배만을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에도 종종 발견된다. 그들은 예수를 또 한번 못박을 자들이다.

24. ㉠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가? (55-65절)

- ㉠ (1)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재판을 진행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모든 계획을 마무리짓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 (2)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증거케 하였다. 율법에 따르면 소송이나 사형을 언도하려면 두 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민 35:30; 신 17:6; 19:15). 그러나 예수를 고소한 거짓 증인들의 증거는 일치하지 않아 그들 자신의 악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3)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후에 지으리라' (58절)는 말을 했다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그 증언 역시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거짓임을 드러내고 말았다 (59절).
- (4) 이것마저 여의치 않자 대제사장이 분노하여 일어나 예수를 직접 신문하였다 (60절). 그는 예수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하였다 (61절).
- (5) 여기서 '찬송받을 자'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완곡한 용어이며, 찬송받을 자의 아들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와 동격이다. 따라서 제사장의 이 말은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 (6)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예수의 대답은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감출 필요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 (7)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옷을 찢으며 사형 선고를 내렸다.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는 원래 커다란 슬픔과 분노의 표시였다(창 37:29; 사 14:19; 왕하 18:37). 그리고 당시에 참람함(blasphemy)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레 24:10-23; 요 5:18; 10:33). 레 24:14을 보면 참람한 죄를 범한 사람을 돌로 쳐죽이라고 되어 있다.
- (8) 예수께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동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예수께 대해 쌓였던 감정이 일시에 터져 나왔다. 그들은 온갖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다 (65절).
- (9) 침을 뱉고 때리는 행위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범죄자로 처벌된 사람을 향한 적대 감정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수단이었다(민 12:14; 신 25:9; 욕 30:10; 사 50:6).
- (10) 이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티끌만큼의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을 언도했다. 오늘날 신자에 대한 사단의 모함과 핍박 역시 이와 같이 악랄하고 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참조, 벰전 5:8, 9).
- (11)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는 완전히 실패한 불쌍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은 모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승리의 구주이셨다(참조, 사 53:1-3). 우리가 자랑할 예수는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25. ㉠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66-72절)

- ㉠ (1)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게 된 것은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는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었다. '주여 만일 주

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마 14:28)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8:29) 라고 담대히 대답한 이도 또한 그였다.

- (2) 또한 예수를 잡으러 겐세마네로 온 무리 앞에서 홀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린 자가 그였다 (47절; 눅 22:50; 요 18:10). 이러한 베드로가 실패한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 (3) 그것은 첫째, 자기 과신 (自己過信) 이었다. 인간의 감정, 결심 그리고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그는 알았어야 했다. 이것은 차라리 불신앙과 진배없다. 그러므로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시험을 담대히 이겨 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할 뿐이다 (엡 6:10-17).
- (4) 둘째, 위기 의식의 부족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였다. 예수께서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수난에 대하여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의식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 (5)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다 (빌 2:25; 딤후 2:4). 그것은 우리의 인생 길이 사단과의 싸움으로 일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칫 방심하거나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단을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참조, 사 56:9-12; 렬 3:17-21).
- (6) 셋째, 예수의 수난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으면서도 영광의 메시아로만 생각했지 수난과 죽임을 당할 메시아이심을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원인 중의 대다수가 이러한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26. ㉠ **답이 두번째 우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는가? (72절)**

- ㉠ (1) 베드로가 세 번 예수를 부인하자 수탉이 두번째 울었다. 눅 22:61에 의하면 바로 그 순간 주께서 들이키사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다고 되어 있다.
- (2) 처음 부인 때 수탉이 울었으나 베드로의 양심은 깨우침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던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예수와 시선이 마주치고 수탉의 울음을 듣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난 그는 심히 통곡했다.
- (3) 이 통곡은 단순한 슬픔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됨 의미한다. 보통 회개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고 (知), 둘째는 그것을 통해 자복하는 것이며 (情), 셋째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意).
- (4) 베드로의 이 회개가 얼마나 진정이었는가 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으면서도 뉘그러하지 않고 피로워하다가 그냥 자살하고 말았다 (마 27:3-5).
- (5)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피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범피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길이 최선이지만 혹 범피할지라도 즉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다 (참조, 행 8:22; 9:35).
- (6)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 1:18).

<p>본장의 요점</p>	<p>'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38절).</p>
----------------------	--

제 15 장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단락구분 1-5 빌라도의 심문을 당하시다 / 6-15 사형 언도(십자가형)를 받으시다 / 16-20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다 / 21-32 십자가에 못박히시다 / 33-41 고통 중에서 돌아가시다 / 42-47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지내다

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2 빌라도가 물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3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4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6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7 민란을 꾸미고 이 민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8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9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 준 줄 알아라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12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라
13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14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이노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 주니라
16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17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 씌우고

18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이다 하고
19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끌더라
20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1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2 예수님을 끌고 끌고다라 하는 곳(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23 율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24 십자가에 못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25 때가 제 삼 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박으니라
26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7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 (없음)
2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30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33 제 육 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 시까지 계속하더니
34 제 구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

리셨나이가 하는 뜻이라

35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싯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37 예수께서 큰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38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40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좇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42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44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45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46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47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 ㉠ 본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 관하여 말하라.

- ㉠ (1) 본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심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등이다.
- (2) 여기 언급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중심한 무리를 말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온갖 악한 계략을 다 꾸며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확실히 예수를 메시야로 받아들였어야만 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의 가장 큰 적대자의 위치에서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로니컬하다.
- (3) 실제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원수가 바로 가장 잘 우리를 이해해 주고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일 때가 있음을 자주 체험하게 된다. 예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마 10:36) 라고 지적하셨다.
- (4) 그리고 빌라도는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예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 주고 싶었으나 대중의 여론에 굴복하고 밀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행동 원리와 방향을 공공(公共)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위험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예이다.
- (5)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안일을 위해 정의를 외면하는 자들은 모두 빌라도와 같은 존재됨을 알아야 한다(참조, 렘 20:9).
- (6) 아리마대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43절)였다. 그는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 당한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에게 담대히 시체를 요구했고 자신의 무덤에 시신을 안치시켰다. 자신이 당하게 될런지 모르는 곤경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 (7) 복음을 위해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모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자들이다. 주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역사상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이다(참조, 마 5:10-12; 눅 22:28; 롬 8:17; 고후 4:17; 빌 2:17,18; 살전 5:16)
- (8) 본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당당한 곤경을 이겨 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생활의 안락만을 추구해서

는 안 될 것이다(참조, 빌 2:25; 딤후 2:3, 4).

2. **㉠** 새벽이 되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1절)

- ㉠** (1) 새벽 일찍 그들은 다시 공회를 열어 의논한 뒤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
- (2) 그들이 재차 새벽에 공회를 연 것은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의 행동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밤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 (3) 거기서 그들은 최종적인 결의를 하였다. 눅 23:2에 근거하여 보면 그들의 결의는 예수를 신성 모독죄가 아닌 반역죄로 고소하는 것이었다.
- (4)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으므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비준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신성 모독은 유대 종교에 관계된 문제일 뿐 로마법에도 조금도 저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죄명을 반역죄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
- (5) 이처럼 양심이 마비된 사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금씩 조금씩 파멸의 길로 치달는다(참조, 잠 15:28; 21:10).

3. **㉠**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무엇인가? (2절)

- ㉠** (1)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첫 질문은 예수에 대한 고소가 이미 빌라도에게 알려졌음을 보여 준다. 누가는 산헤드린이 빌라도에게 고소한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그가 유대를 전복시키려 하고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세제, 자칭 왕 또는 그리스도라 한다는 것이었다(눅 23:2).
- (2)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간단했다. '네 말이 옳다'. 예수의 이러한 증정은 유대의 산헤드린이 고소한 것 같은 정치적 왕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왕 곧 구세주를 의미한다(요 18:34-38).
- (3) 예수의 이 대답은 결코 허세가 아니었다. 실제 그는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였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사 9:6).
- (4) 신·구약 성경 전반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밝혀져 있다(사 11:1-5; 단 2:44; 슥 9:9; 요 18:36, 37; 엠 5:5; 골 1:13; 계 11:15). 그런 분이 일개 인간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음을 알아야 한다(참조, 마 20:28; 눅 19:10; 엠 5:2; 벰전 2:24; 3:18).
- (5)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위해 온 삶을 불태워야 한다. 그런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된다.

4. **㉠** 대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고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은 어떤가? (3-5절)

- ㉠** (1) 대제사장들이 주도한 갖가지 고소들에 대해 예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 (2) 아마도 그들 앞에서의 답변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신 듯하다. 자신의 결백이나 무죄를 변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셨다. 이 예수의 침묵 속에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할 것을 각오하신 위대하고 거룩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 (3)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노(怒)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전 7:9)고 하는 성경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둘째, 그리스도의 침묵 속에 나타난 인내의 정신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미덕이다. 억울함에 대한 한 마디의 불평도 없이 침묵으로 승화시키신 온화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분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눅21:16-19; 롬5:3, 4; 고후6:6; 살후3:5; 히6:15).

5. **㉠** 예수를 놓아 주기 위하여 제시한 빌라도의 제안은 어떤 것이었는가? (6-15절)

- ㉠** (1) 당시 로마에는 명절 때 총독의 관대한 결정에 따라 국사범(國事犯)들 중 한 명을 풀어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빌라도는 이 관습을 이용하여 예수를 풀어 주려고 하였다.
- (2)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붙잡혀 투옥되어 있던 바라바를 내세워 유대인들로 하여금 양자 택일하게 했다.
- (3) 이미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였기 때문에 무죄한 예수가 붙잡혀 온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주변의 유대인들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 원하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은 실상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놓아 주자는 제의와 같은 것이다.
- (4) 그런데 무리들의 요구는 예상 밖이었다.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 주고 대신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들은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려 한 것은 대제사장들의 선동 때문이었다.
- (5)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다. 대제사장들의 왜곡된 신앙 양심은 그리스도를 증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들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 (6) 이와 같이 증오심은 그 사람의 선악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케 만든다. 그래서 미워하는 상대방의 옳고 선한 부분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만든다(참조, 왕상 19:1, 2).

6. **㉠**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한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사역이 그들의 생각, 선입관, 이익 등과 상반되었기 때문이다.
- (2) 첫째, 예수의 사역이 그들의 민족적 감정이나 메시아관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백성들과 같이 현세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였으며 그러한 메시야에 의해 영광스러운 나라가 건설될 수 있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주의 사역은 조금도 그들의 희망을 만족시켜 줄 수 없었다.
- (3) 둘째, 또 다른 이유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유지시키기 위해 예수를 항상 의심하고 미워했던 것이다. 막강한 그들의 권력과 영향력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제도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 제도를 언제까지나 존속(存續)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예수의 사역이 그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였다.
- (4) 셋째, 그들이 예수를 핍박했던 더욱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셨기 때문이다(마 12:34; 23:27, 33; 눅 3:7).
- (5)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 참된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타락한 성직자들에 의해 직접·간접으로 박해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매장되기까지 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는 주의 책망을 받는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란 사실을 생각해 보았는가?
- (6) 교회는 불건전한 경쟁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사단의 도전을 받아 멸절될 수밖에 없다. 교회는 겸손의 주이신 예수 앞에 무릎꿇고 그분의 말씀과 삶에서 자신들을 돌아

불 줄 알아야 한다(참조, 빌 2:1-8).

7. **㉠**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라는 성난 무리의 외침을 들은 빌라도는 어떻게 하였는가? (13-15절)

- ㉠** (1) 빌라도는 자신이 폭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다. 만약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예수를 살려 둔다면 반란이나 민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허락하고 말았다.
- (2) 그는 당시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잔인하고 탐욕적인 인간으로 사악한 양심을 가진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수를 변호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 (3) 습관적으로 현 세상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최후는 어떠한 것인가? 현세적인 만족을 원했던 빌라도는 가이사(Caesar)와 유대인들만을 만족시키고자 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택할 수가 없었다.
- (4) 갑작스런 시련에 봉착한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는 예수를 처형하는 것이 그릇된 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속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했다.
- (5)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욕심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을 이용하거나 악인들의 손에 넘겨 주게 된다(참조, 마6:19, 20).

8. **㉠** 예수에게 가해진 채찍질의 체형에 대해 설명하라(15절).

- ㉠** (1) 당시 로마의 채찍은 짧은 나무 손잡이에 몇 개의 가죽끈을 달았는데, 그 끝에는 납이나 못의 조각과 날카롭게 간 뼈 조각들이 붙어 있다.
- (2) 매질은 벌받는 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려 기둥에 묶은 후에 하는데 주로 그 등을 때렸다.
- (3) 이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체로 두 사람이 채용되는데 하나는 이쪽에서 때리고 하나는 저쪽에서 때린다. 채찍질을 하게 되면 피부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피부 깊숙히 있는 정맥·동맥의 혈관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장과 내부 조직까지도 드러나게 된다.
- (4) 결국 등의 살은 모두 찢겨져 너털너털하게 되어 온몸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채찍질을 할 경우 더러 죽는 일도 있었는데 이는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로마의 채찍질은 이처럼 참혹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체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행 16:37).
- (5) 이와 같은 매를 맞으신 후 채찍 자국과 맞은 자국으로 만신 창이가 되신 예수를 생각해 보라. 예수께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얼마 못 되어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21절; 마27:32; 눅23:26; 요19:16, 17).
- (6) 이처럼 채찍질은 소름끼치는 고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엄청난 고난은 바로 우리 대신 받은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러한 고난을 묵묵히 다 받으셨다.
- (7)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벰전2:24).

9. **㉠** 로마 군병들은 예수를 어떻게 최롱하였는가? (16-20절)

- ㉠** (1) 로마 군병들은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갔다. 이 브라이도리온(헬, 프 라이토리온)은 라틴어 <프라이토리움>에서 온 외래어이다. <프라이토리움>은 원래 군대 진영의 장군 텐트나 본부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로마 총독의 관저를 나타내는 데 사

용되었다.

- (2)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회롱하였는데 이는 예수께서 스스로 왕이라 주장하시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색 옷’을 취하여 그것을 찢어져 피가 흐르는 그의 등에 입혔다(17절).
- (3)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으로서 붉은 색은 권위와 위엄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들이 이 옷을 입힌 것은 자칭 왕이라는 예수를 조롱하기 위함이었다.
- (4) 또한 가시 면류관을 쥐어 머리에 씌웠다. 이것 역시 왕의 면류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 (5)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하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풀을 절하였다(18, 19절). 여기서 침을 뱉는 행위는 가장 추악하게 상대방을 모독하는 것이다(참조, 욥 17:6; 사 50:6).
- (6) 마 27:29에 의하면 그들은 처음에 예수로 하여금 그 갈대를 손에 쥐게 함으로써 그가 왕의 흡을 권 것처럼 풍자하였다.
- (7) 더우기 그들이 뇌까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란 말은 ‘가이사 황제여 평안할지어다’라는 그들 황제에 대한 찬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들이 보아서는 별 불일 없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조롱하는 말이다.
- (8) 이런 잔인한 가학(加虐) 행동에 실증이 난 군병들은 예수에게 입혔던 자색 옷을 벗겼다. 사실 자색 옷은 이미 상처 투성이인 예수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을 것이므로 그 옷을 벗긴다는 것은 곧 상처 부위를 또 한번 채찍하는 행위나 일반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판례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는 자에게는 옷을 입히지 않고 형장에까지 끌고 가면서 계속 채찍질했다) 십자가 형장에 끌고 나갔다.
- (9) 이러한 로마 군병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인간의 잔악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일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예수를 어쩌면 그토록 철저히 모멸할 수 있을까? 도무지 찾아 보기 힘든 영적인 무감각(無感覺)과 잔인함이다.
- (10)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회롱하는 언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주를 조롱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10. ㉠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21절)

- ㉠ (1) ‘구레네’는 지중해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고원 지대로서 오늘날의 리비아(이집트 서쪽)가 위치해 있는 곳이다.
- (2)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이 헨라 이름이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일 리가 없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옳다고 볼 수 없다.
- (3) 구레네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여행 온 디아스포라(Diaspora) 유대인이 분명하다.
- (4) 마가가 시몬의 두 아들들인 알렉산더(Alexander)와 루포(Rufus)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로마 교회가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참조, 롬 16:13).
- (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은 예수의 회생과 자기를 내어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에 녹아져 예수의 신실한 종이 된 후 온 가족을 전도한 것으로 보인다.
- (6)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억지로) 예수의 짐을 대신 졌던 그는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 것이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구원은 인간의 자의지(自意志)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에 기인한 것이다(참조, 엡 2:8).

- (7) 이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지도록 요청받는 고난을 의미한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마 16:24) 반드시 자기 자신의 부인(否認)을 수반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 곧 죄의 즐거움과 세상적인 이익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가 그에게 주어진 때라 할지라도 결코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 (8)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원치 않는 장애물 곧 십자가에 부딪히게 된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운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마 10:38; 16:24).

11. ㉠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간 곳은 어디인가? (22절)

- ㉠ (1) 로마 군병들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 (2) 이 ‘골고다’ (Golgotha)는 해골을 뜻하는 아람어 <골골타>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다. 이곳의 다른 이름은 ‘갈보리’ (Calvary)인데 (요 19:17) 이는 별게이트(Vulgate) 역의 <칼바리아이 로쿠스>에서 유래한 말이다.
- (3) 이 지역이 왜 골고다로 불리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추측은 그곳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골고다라고 생각해 온 장소는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유명한 거룩한 무덤 교회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 (4)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들은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67년에 캐틀린 케년 (Kathleen Kenyon)은 ‘거룩한 무덤 교회’의 남쪽 면에서 방형 바위를 발굴했다. 이러한 방형 바위들은 도시들의 성벽 안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곳에 사람들이 흠뻑기 때문에 방형 바위들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 (5) 또한 ‘거룩한 무덤 교회’의 정 서쪽에서 무덤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안에는 매장(埋葬)이 금지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거룩한 무덤 교회’ 안의 장소가 실제 역사상의 골고다임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12. ㉠ 몰약(沒藥)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 ㉠ (1) 예수께서는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그가 십자가 형벌의 끔찍한 고통을 그의 모든 감각으로 온전히 감당하려 했기 때문이다.
- (2) 마태복음에는 ‘쓸개 탄 포도주’ (마 27:34)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 쓴 물질이 몰약이었음이 분명해진다(참조, 요 19:29, 30).
- (3) 마가는 누가 예수에게 이 포도주를 주었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지 않다. 탈무드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이 죽어 가는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마취성 음료를 주었다고 한다. 예수께 드린 몰약 탄 포도주 역시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 (4) 그의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다. 영적으로도 그는 무한한 고통을 느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보와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참조, 사 53:5; 눅 13:6).
- (5) 이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해 헌신하다가 당하는 고통과 좌절감 또는 매일의 삶에서 부딪치는 불행한 현실에 대해 단순히 세상의 오락과 술, 기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수단을 통해 잊어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예수께 간구하는 겸손도 필요하다(참조, 요 14:13).

13. ㉠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 로마 군병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24절)

- ㉠ (1) 로마 군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예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

- (2) 당시 로마 군병들은 죄수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 죄수의 옷을 제비뽑아 그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관습이었다.
- (3) 그들은 예수의 옷도 제비뽑아 나누어 가졌는데, 이는 시 22:18의 예언과 일치한다. 아마도 마가는 이 예언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다(참조, 요 19:23, 24).
- (4) 하나님의 어린양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나누어 제비뽑는 로마 군병들의 무관심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 (5) 그것은 진리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조금의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로마 군병들처럼 현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쏟을 뿐 그런 데에는 무관심하다.
- (6) 심지어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조차 바쁜 생활에 쫓겨 우리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에 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데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정력을 다 쏟아 버리는지 모른다(마 6:31).

14. **㉠**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힌 시간은 언제인가? (25절)

- ㉠** (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시간은 '제 삼 시'였다.
- (2)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시간이 제 육 시경으로 되어 있다(요 19:14). 유대의 시간 계산법으로 보면 제 삼 시는 오전 9시이고 제 육 시는 오전 12시다.
- (3) 그렇다면 본서와 요한복음이 서로 모순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이러한 난제는 마가가 유대 시간 계산법을 사용한 반면에 요한은 로마 시간 계산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별 어려움 없이 해결된다.
- (5) 로마 시간 계산법으로 제 육 시는 유대 시간의 제 0시와 같은 시간으로서 오전 6시를 말한다. 따라서 예수께서 오전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해답이 나온다.

15. **㉠**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죄 패(罪牌)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었는가? (26절)

- ㉠** (1) 빌라도는 당시의 관례대로 십자가 윗부분에 죄명을 쓴 명패를 달았는데 그 내용은 '유대인의 왕'이었다.
- (2) 이 글귀의 정확한 자귀(字句)는 네 복음서가 제각기 다르다. 마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고, 마태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누가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요한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였다.
- (3) 아마도 각 복음서 기자들은 자기들이 본 대로 죄 패의 핵심만을 기록했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죄 패에 예수란 유대인의 왕으로 써서 붙이게 했다는 점에서 네 복음서 기자가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4) 빌라도가 왜 이런 내용의 글귀를 써 붙이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추측건대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
- (5)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나의 쓸 것을 썼다'(요 19:19-22)라는 단호한 말을 한 것을 볼 때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도 죽게 만들 수밖에 없었음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과 예수에 대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6) 아뵘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참조, 시 72:11; 딤편 6:15; 계 17:14; 19:16).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왕이신 영원 불변의 주이시다(참조, 계 1:8; 21:6; 22:13).

16. ㉠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사람들은 어떤 조롱을 하였는가? (29-32절)

- ㉠ (1)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으셨다.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에게서조차 조롱을 당하셨다.
- (2) 사람들은 십자가 옆을 지나가면서 경멸 섞인 조소를 보냈다(29절). 그들은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그의 말을 책잡아 그에게 가해졌던 고소(14:58)를 기억하고는 그것으로 그를 비난하였다.
- (3) 이런 비난은 옛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사단에게 시험받으시던 장면과 흡사하다. 그때 사단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올려 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였다(마 4:5, 6).
- (4) 사단의 이 같은 요구는 지금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처럼 사단은 예수께서 가장 취약해 있을 때를 틈타 예수의 신성(神性)을 시험하려 했다. 오늘 우리도 항상 긴장해야 하지만 특별히 영·육이 약해져 있을 때에 사단의 위협을 조심해야 한다.
- (5)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조롱하였는데 이것 역시 견디기가 힘든 고통이었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마땅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데 주동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죽는 순간까지 조롱했다(31절).
- (6) 이처럼 위선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데에 앞장서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신앙하는 내용까지도 변질시켜 버린다. 이것은 오늘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 (7)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는 별칭은 조롱으로 가득 찬 말이다(32절).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도 예수에게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면 메시아적 권능을 사용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요구를 하였다.
- (8)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소의당하고 거부당하는 그래서 철저히 버림 받은 신세가 되셨다. 이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철저한(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밀려오는 여러 방향에서의 도전들에 대해 침묵으로 응수하셨다(참조, 벧전 2:23).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참조, 사 53:7).
- (9) 이처럼 예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 그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욕을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려야 하겠다(참조, 롬 5:9; 살전 5:9).
- (10)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침묵'하신 참뜻을 본받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나의 변명과 나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발언을 중단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것의 성취를 위해 기도함으로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발견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 결국 침묵은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온전한 신앙 행위라 할 수 있다.

17. ㉠ 제 육 시부터 시작된 어두움이 몇 시까지 계속되었는가? (33절)

- ㉠ (1)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새 시간 후부터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은 제 이 시 곧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 (2) 이 어두움은 일식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만월이었던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놓였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것이다.
- (3) 이 어두움에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수난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지독한 것이었는지를 암시해 준다.

18. **㉠** 제 구 시에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외치신 말씀은 무엇인가? (34절)

- ㉠** (1) 제 구 시가 되어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 (2)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신 여섯 시간 동안에 당하신 고통은 말로써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시 22:1에서 인용한 아람어로 된 그 말씀은 예수께서 맛보신 최대의 고통의 절규였다.
- (3) 육체적 고통이 큰 것은 사실이었으나 실은 그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고독의 고통이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 (4) 그는 비록 죄없으신 분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신 철저한 죄인의 모습이셨으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러한 버림이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평소와 같이 그를 사랑했음을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 (5)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인생의 의의가 그 안에 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생 최대의 고통이다.

19. **㉠** 큰소리로 외치는 예수의 절규를 들은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5, 36절)

- ㉠** (1) 십자가 주위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예수의 고통이 최고의 극에 달했음을 깨닫지 못했다.
- (2)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조롱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엘리’를 ‘엘리아’로 오해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로 오해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일부러 예수를 조롱하기 위하여 그 말을 했을 것이다.
- (3) 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를 돕는 자로 간주하였으며 또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는 이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하면서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농담 섞인 말을 했을 거라는 말이다(참조, 마 16:14).
- (4) 더우기 그들은 해용(海賊, sponge)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는데 이는 동정에서 우리나라의 행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예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엘리야가 그를 구해 주는지 보려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이다(36절).
- (5) 여기서 우리는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인간의 극도의 잔인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전무 후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잔인한 그들의 근성을 그대로 드러낸다(참조, 전 9:3; 행 13:10; 롬 1:28, 29).

20. **㉠**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준다.
- (2)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죄인의 모습

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철저히 외면하셨던 것이 그 좋은 증거이다.

- (3) 성경 곳곳에서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이 기록되어 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창6:1-8:19),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창18:1-19:38), 고라와 그 추종자들의 멸망 사건(민16장)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불뱀의 재앙(민21:4-6) 등이 그 좋은 증거이다.
- (4) 둘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의 일생이 순종으로 점철되어졌지만 그 절정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였다.
- (5)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6-8).
- (6) 셋째,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다.
- (7)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갈파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롬8:35).
- (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8:38, 39).
- (9)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綱領)이니라’(마22:39, 40).

21. ㉠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와 더불어 어떤 이적이 일어났는가? (38절)

- ㉠ (1)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자마자 성소 휘장(帷帳)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 (2) 당시 유대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다. 하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다.
- (3) 그런데 히6:19;9:3;10:20에 근거해 볼 때, 여기서 찢어진 휘장은 내부의 것, 즉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내부의 휘장에 대해서는 출26:31-33;36:35;대하3:14에 기록되어 있다.
- (4)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이 주는 상징적 교훈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참조, 히9:3-15;10:19, 20).
- (5)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의 모든 율매이는 것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이는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다.

22. ㉠ 예수의 죽으심을 본 백부장은 어떠한 증언을 하였는가? (39절)

- ㉠ (1) 사형장의 호위를 위해 파견된 로마 군병들의 대장이었던 백부장은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였다.
- (2)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죽 지켜 보았다. 채찍질과 모욕과 침뱀음의 수욕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의 모습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임한 어두움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아마도 그에게 큰 인상을 주었던 것 같다.
- (3) 비록 그의 말을 완전한 신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1:1)라는 마가의 첫 마디에 비추어 볼 때 예수의 수난의 절정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4) 백부장이 자기가 한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든 아니했든 그의 말은 마가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정체를 바로 밝혀 주는 의미 깊고 참된 말이었다.
- (5)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주범적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안나스 가야바 같은 인물들은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양심이 메마르고 심령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무고한 판결과 완악함을 고수했던 것이다.
- (6)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방인 백부장이나 구경하러 모인 일부의 사람들은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 (눅 23:48) 갔다.
- (7) 우리는 지금도 흔히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보다 별로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 즉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복음을 더 감명 깊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이다.

23. **㉠** 멀리서 예수의 처형 장면을 목격한 여자들은 누구인가? (40, 41절)

- ㉠** (1)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처형 장면을 끝까지 목격한 여자들은 많으나 그중에서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여자는 세 명이다. 곧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다.
- (2) 막달라 마리아(Magdala Mary)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는 어촌 출신으로 일곱 귀신들린 자였으나 예수에 의하여 고침을 받았던 자였다(눅 8:2).
- (3)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 다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를 장사지낼 때 그 자리에 있었고(마 27:61), 그리스도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주일 아침에 일찍 무덤으로 간 여자들 중 하나였다는(마 28:1) 기록만 있을 뿐이다. 세번째로 언급된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다(마 27:56).
- (4) 이 세 명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41절) 그를 수종 들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도 예수 곁에서 수종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 (5)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만(요 19:26, 27)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이로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인들의 헌신과 사랑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 (6) 오늘 일부 부패한 한국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이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그마한 헌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받으신다(참조, 마 25:34-40).

24. **㉠** 예수의 시신을 장사지낸 사람은 누구인가? (42-4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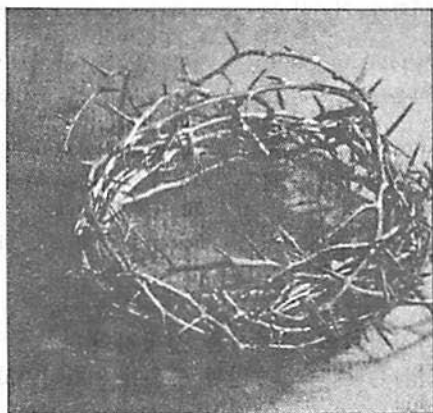
- ㉠** (1)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시체를 죽은 그날에 장사지내야 했다(신 21:22, 23). 더구나 안식일 전날은 더 말할 나위 없다.
- (2) 유대인의 날짜 계산대로 하면 예수께서 죽으신 그날 일몰(日沒)과 더불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시간이 늦은 오후였음을 감안한다면 그 시체를 장사지낸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3) 게다가 예수의 시신을 장사지낸 사람도 없었다. 요한이 있기는 하였지만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여인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 (4) 바로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 빌라도에게 시체를 인계받아 세마포(細麻布)로 싸

서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장사지냈다(43, 46절).

- (5) 이 사람은 아리마대, 즉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km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마을 라마다임 사람이다. 그곳은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삼상 1:1).
- (6) 그리고 그는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유명한 공회원이었다. 단순한 공회원이 아니라 '유력한' 공회원이었음을 주목하라.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으며(마 27:57), 부단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 (7) 그러나 그는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회'(요 19:38)하던 자였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추측건대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신앙이 놀랍게 변화되었을 것이다.
- (8) 마가는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요셉의 요구(43절)가 대단한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요구가 산헤드린의 유력한 공회원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에게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께 대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였다.
- (9) 사람마다 주어진 능력과 환경은 각각 다르고 또 나름대로 제약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와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일 것이다(참조, 고전 4:2; 히 3:6; 계 2:10).

화보자료

가시 면류관. 가시가 나 있는 '화란 오이풀'을 엮어 만든 면류관이다.



로마 군인들이 가시 면류관을 예수의 머리에 씌운 것은 그의 왕권(2절)을 부인하며 조롱하는 행위였다(17, 18절).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목적인 바와는 관계 없이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다. 그것은 곧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가시란 인간이 범죄한 결과 생겨난 산물이기 때문이다(참조, 창 3:18).

제 16 장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다

단락구분 1-8 예수께서 부활하시다 / 9-11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 12-13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 14 열 한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 15-18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다 / 19-20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4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들이 심히 크더라

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8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9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0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순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11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2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13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 그 후에 열 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 주 예수께서 말씀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던 표적으로 말씀은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1. ㉠ 본장의 주제와 우리의 신앙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라.

- ㉠ (1) 앞서의 두 장(14, 15장)은 예수의 수난과 죽음이 기록되었고 잇달아 본장은 예수의 부활에 관해 기록되었다.
- (2) 이 부활을 주제로 한 기사는 십자가와 죽음에 관한 기사(記事)와 같이 침착하게 기록되었다. 부활 후에 발생한 사건들을 저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서술했다.
- (3)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반은 이 모든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크리스찬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신뢰 여부에 달렸다.
- (4) 이렇게 볼 때 '부활'은 신앙의 근본이요 '신앙'은 '부활'의 열매라 할 수 있다.
- (5) 예수의 부활을 변경시키려고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모

든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이름을 칭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흥망 성쇠가 구세주의 부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5:12-19).

- (6) 한편 비평가들은 예수의 부활 사건에 관한 4복음서의 기사가 세세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억측이다.
- (7) 왜냐하면 각 복음서 기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어휘와 자신들의 문제로 썼으며, 각자의 독특한 목적에 따라 썼으므로 당연히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장사되신 무덤으로 간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1, 2절)

- ㉠** (1) 안식 후 첫날 예수의 무덤에 간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였는데, 그들이 그곳에 간 목적은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다.
- (2) 그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에 갔던 사람들이고(15:40), 또 예수께서 묻히시는 것까지 확인한 사람들이었다(15:47). 비록 예수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사랑했다.
- (3) 한편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는 자연스런 행동으로서 썩어 가는 육신의 냄새를 조금이라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시체와의 접촉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관례를 초월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참조, 민 9:6). 사랑은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
- (4)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다. 그들 역시 예수의 제자들처럼 부족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가는 중이었다.
- (5) 오늘날 우리는 이 여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한 길을 가는 데 힘과 용기를 준다(참조, 욕 19:25).

3. **㉠**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이 걱정된 것은 무엇인가? (3, 4절)

- ㉠** (1)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은 로마 군병들이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오직 무덤 입구를 막아 놓은 돌을 굴러 줄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였다.
- (2) 만약 여인들이 마 27:62-66의 기록대로 무덤이 인봉된 후 군병들이 지키는 것을 알았다면 적어도 무덤에 가기를 주저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군병들은 없었다. 아마도 군병들이 천사들을 보고 혼비 백산하여 도망간 후였기 때문일 것이다.
- (3) 당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은 돌은 폭이 약 2m정도의 큰 것이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 이미 돌은 굴러져 입구가 드러나 있었다.
- (4)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의 인생 길에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오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마 19:26).
- (5)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소돔의 롯처럼(창 19:23-25), 사자굴 속의 다니엘처럼(단 6:19-23), 풀무 불속의 세 청년들처럼(단 3:19-27), 감옥에 갇힌 베드로처럼(행 12:3-11)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참조, 사 41:10; 43:1-7).

4. **㉠**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에게 흰 옷 입은 청년은 어떤 말을 하였는가? (5, 6절)

- ㉠** (1) 여기서 흰 옷 입은 청년이란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에게 천사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더 이상 머물러 둘 수 없었던 것이다.

- (2) 천사가 텅 빈 무덤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한 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제시를 의미한다. 간단하지만 천사의 이 한 마디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진리를 깨우쳐 준다.
- (3)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확실한 소망이 된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살 소망이 끊어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는 사건이며,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기 때문이다 (참조, 고전 15:20, 22).
- (4)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관문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복음의 가치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 (참조, 롬 4:25; 고전 15:14-17).
- (5) 셋째, 인간 생활의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다. 미래가 없는 인생의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한들 미래가 보장된 인생과는 비교가 되질 않는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롬 8:18).
- (6) 넷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의 증거이다. 주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망을 멸하셨으며, 역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다 (참조, 시 139:12; 요 5:24; 롬 8:2; 고후 1:10; 담후 1:10; 히 2:14; 약 5:20).
- (7) 부활하신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11:25, 26).

5. ㉠ 천사는 여인들에게 어떠한 임무를 주었는가? (7절)

- (A) (1) 천사는 여인들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고 말하였다.
- (2)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한 것은 제자들의 근심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배신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평강과 행복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였다.
- (3) 특별히 제자들 중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가 예수를 부인했던 것으로 인해 (14:66-72) 보다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용서하고 본래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신 그의 배려는 참으로 자상하고 자비롭다.
- (4)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는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는 그의 사역 중 많은 일들을 갈릴리움 중심으로 행하였는데,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그가 승천하는 순간까지 마지막 교훈을 베풀기 원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 (5)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예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때때로 택한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참조, 롬 8:33-39).

6. ㉠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자신을 보이셨는가? (9절)

- (A) (1)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 (2) 그런데 왜 예수께서 많은 제자들과 따르던 다른 여인들보다 이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을 보이셨는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 (3) 아마도 그녀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충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러했던 것 같다.
- (4)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열렬하게 사랑하며 충성스러운 봉사와 헌신을 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신다(참조, 민 6:26; 시 21:6; 32:1; 133:3; 슥 8:13; 마 5:3; 엡 1:3).

7. ㉠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10, 11절)

- ㉠ (1) 예수께서 잡히실 때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마리아가 찾아가서 예수의 부활하신 소식과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아울러 전하였다 (10절).
- (2) 그러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마리아의 이 말을 믿지 않았다. 도저히 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11절).
- (3) 특별히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할 만큼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었다(참조, 요 20:25).
- (4) 그들은 예수의 생전에 수난과 죽음의 예고와 함께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고수하였다(눅 24:11; 요 20:25).
- (5) 이러한 불신의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서도 종종 발견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의심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버리고 굳건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진실한 삶을 살아야겠다(참조, 신 11:1; 시 22:4, 5; 33:21; 119:42; 마 12:17-21).
- (6)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문제에 실패하고 만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삶과 본문의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참조, 눅 1:15, 30; 행 2:1-4; 4:8; 6:3-5; 7:55; 11:22, 24).
- (7) 성령이 강림한 후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확신할 수 있었고(요 14:26)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다(참조, 행 13:27-30). 이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의 주체자는 인간을 사용하시는 성령이심을 알 수 있다(참조, 행 1:8).

8. ㉠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12절)

- ㉠ (1)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 (2) 본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눅 24:13-35에 언급되어 있는데, 본문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글로바'였다(눅 24:18).
- (3) 그리고 그들의 행선지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촌이었다(눅 24:13).
- (4) 그들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그들과 시골까지 동행하셨는데, 그때까지 그들은 동행자가 예수이신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눅 24:29-31).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셨다고 했다.
- (5) 그런데 눅 24:16에는 이 부분을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스런 부활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 (6)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비난하시기 보다는 성경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셨다(참조, 눅 24:24-27; 요 17:17). 그러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와 더불어 식사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를 바로 인식할 수 있었다(참고, 눅 24:30, 31).
- (7) 이와 같이 우리가 험난한 인생 길을 가는 동안 주께서는 줄곧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

실을 기억하자. 때로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 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큰 위로요 기쁨이다(참조, 사41:10;43:1, 2). 그분만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히실 수 있다(참조, 시 146:8; 눅 7:21).

9. ㉠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13절)

- ㉠ (1)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서둘러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예수를 만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 (2) 그런데 이 말은 누가의 기록과는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누가는 그 두 사람이 자신들의 경험했던 일들을 모여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열 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눅 24:33, 34)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가능한 해답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제자 중 몇은 이미 영광스러운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였고, 다른 이들은 아직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눅 24:37-41(참조, 마 28:17)이 이 입장을 얼마만큼 지지해 줄 것이다.
- (4)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도 믿어지기 어려웠던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무시하고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진리이다.

10. ㉠ 열 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14절)

- ㉠ (1) 열 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저희의 믿을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심하게 책망하셨다.
- (2) '믿을 없는 것'에 해당하는 원어는 <아피스티아>인데 이는 근본적인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대단히 약한 상태를 가리키며, '마음이 완악한 것'에 해당하는 원어는 <스클레로카르디아>인데 이는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과 확실한 증거에 순종치 아니하여 믿는 것을 거절함을 의미한다.
- (3) 모든 불신앙의 뿌리는 이러한 완악한 마음에 근거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믿어야 할 것을 거절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고집하고 신뢰한다.
- (4) 것처럼 악한 성질과 완악함이 우리의 성격이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그것의 중요한 의미들을 모두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그를 끌어안고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세주로서 그에게 매어 달리고 모든 일에 있어 우리의 대장으로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참조, 롬 6:4-6).

11.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신 사명은 무엇인가? (15절)

- ㉠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 (2)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한다(참조, 롬 10:13).
- (3) 전도자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경험도 지식도 지혜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바로 그것일 뿐이다.
- (4)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 첫째, 세련되지도 못하고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둘째, 평범한 세속적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다. 셋째, 매우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자들이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똑같은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
- (5) 네째, 특수한 임무를 위해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행하셨던 것이다.

- (6)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온전한 인간은 아니었다. 이 사명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바로 전에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질책을 받았다. 결국 이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완벽한 전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 (7) 여섯째, 비록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권능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었다. 일곱째,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야 하는 일을 시작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며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었다.
- (8)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근거하여 살펴볼 때 예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자라면 누구도 전도의 의무적인 책임을 면제받지 못하며 반드시 자기의 활동 영역과 분량에 따라 그것에 참여하여야 한다(참조, 롬 10:14; 엡 4:11; 뱀전 1:12).

12. ㉠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속에 나타난 전도의 주체자는 누구인가? (15절)

- ㉠ (1) 복음 전도는 인간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하여 되어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의 주체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 (2)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해야 할 전달자요 도구일 뿐이다. 그렇다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3)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이므로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 (4) 흔히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때가 많다. 전도는 우리 영혼에 관계된 문제이므로 마땅히 하나님 특히 성령이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등이 앞서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사역을 그르칠 때가 많았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 6:44, 45; 행 1:8; 갈 1:6-12).

13. ㉠ 복음의 영역(領域)에 대하여 설명하라 (15절).

- ㉠ (1) 복음의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영역에는 제한이 없다. 예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명령 속에 잘 나타나 있다.
- (2) 참고로 행 1:8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 (3) 또 마 28:19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기록되어 있다.
- (4) 바로 보전대 복음은 나라나 기후에 제한이 없으며, 속박된 자나 자유인 혹은 다른 어떤 특별한 구분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는다.
- (5) 지구의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민이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방황하고 있으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 (6)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 이전부터 주어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며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에게 공히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7) 따라서 이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서 뿐 아니라 앞으로의 택한 세대들에 의해서도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계 14:6).

14. ㉠ '믿음'과 '세례'와 '구원'의 상호 관계는 어떠한가? (16절)

- ㉠ (1) '믿음'은 엄밀하게 말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중생에 관계된 것이고 또 하나는 성숙에 관계된 것으로서, 전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드리며(참조, 엡 2:8)

후자는 자신의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진다(참조, 빌 1:25).

- (2)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믿음은 전자로서 한 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참조, 롬 3:22-30; 10:17).
- (3) 그리고 '세례'는 이제 육에 속한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참조, 마 28:19).
- (4) 이 세례는 마치 구약 시대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원백성임을 표시할 때 행하던 할례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참조, 창 34:14; 행 7:8)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약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참조, 롬 6:4).
- (5) 한편 이 세례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예식으로서 세례 그 자체가 죄를 도말하는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 (6) 특별히 이 세례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변화된 존재임을(참조, 갈 2:20) 만민 앞에 알리는 행사로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하고 기쁘게 치루어져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이다(참조, 마 18:13, 14).
- (7) '구원'이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로 주어지는 상급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재확인해야 할 것은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엡 2:8)이며,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예식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참조, 롬 10:9, 10).
- (8) 그러나 이렇게 귀한 진리를 외면한 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만이 주어질 것이다(참조, 히 9:27; 벧후 2:9-22).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으면 심판의 필연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참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참조, 요 14:6).

15. ㉠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무엇인가? (17, 18절)

- (A) (1)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바로 그것이다.
- (2)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죽음과 죄를 제어하신 예수의 능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고 또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일이다(참조, 눅 9:38; 행 14:8).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다(참조, 마 10:8).
- (3) 또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것은 오순절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으로서(참조, 행 2:4; 10:46) 성령께서 복음의 효과적 전파와 개인의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해서 은사로 주신 것이다(참조, 고전 12:10; 14:4).
- (4)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강조한 것이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멜리데 섬에서 체험하기도 했다(참조, 행 28:3-5).
- (5)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일 역시 복음의 효과적 사역을 위해 예수께서 제공하신 능력으로서(참조, 행 28:8) 영혼 뿐만 아니라 전인격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당신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은사이다.
- (6)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권능과 보호'라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 (7) 또 하나님께서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에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 43:2)라고 하셨다.

(8)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속의 그리스도는 강하시므로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슬한 장애물을 헤쳐 나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한다 (참조, 사 41:10; 행 28:3-5).

16. **㉠**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 (1)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권능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인 그는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 변화시켜 이 땅에 오셨으며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는 통치자의 우편에 다시 앉게 되셨다 (참조, 빌 2:9-11).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
- (2) 첫째, 그는 탁월한 존엄과 권세, 열정적인 사랑과 행복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다.
- (3) 둘째, 그의 품안에 있다는 것은 굳건한 반석과 안정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지닌다는 뜻이다.
- (4) 셋째, 그것은 예수께서 우월하신 자로서 지니는 본성과 성격과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우리의 통치자이며 심판자라는 것이다 (참조, 사 9:6, 7; 요 5:22, 30).
- (5)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앙과 희망을 격려하는 동시에 강화시켜 준다. 그것은 우리가 그에 의하여 선포되어진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불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그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받으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6) 왜냐하면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혜와 권능의 주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리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볼 수 있고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어느 곳에서라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 (7)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비록 예수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들에게서 시선을 떼어 놓지 않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 것이다 (참조, 마 28:20).

17. **㉠** '표적'은 복음 전파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0절)

- ㉠** (1) 표적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 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이 그 자체로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 (2) 예수께서도 공생애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러한 경우들은 예외 없이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수단 (도구, 방법)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 (3) 본문을 보면 이것이 좀더 명확히 드러난다. 주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나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 (4) 그들의 전도 사역이 성공하게 된 것은 탁월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며, 나뭇대로의 천성적 재능 때문도 아니며, 순수하게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또 다른 방법에 의한 것도 결코 아니다.
- (5) 그것은 단지 성령의 권능과 도우심으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곳마다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었으며, 더우기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 (6) 그런데 오늘날 이 표적을 복음 전파의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목표로 삼거나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는 표적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조, 사 6:17; 왕하 19:28, 29; 20:5, 9-11; 히 2:4).

연구자료

부활하신 예수의 발자취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의 발자취를 도표 및 화보로 나타내 보았다. 그런데 신학자들에 따라서 예수께서 사 람들에게 나타나신 순서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다.

때	사 람	장 소
부 활 절	1. 막달라 마리아 9 절	예루살렘
	2. 다른 여자들 마 28:9	예루살렘(?)
	3. 베드로 고전 15:5	예루살렘
	4. 두 제자 눅 24:15-31	엠마오
	5. 열 제자(도마는 제외) 요 20:19-24	예루살렘
부 활 절 다음주일	6. 열한 제자(도마도 참석) 요 20:26-29	예루살렘
	불확실함	7. 고기잡는 일곱 제자 요 21:1-24
7-a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분부함 요 21:15-17		
8. 열한 사도 마 28:16, 17		갈릴리의 산
9. 오백 명의 형제들 고전 15:6 (8, 9 그림없음)		알지 못함
승 천 시	10. 야고보 고전 15:7	알지 못함
	11. 열한 사도 행 1:2-6	베 다 니
불확실함	12. 사울(바울) 행 9:1-5, 고전 15:8	

부활절 아침
9절여자들에게 나타나심
마 28:9베드로에게 보이심
고전 15:5엠마오의 만찬
눅 24:29-31



열 제자에게 나타나심
요 20:19, 24



도마의 불신
요 20:26-28



고기가 기적으로
많이 잡힘
요 21:5, 6



베드로에게 명령하심
요 21:15-17

야고보에게 보이심
고전 15:7



예수의 승천
눅 24:50, 51

바울의 회개
행 9:4-6

